#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5월 16일 수요일 (주간) 제318호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정릉동

실상선원 041)734-2680 대전 논산시 연산면 우정리 천흑사


금구법구

자신의 어리석음 스스로 아는 이는
해벌레 나비 되듯 슬기로운 사람인데
어진 이 답아보려 어리석음 감춘다면
어느 때 기약하여 우치를 벗어보리.
-출요경 권제22-

##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성역화에 묻히는 '원각사'

서울시가 엄정한 역사적 조명도 없이 탑골공원(사적 제354호) 성역화 사업을 서두르고 있어 교계의 비판여론이 높다.

탑골공원은 원래 조선 세조가 사대문 안에 세운 국찰인 원각사가 있던 터로 조선 중기 이후 폐사됐다가 구한말 최초의 근대식 공원으로 조성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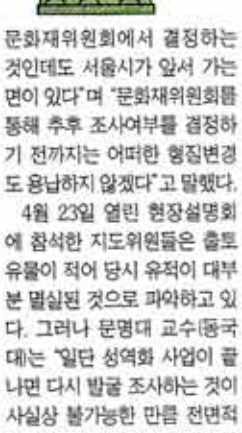
서울시는 탑골공원을 3·1 운동 민족성지로 조성한다는 취지의 성역화 사업을 고건 시장 지시 아래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본격적 공사에 앞서 서울시가 3월 16일부터 실시한 원각사터 시굴조사에서는 대형 초석 2점과 산스크리트 문양 수막새, 청기와 조각 2점, 우물 등이 새롭게 발견됐다. 시굴을 담당한 서울시립박물관 측은 '출토유물 대부분이 원각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조선 후기 민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 달 중순까지 조사를 끝내고 예정대로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공원녹지과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8월 15일까지 성역화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계는 불교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원각사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4월 30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원각사는 조선시대 최대 왕실 사찰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적지"라며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은 원각사에 대한 역사적 규명작업이 마무리된 후에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각사 주지 보리 스님도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 조사가 아니라 가람의 원형을 파악할 수 있는 전면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입장은 분명하다. 유형문화재과 심영섭 사무관은 "국가 사적지 내 형질변경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인데도 서울시가 앞서 가는 면이 있다"며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추후 조사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형질변경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4월 23일 열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지도위원들은 출토유물이 적어 당시 유적이 대부분 멸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문명대 교수(동국대)는 "일단 성역화 사업이 끝나면 다시 발굴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전면적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형진(취재 2부 기자)



◇천성산 비로봉 정상부근 밀밭늪 주위에 무단 개설된 임도. 건축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 양산시 천성산 사찰경내지 임도 개설

# 내원사 "고원습지 훼손"

### 조계종 환경위 "수행환경 파괴 강력 대응"

내원사(주지 혜등)가 위치한 천성산이 양산시의 잇따른 임도 개설로 심각한 자연 환경 파괴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임도개설로 국내 최대 생태보고로 확인된 천성산 고원 습지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어 습지 보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는 최근 양산시가 내원사의 사전 허락없이 내원사 소유지가 포함된 임도를 개설하면서 표면화되었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양산시가 진행한 하북면 용연리 일대 1km 구간의 상북-석계 임도에 내원사 사찰림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반발에 부딪치자 '더 이상의 임도를 개설하지 않고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내원사의 측량 결과 96년부터 매년 진행해 온 10.5km의 임도 중 영산대, 덕계 구간에도 내원사 소유 산림이 포함되는 등 총 4km 정도가 내원사 경내지를 훼손하면서 개설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양산시는 복구를 진행하지 않는데다 도리어 개설된 임도를 이용, 6일에는 민간단체가 주관한 철폭제에 안종길 양산시장을 비롯 양산경찰서장, 공상읍장을 비롯 1000여명의 시민들이 대거 참석해 천성산 습지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천성산의 화엄늪, 밀밭늪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스펀지형 고원 습지로 264종의 식물과 76종의 동물, 곤충이 서식하고 있어 자연 식생사 연구의 학술적 가치와 보존가치가 충분한 곳으로 보고되어 있다. 정우규 박사와 함께 천성산 늪지를 발견하고 보고했던 사진작가 김종호씨는 "습지가 사람에 의해 짓밟히면 이탄층이 소실되어 이를 완전 회복하는데는 무려 2백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습지 보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양산시에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임도나 철폭제 행사장과 습지와 전혀 무관하고 늪에는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고 있으며 습지 보호는 환경부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말로 무관심을 드러냈다.



<가지산 도립공원내 임도 현황 >

내원사 주지 혜등스님은 "천성산 습지 파괴는 내원사 계곡의 물고갈 등 내원사의 수행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임도 원상 복구 요구와 함께 다각적인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성타스님)는 내원사의 실태 보고서를 토대로 양산시의 관광개발 위주의 정책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산=천미희 기자

## 한 중 일 불교교류 10월 베이징 대회 북한 초청키로

한중일 불교우호교류위원회는 9일 베이징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10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불교대회에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위원장 박태화) 대표단을 초청하기로 했다. 이로써 분단 이후 처음으로 국제회의에서 남북불교 대표가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불교우호교류위원회는 실무회의에서 조불련의 참여시키는 데 동의하고, 우선 10월 대회에 3명의 대표단을 참관인 자격으로 초청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3국에서 분담하기로 했다.

조불련을 대회에 참석시키기로 한 것은 지난 해 서울대회 때 한국측에서 제안했으며,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일본측 실무대표단의 조불련 초청 제안을 한국과 중국 실무대표단이 받아들였다고 회의에 참석한 법현스님(종단협의회 사무국장)이 밝혔다. 종단협의회는 곧 조불련에 초청 사실을 알리고 참가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또 베이징 대회를 10월 26~28일까지 열며, 세계평화 기원법회, '불교와 환경보전' 주제의 심포지엄, '스님들의 눈으로 본 불교와 환경보전' 사진전 등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측에서는 종단협의회 이사인 양산스님(조계종 사회부장)과 덕수스님(현태종 총무부장), 법현스님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 범불교 환경단체 내달 창립

### 17일 결성준비 토론회

설악산과 지리산 등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산림과 사찰환경을 지키기 위한 범불교 환경 단체가 다음달 29일 출범한다.

이 단체는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지리산살리기 댐 백지화 범불교연대'와 불교환경교육원 등 기존의 불교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하되, 각 지역의 환경 시민단체와 사찰이 참여해 지역에 뿌리를 두는 풀뿌리 조직을 지향하면서 백두대간 및 국립공원 문제 대응, 사찰환경 네트워크 구성, 불교환경이념 정립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새로운 불교환경단체 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유정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은 7일 "불교계의 환경운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범불교 환경단체를 출범시키는 것은, 사찰환경을 보호하고 가꾸는 실제적인 조직이 부재하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준비위는 17일 오후 2시 조계사 불교회관 1층에서 '불교생명사상과 환경운동의 모색'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활동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상임대표, 수경스님과 공동집행위원장 현응스님을 비롯 동학사 주지 일연스님, 석천사 주지 진옥스님, 유재현 세민재단 이사장, 여진구 생태보존시민모임 사무국장, 김재일 두레생태기행 대표, 임삼진 녹색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다. ☎587-8997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신사년 하안거 결제 1700여 납자 정진

해인사 송광사 수덕사 백양사 통도사 등 5대 총림을 비롯 전국의 각 선원은 8일 신사년 하안거 결제식을 갖고 3개월 동안의 참선정진에 들어갔다.

올 하안거는 전국선원수좌회의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선원에서 음력 4월 보름인 이날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90일간 실시하나, 일부는 다음달 1일부터 백중인 9월 2일까지 하기도 한다. 이번 하안거에는 총림선원 5곳, 비구선원 48곳, 비구니선원 30곳, 하와이 무량사 태평선원 등에서 1700명의 납자들이 방부를 들였다.

해인총림 방장 법전스님은 결제법어를 통해 "어떻게 해야 진출가(眞出家)의 소식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며 수행에 정진할 것을 독려했다. (방장스님 결제법어 3면)

정성운 기자

## 지역불교 문화기행

### 녹차향 그윽 윤사월 3寺순례

5월: 쌍계사 · 칠불사 · 국사암



윤사월을 맞아 자신의 업장을 씻고 공덕 쌓기를 발원하는 삼사(三寺)순례와 차문화 축제기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나라 차 시배지인 쌍계사에 들어서면 신라때 김대렴이 당나라에서 차 종자를 가져와 처음 심은 것을 기념한 차 시배비와 이 절의 창건주 진감선사의 공덕을 기린 진감선사대공탑비(국보 제 47호), 대웅전(보물 제 500호) 등이 여러분을 반길 것입니다. 또 한번 불을 지펴 놓으면 49일 동안이나 온기가 식지 않았다는 아자방(亞字房)으로 유명한 천년 고찰 칠불사도 참배합니다. 국사암 진감선사 부도비(보물 제380호) 앞에서 처음 열리는 '다례제'도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차를 직접 만드는 제다실습 프로그램도 진행할 이번 문화기행에서 3사순례의 선업쌓기와 더불어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세계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5월 26일(토) 밤11시 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5만5천원(조식 중식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460(예금주 선정호)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후 원 : (주)한화여행

## 장 군 죽 비

◇유전자 변형 아기 출생. 기술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날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냉혈히 인식할 때. (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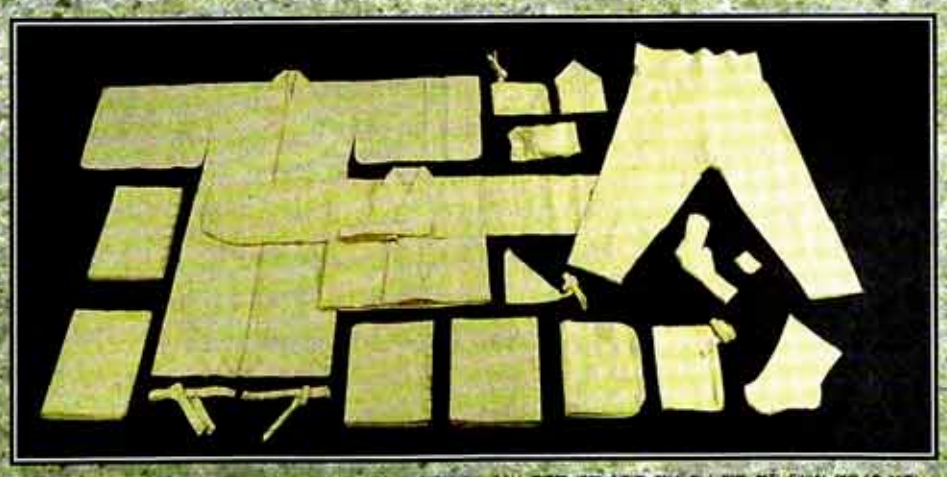
◇5월 8일(음 4.15) 하안거 결제. 1700여명 수좌, 화두 일념 돌입. 그 용맹스런 출발의 순간을 함께 한다. (11면)

◇5월 25일은 차의 날. 녹차 향기 그윽한 산사로 가자! '차나 마시고 가게'라고 불러줄 조주 스님 만나러. (14면)

◇국토 묘지화를 막을 사찰 납골당 건립, 지역이기주의에 발목 잡히다. 천년 만년 살 수 있다면 끝까지 반대하랴. (23면)


살아생전 부모님께 전통삼베 「윤년수의」

좋은 수의를 장만하는 일이야 말로 진정한 효의 실천입니다.



큰일을 당하고 나서 허둥지둥 장의사에 급하게 만든 수의(壽衣)가 어떠하셨습니까?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돌봄하게 따져가며 제대로 된 수의(壽衣)를 장만하는 일이야말로 불효(不孝)가 아니라 최고(最高)의 효도(孝道)입니다. 수의(壽衣) 중에서도 윤년수의(閏年壽衣)는 탈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無病長壽)를 기원(祈願)하는 최상(最上)의 수의(壽衣)로 손꼽힙니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선착순 100분에게 맞춤수의와 삼베 이불을 증정하여 드립니다. (안동삼베 特品이상)

| 품 명 | 구 성 | 재 질 | 가 격 |
|---|---|---|---|
| 안동 삼베 二品 | 남 20종, 여18종 | 大麻 (삼베) 100% 단섬유 기계직 | 550,000원 |
| 안동 삼베 一品 | 남 20종, 여18종 | 大麻 (삼베) 100% 단섬유 기계직 | 798,000원 |
| 안동 삼베 特品 | 남 20종, 여18종 | 大麻 (삼베) 100% 장섬유 기계직 | 1,150,000원 |
| 수직 特品 | 남 20종, 여18종 | 大麻 (삼베) 자연사 100% 수직 | 1,450,000원 |
| 안동포 七세 | 남 20종, 여18종 | 大麻 (삼베) 자연사 100% 수직 천연염료를 사용하여 재래식으로 염색 | 3,950,000원 |

윤달 (윤사월 5.23 ~ 6.20)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예약주문을 받습니다.
•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정확히 배달하여 드립니다 • ※ 카드 택배 가능

제조원 株式會社 安東삼베 ANDONG HEMP CLOTH CO.,LTD. | 본사/공장 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439-1

판매원 泰明商社 | 서울시 서초구 서초 3동 1570-8호 혜성빌딩 1F TEL. 02.586.2544 영업부. 02.586.2553~5

무료상담전화 080.588.2544

## 사 설

### 한국종교에 뼈아픈 지적

종교는 인간 양심의 최후 보루이어야 한다. 또한 미래의 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희망의 근원이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종교는 어떤 다른 영역보다도 맑고 깨끗해야 하며, 또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지니고 이 사회를 이끄는 기능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는 커녕, 오히려 가장 먼저 바로잡아져야 할 것이 바로 종교계라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지난 4월 26일 '종교 NGO 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국의 종교권력과 시민사회'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기성 종교는 구조 조정 1순위'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한국 종교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한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 대한 아픈 지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세미나에서 지적된 기성 종교의 많은 문제들은 기성 종교가 과연 존재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가를 되물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적이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니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종교계가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관해 오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비판이 산발적인 개인적 차원을 넘어 운동의 형태로 조직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기성 종교가 스스로의 내부적 모순과 타락으로 몰락하지 않으려면 정말 진지한 자세로 이러한 아픈 소리를 받아들여 정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가자들도 종교의 진정한 주체로서 자정 노력에 동참해야 할 시점이다.

종교계의 정화란 것은 현실의 괴로움을 양산하는 근원에 대한 통찰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상에 대한 제시를 통하여 사회를 올바로 이끄는 전향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올바른 이상에 대한 열정이야말로 종교를 맑히는 근원적인 힘이다. 이러한 근원적 힘을 찾지 못한 채 현실의 말단적인 문제에 매달리는 양상, 아니 그러한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기업적 모습을 보이는데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 정화를 이룰 올바른 추진력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올바른 방향과 이상으로 항상 세상을 맑히는 청청한 물의 역할을 되찾아가는 노력 속에서 종교계 정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납골시설 정부지원 필요

묘지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막고, 자연환경의 보전, 호화분묘로 인한 국민간 위화감을 줄이는 방안은 화장의 확산과 납골 시설의 활용을 늘리는 길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국민들의 화장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묘에 대한 수도권 주민의식 조사를 보면, 59%가 화장을 원한다고 답했다. 실제, 서울지역의 사망자 화장률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는 50%를 넘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화장장과 납골당(묘) 등 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경기도에 한정한 것이긴 하지만, 2010년에는 3만기 가까운 분묘가 부족할 것이라는 보고도 나와 있다. 그런데, 묘지난을 겪을 것이 뻔하며, 묘지난 해소 방안으로 납골당(묘)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납골당(묘)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만은 안 된다'라며 극구 반대하고 나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납골시설 건립을 추진했던 몇 사찰은 아예 계획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납골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교통 유발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 납골시설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을 일방적으로 탓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생각을 살짝 바꾸면, 납골시설 운영으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효과를 지역에 쓸 수도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납골시설 설립자와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조가 있어야 한다. 실제 장학회 설립을 조건으로 주민들과 납골시설 건립을 합의한 사찰도 있다. 주민들의 반대를 넘어서는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납골시설로 인한 세수의 일정액을 지역주민들을 위해 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 잠식을 막고, 장묘문화를 개선하는 데는 민간의 의지보다 정부의 역할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최근 불교계에서 나타난 납골시설 중도 포기 사태를 사찰과 지역주민 사이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도 덧붙인다.

# '조선불교 조계종' 세미나

## 창립 60돌 맞아 내달 5일 조계사서

종단 명칭에 '조계종'을 최초로 사용한 조선불교조계종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과 조계사는 다음 달 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선불교조계종과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체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관련기사 3면)

조선불교조계종은 일제 치하이던 1941년 창립한 한국불교사 최초의 근대적인 교단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초대 종정에 방한암, 종무총장에 이종욱 스님을 추대하였으며, 전국 본말사의 승적과 토지 관리, 〈조계종보〉 간행 등을 통해 종무 활동을 했다. 종단 명칭에 '조계종'을 쓴 것은 이 때가 처음이다.

그러나 해방을 맞으며 조선불교조계종 지도부의 일제 협력 등에 대해 비판하는 불교혁신총동맹과 분리되는 진통을 겪었다.

세미나를 기획, 준비하고 있는 기획실 박희승 기획과장은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파란만장한 전개과정 때문에 조선불교조계종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냉철하게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조선불교조계종과 대한불교조계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역사적 정체성을 규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세미나 주제 및 발제자와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조선불교조계종 출범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김광식 대각사상연구원, 토론 강인철 한신대 교수, '조선불교조계종 창립의 주역 연구-종정과 종무총장을 중심으로' 박희승 총무원 기획과장, 토론 김순석 고려대 강사, '조선불교조계종과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체성 연구-법제도를 중심으로' 손성 동국대 법대 교수, 토론 박해당 서울대 규장각 연구원.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 현대만평

박 구 원




내원사는 어디로…

## 불교인터넷 관리자 첫 연수

### 6월 8~9일 진흥원

대한불교 진흥원은 6월 8일~9일 양일간 다보수련원에서 교계 처음으로 불교계 인터넷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불교인터넷 관리자 연수'를 개최한다.

'인터넷 불교 포교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수회는 불교 관련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교류, 인터넷 포교의 방법론과 사이트 현황, 미래 전망및 공유 방안 모색을 통해 불교 포교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진흥원은 연수회에 앞서 불교 인터넷 관리자 300명을 대상으로 불교인터넷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불교계 인터넷 관리와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홈페이지를 매일 관리한다는 응답이 20.9%에 불과하고, 불교콘텐츠 개발도 47%만이 자체제작했다고 응답해 불교사이트의 질적 성장이 급선무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교계사이트를 운영하는 300명의 관리자들의 연령대로는 40대(44.2%), 성별로는 남자(79.1%)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신행활동 기간은 10년 이상(68.6%)이 주류를 이루며, 인터넷 경력은 62.8%가 4년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김응철교수(중앙승가대)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교육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개교 95주년을 맞는 동국대는 7일 본관앞 중앙잔디밭에서 이사장 녹원스님, 송석구 총장, 권노갑 총동창회장, 서돈각 진흥원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현보살 코끼리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 국제학술회의·코끼리상 제막

### 동국대 개교 95돌 기념

지난 8일로 개교 95주년을 맞는 동국대(총장 송석구)가 기념식, 국제학술대회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제2의 도약을 다짐했다.

동국대는 7일 오전 11시 중강당에서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과 송석구 동국대 총장, 권노갑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95주년 기념식을 열고, 장기 근속자에 대한 표창과 공로상을 수여했다.

또 정오에는 본관 앞 중앙잔디밭에서 '보현보살 코끼리상' 제막식을 가졌다. 불·법·승 삼보를 뜻하는 암수 코끼리와 아기 코끼리 3마리로 구성된 코끼리상은 지난해 9월부터 조승환 교수(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에 의해 제작됐다.

이날 행사에는 동국대의 자매대학인 일본의 용곡대학, 고마자와대학, 경도불교대학, 오타니대학, 중국의 중앙희극학원, 인도의 네루대학 등 8개 대학 총장 등 16명이 축하사절로 참석했다.

또한 동국대는 개교기념일인 8일부터 11일까지 학술문화관에서 12개 국 100여 명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합성금속의 양자수송현상 및 양자기능반도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회의에는 존 로버트 슈리퍼(미국), 크라우스 폰 클리칭(독일) 등 노벨물리·화상상 수상자 5명이 참가했다.

이외에도 동국대는 25일부터 2일간 국제전자불전회의(EBTI)를 개최하고, 28일에는 동문 산악인 박영석 씨의 K2 등반 출정식도 갖는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로체봉 정상에 올라 히말라야 8,000급 고봉 13개 등정에 성공해 14좌 완등에 한 개만을 남겨 놓았다.

오종욱기자

### "환경·인권보호 힘써달라"

### 김대통령 BBS11돌 대담

김대중 대통령은 불교방송 개국 11주년 기념 특별회견에서 "부처님이 강조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인권선언을 바탕으로 환경보전과 인권신장 그리고 소외된 이웃에게 자비를 행하는 불교계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지역감정 등으로 국가의 발전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만큼 종교계가 합의해서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타파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 "종단 화합 안정풍토 만들겠다"

### 태고종 혜초 총무원장 취임



태고종 제21대 총무원장 혜초스님과 부원장 대운스님 취임식(사진)이 10일 신촌 봉원사에서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취임식은 종사이운, 삼귀의례, 발원문 낭독, 법어, 약력소개, 취임사, 축사, 축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종정 덕암스님은 종회의장 운곡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새로운 총무원장 스님과 부원장 스님을 구심점으로 모든 종도들이 단결 화합하여 종단을 하루 빨리 안정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다같이 정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혜초스님은 취임사에서 "종헌 종법과 각종 제도를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하고 중앙의 행정권한을 지방 종무원에 대폭 이양하며 종단 질서와 승려의 기강 차원에서 교육과 연수를 강화하여 종도들의 화합 단결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종단협의회장 정대 스님,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김기재 민주당 연등회장, 합종한 한나라당 불교신도회장, 김규칠 불교방송 사장 등이 축사를 통해 혜초 총무원장스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태고종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경숙 기자

### 포교전문스님 40명 배출

조계종교육원(원장직대 계성)은 11일부터 19일까지 중앙승가대 안암학사에서 '2001년 포교전문인력양성교육'을 실시하고 포교전문스님 40명을 배출했다.

김원우기자

### 조계종 국장급 인사

**사회국장 혜림스님**

**감사국장 덕원스님**

**조사국장 종홍스님**

**불학硏소장 법룡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4일 사회부 사회국장에 혜림스님(사진)을 임명하는 등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에 기획실 감사국장 법룡스님, 감사국장에 호법부 상임감찰 덕원스님, 호법부 조사국장에 사회국장 종홍스님을 전보 발령했다.

사회국장 혜림스님은 도형스님을 은사로 봉선사에서 출가, 86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봉선사 호법, 기획, 총무국장을 역임했다. 현 자재암 주지.

정성운 기자


# 2001년 대원불교대학 후학기(後學期)입학안내



대원불교대학 전경



▷ 대중불교 운동의 실천



▷ 넉넉한 교육환경



▷ 불교전문 도서관 운영



▷ 30여 년의 전통과 2,000여 동문

■ 강의시간 8월 27일 개강 주 3일 출석, 야간수업
■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휘옥(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업(동국대)
■ 초빙교수 월운스님, 권기종(동국대), 정병조(동국대)
■ 교육과목

| | | |
|---|---|---|
| 1학년 | 1학기(14주) |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불교문화특강 |
| | 2학기(14주) |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
| 2학년 | 1학기(14주) |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우리말불교의식 |
| | 2학기(14주) |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선사상 |

■ 모집 및 전형 (2년제 야간 – 출강 · 통신과정)

| 모집과목 및 인원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전형방법 |
|---|---|---|---|
| · 불교학 출강 00명 |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3매) ·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 (편입생에 한함) | -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지 - 편입학은 2학년 과정으로 입학 |
| · 불교학 통신 00명 | | | |
| · 불교학 편입 00명 | · 타 불교대학 과정 졸업자 | | |

■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8월 17일(금) 본 대학 교무과
■ 특전사항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 大圓佛教大學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756-7258

## 팔리경장 한글 번역 불사 회원 모집

2,600년 전 고타마 붓다의 원음이 아름다운 우리말로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숱한 역사의 위기속에서도 존속해 온 소중한 팔리경장을 한글로 번역하는 10년 대 불사가 대중불교운동의 요람인 남산 대원정사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불교 바로 대중불교운동은 부처님의 원음인 팔리경장 번역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불자 모두는 신명을 다해 이번 불사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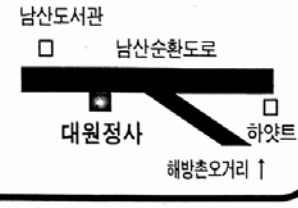
■ 연찬회원(월 30,000원)
팔리 경장 연찬회에 참가하여 우리말로 옮겨진 팔리어 근본 경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은 강의 TAPE를 우송해 드립니다

■ 구독회원(연 30,000원)
매달 또는 격월로 발행되는 팔리경장을 보내드립니다.

■ 후원회원(경전 1권당 2,000원)
군부대, 병원, 학교에 팔리경장을 법보시 할 수 있습니다.

■ 송금계좌(예금주, 한국불교대원회)
우체국 011791-01-000469 국민은행 098-01-0230-530

■ 팔리 경장 연찬회
일시 : 매주 월요일 11시
장소 : 대원정사 (02-754-1613)
강사 : 최봉수 교수



## 목어

### 궁예의 죽음과 역사왜곡



"왕이 듣고 어찌할 바를 몰라 미복(微服) 차림으로 산 속으로 들어갔다. 얼마 안 있어 부양지역 백성들에게 죽었다."〈삼국사기〉 궁예의 최후는 이미 그렇게 사료에 나와 있다. 또 다른 사료 〈고려사〉에는 보리이삭을 훔쳐먹다 부양지역 백성들에게 죽었다고 각색되었으나, 명백한 결론은 부양지역 백성들에 의해 죽었다는 기록이다.

여기에서 역사의 진위 여부를 가리려는 학구적인 논쟁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시중에 나도는 궁예와 김대통령의 공통점 서른 몇 가지가 회자되는 것을 계기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기 때문이다. 제작자들은 궁예의 죽음을 어떻게 그릴까 고심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고심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사료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은 우리들의 창의적인 상상을 펴 그려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미 사료에 나와 있는 부분을 상상만으로 그리는 것은 '왜곡'에 속한다.

제작자의 상상력만으로 사료를 왜곡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지금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 고쳐라 하면서 온 나라가 시끄러운 판인데, 따지고 보면 궁예의 죽음 표현도 왜곡의 일종이다. 내 눈의 대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만을 시비하는 어리석음과 같다. 역사적 사실을 명백히 왜곡 서술한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 중국 등지의 왜곡은 왜 한마디의 소리도 없는 것인가. 내가 하는 왜곡적 상상은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가.

"궁예는 돌에 맞아 죽는다. 김대통령은…." 이런 떠도는 말을 의식해 궁예의 죽음에 대한 사실을 왜곡했다면, 이는 정신분석적으로 일차과정 사고체계에 있는 미숙함을 보인 것이다. 일차과정 사고란 비논리적 사고로서 어린이들이나 할 미숙한 사고체계를 말한다. 웃고 말 일이지 그것을 믿고 왜곡하는 일은 더욱 웃음거리가 된다. 궁예와 김대통령은 논리적으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바로 보자. 바로 보아야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근후(이화여대 명예교수 · 본지 논설위원)

불기 2545년 하안거 결제법어

# "삼계가 그대로 한마음 뿐이로다"

###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



結制心出요 解制身出라
解結無廬하면 是眞出家라
결제는 몸이 출가함이요 해제는 마음이 출가함이라.
해제결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이 진짜 출가라.
(중략)
그렇다면 '땅이 산을 받든 것 같고, 돌이 옥을 머금은 것과 같다' 고 하니, 어떻게 해야 그런 진출가(眞出家)의 소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결제철에 잘 참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地厚山高孰使然고
玉藏巨璞不知年이로다.
若人念念常如此하면
堪與世間爲福田하리라.
땅 두텁고 산 높은 것 누가 그렇게 만들었던고
옥이 큰 옥돌 속에 숨어서 지낸 세월 모른다.
누군가가 생각생각에 이렇게 하면
세간의 복밭이 될 수 있으리라.

###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앞 부분 생략)
우리들의 분상에는 다만 오늘이 있을 뿐 원래 내일은 없으니 내일을 기다리는 자는 미륵부처님이 열반하더라도 머리를 내놓지 못하리라.

靈然不涉去來今하니
三界都盧一點心이라
欄外桃花春蝶舞하고
門前楊柳曉鶯吟이로다
會麼 아
신령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상관 없으니
삼계가 그대로 한마음 뿐이로다
울 밖에 복사꽃에는 봄나비 춤추고
문 앞에 수양버들에는 아침꾀꼬리 노래하네
아느냐

木牛飮盡不濕水로다
나무소가 젖지 않는 물을 다 마셔버렸구나

### 덕숭총림 방장 원담 스님



年年去來辛巳來
辛巳碧光滿乾坤
優曇華開火裏中
無角石牛眼裏 踩
세월이 흘러 신사년에 도래하니
신사년 벽광이 하늘과 땅에 가득하다.
우담화는 불 가운데에서 피어나고
뿔없는 석우는 눈 가운데 누워 있도다.

### 고불총림 방장 서옹 스님



(앞 부분 생략)
남전스님 회상에서 하루는 대중이 동당 · 서당에서 고양이를 가지고 싸움을 하거늘, 남전스님이 이를 보고 마침내 고양이를 잡아들고 이르되, "대중이 한 마디 잘 일러 얻으면은 곧 베지 않겠다."
대중들이 대답이 없자,
남전스님이 고양이를 두 동강이로 베어버렸다.

劍輪飛處 日月沈輝
寶杖敲時 乾坤失色
칼이 나는 곳은 일월도 빛남이 없어져 버리고
보배 주장자를 두드릴 때에는 천지가 빛을 잃어버린다.

### 태고총림 중앙선원장 지허 스님



(앞 부분 생략)
우리가 다 적손인데 서자 노릇을 하고 있었지요. 우리 이제 어디서나 환귀본처(還歸本處)합시다.

童子行尋千裁後
蓼蓼寂寂但淸虛
老僧無事臥雲裏
白日靑山對結廬
아이가 찾아 나선 지 천년 후에
고요하고 또 고요하여 다만 맑게 비었네.
노승이 일없이 구름 속에 누웠으니
밝은 해는 푸른 산과 토굴을 마주하고 있구나.

## 서암 스님 7년만에 봉암사서 결제법어



94년 조계종 사태의 와중에서 홀연히 종정의 자리를 떠난 서암(西庵) 스님. 이때 20여년 조실로 머물렀던 조계종 특별수도도량인 봉암사 태고선원도 떠났다. 7년의 세월이 흘러 서암스님이 봉암사 법상에 다시 올랐다.

지난 9일, 신사년 하안거 결제법어를 하시기 위해서였다. 법어를 마치고는 다시 어디론가 떠나셨다. 봉암사의 한 스님은 "볼 일이 있으시다며 시자와 함께 가셨다"고 전했다. 이 스님은 또 "법어를 글로 남기지는 않았으며, 정진을 독려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서암스님이 결제 법어를 하게 된 것은 봉암사 대중들의 요청 때문. 봉암사에서는 서암스님이 상주하며 수행납자들을 지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암스님은 이를 완곡히 물리쳤다. 사실상 조실 추대를 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대신 결제와 해제 법어, 반철(결제와 해제 중간) 때 소참법문(설법 및 그에 따르는 문답)만 하기로 했다.

서암스님은 75년 봉암사 조실로 추대된 이후 94년 4월까지 봉암사에서 납자들을 지도하며 수행에 매진했다. 이후 서암스님은 봉화 무위정사에 머물고 있다. 가끔 불자들의 청을 받아 법문을 하기도 했지만, 주석처의 편액처럼 10평 남짓한 토굴에서 '무위'로 살고 계신다.

봉암사는 94년 서암 스님이 물러나 빈 조실자리를 97년 범룡스님이 맡았으나 1년반 남짓 소임을 보다가 연로해 사임했다. 그러다 지난 해 10월 진제스님을 조실로 모셨으나, 석달만에 떠나 선방의 구심점인 조실이 비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서암스님이 결제 · 해제 · 반철 법어를 하기로 했으니, 사실상 조실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 '조선불교조계종' 세미나의의 조계종 정체성 확립 기여

### 불교 근 · 현대사 관심 높아질 듯

그 동안 한국불교는 근현대사에 대한 정리, 평가의 기회가 거의 없었다. 세미나 준비팀에서 밝히고 있듯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파란만장한 전개 과정 속에서 지난 일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 이는 불교사 인식과 교단관의 미정립으로 이어져 정체성 확립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계종 기획실과 조계사가 공동으로 주최해 다음 달 5일 여는 '조선불교조계종과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체성 연구' 세미나는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 가운데 하나인 조선불교 조계종 창립의 의의를 집중 조명,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불교조계종의 창립은 종단 명칭에 조계종을 최초로 사용, 선종의 정통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계종이란 명칭은 선종의 6조인 혜능스님이 설법하던 보림고사(寶林古寺)가 있던 조계산에서 유래한다.

1941년 조선불교조계종의 창립은 일제의 조선불교 말살 음모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불교계의 교단 건설 작업의 성과이다. 36년 일제는 모든 불교 재산을 병합 · 통합하기 위해 박문사를 한국불교총본산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응해 조선불교는 본사주지회의를 열어 총본산 건립에 뜻을 모았다. 이의 실현은 태고사(현 조계사) 건립(38년 10월), 태고사법의 제정(41년 4월)을 통한 법령 정비, '조선불교조계종'으로 교단 명칭 확정 등으로 나타났다. 종헌의 골격을 갖춘 태고사법은 16장 13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조선불교조계종은 해방 이후 '조선불교'로 개칭되었고, 1954년 다시 '조계종'으로 복귀하였다가 62년 통합종단 출범과 함께 '대한불교조계종'으로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불교의 현재 모습의 근거가 되는 파란만장했던 불교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 도솔암 삼사순례 및 방생법회 안내

한곳에서 방생도하고 삼사참배도 하시기 바랍니다

〈삼사 참배 코스〉

제 1 코스 : 도솔암 참당선원 선운사
제 2 코스 : 도솔암 선운사 내소사
제 3 코스 : 도솔암 선운사 개암사
제 4 코스 : 도솔암 선운사 내장사

※문화기행 : 고인돌, 미당 생가, 전봉준 생가

- 도솔암에는 성지순례 참배객을 위해 항상 무료공양을 하고 있습니다.
- 도솔암에는 대형버스가 절입구까지 올라갑니다.
- 도솔암에는 계곡을 막은 5만평의 저수지 방생장소가 생겼습니다.
- 하루전에 전화예약주시면 1000명분의 공양도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18번지 도솔암
■ 전화 (063)564-2861, 561-0075 팩스 (063)561-4080

해동 제일 지장기도 성지 도 솔 암



## 일주문



### 제5회 모악축제 열어

도영 (사)파라미타 전북지부장은 20일 금산사에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5회 모악축제'를 개최한다.



###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

혜총 부산 용호종합복지관장은 8일 복지관 마당에서 관내 어르신 3백여 명을 초청해 '경로 큰잔치'를 가졌다.



### 강릉시암련 회장 취임

청우 등명락가사 주지는 4월 26일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릉불교사암연합회 제2대 회장에 취임했다.



### 선원사 대웅전 상량식

성원 강화 선원사 주지는 11일 600여 년 만에 대웅전 상량식을 거행했다. (032)933-8234



### '무문관' 강의

원광 김포 선경암 주지는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후 2시 인천불교청년회관에서 〈무문관〉을 강의한다.

### 대행스님 18일 동국대서 법문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이 18일 오후 3시 30분 동국대 중강당에서 법회를 갖는다. 동국대 정각원이 매달 마련하는 고승초빙 법회에서 대행스님은 '죽어야 나를 브리라'를 주제로 법문한다. 활발자재한 삶의 길을 열어줄 이번 법회에는, 동국대 교직원은 물론 관련 신행단체 종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우 자나카 스님 위빠사나 특강



미얀마의 현존 최고수행 지도법사로 추앙받고 있는 우 자나카(71) 스님이 20일 오후 3~6시 서울 봉천동 한국요가연수원(원장 이태영)에서 위빠사나 수행법에 관한 특별강연을 갖는다. 우 자나카 스님은 14세에 출가하여 근세 미얀마(구 버마) 대선사 중 한 분이었던 마하시 사야도(Mahasi Sayadow)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이후 40년간 미얀마를 비롯해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명상지도를 해오고 있다. 95년 미얀마 정부로부터 최고대수행 지도법사 칭호를 받았으며 현재 미얀마 참메선원장으로 있다. (02)888-5087



## 金대통령 혜초기념비각 휘호 전달

중국 서안 선유사에 건립되는 혜초 스님 기념비의 비각 현판으로 새겨질 김대중 대통령의 친필 휘호 '신라국대덕고승혜초기념비정(新羅國大德高僧慧超紀念碑亭)'이 3일 박준영 청와대 공보수석에 의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에게 전달됐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원택 스님과 조계사 주지 지홍 스님이 함께 했다. '조계사는 다음날인 4일 대통령 휘호 사본을 선유사에 전달했으며, 혜초기념비 제막식은 6월13일 선유사에서 거행된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 "성보보존은 으뜸 불사"

### '자랑스런 박물관인 상' 받은 범하 스님



"불사 중에 제일 중요한 불사는 바로 성보 보존입니다. 불자라면 당연히 집 한 칸 더 짓는 것보다 성보 보존에 먼저 힘써야 합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범하 스님이 3일 한국박물관협회(회장 김종규)로부터 '제4회 자랑스런 박물관인 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스님은 10년 불사 끝에 11개 본·말사와 대학 및 사립박물관에 소장된 불화 1천7백여 점을 사진으로 정리한 〈한국의 불화〉 시리즈 1차분 20권을 지난해 완간하는 등 불교문화재 보존과 계승에 힘써 왔다.

"개인적 영광이라기보다 불교계가 문화재 보존에 더욱 힘써 달라는 뜻"이라며 겸손해 하는 스님은 "성보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거나 없어지면 다시 찾을 수 없다. 스님이나 신도들이 앞장서 성보 보존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최근 드러난 대규모 문화재 밀매단 검거에서 보듯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불교문화재 도난사건에 특히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아무리 잘 지켜도 훔치는 사람을 당하긴 역부족이다. 단순히 재화적 가치를 따지기보다 성보는 예배의 대상인 동시에 우리 민족 전체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시상식은 21일 오전 11시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교육관 강당에서 열린다.

권형진 기자

## "물질·정신 베푸는 일도 수행"

### 20년째 경로잔치 도안사 혜자 스님



상계동 수락산 자락의 작은 절, 도안사. 인근 마을 사람들에겐 경로잔치를 여는 절로 알려져 있다. 7일에도 경로잔치를 열었다. 올해로 20년째다. 노원구 관내의 어르신 1000여명이 수락산 동막골 유원지에 모여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은 도안사 주지 혜자스님(조계종 문화부장)과 신도회에서 냈고, KBS 코미디언 이정표씨가 무보시로 진행을 맡았다.

혜자스님이 매년 경로잔치를 열게 된 계기는 작은 데서 싹텄다.

"할아버지들이 수락산에 올라와서는 점심도 드시지 않고 내려가더라고요. 매일은 못하더라도 1년에 한번은 점심공양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스님은 "신도들이 돕지 않는다면 하지 못할 일이죠. 공덕이 된다면 모두 신도들의 몫입니다"며 신도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10여년 전부터는 효행상도 시상하고 있다. 유산 문제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세상에서 그래도 효심을 돋우기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정성운 기자

## 제5회 만해상 수상자 선정



故 정주영 회장



백낙청 교수



이형기 교수



정영호 교수



정우 스님

| | |
|---|---|
| 평화상 | 故 정주영 회장 |
| 실천상 | 백낙청 교수 |
| 시문학상 | 이형기 교수 |
| 학술상 | 정영호 교수 |
| 포교상 | 정우 스님 |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정대스님)는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금강산 관광사업과 두 차례의 소떼 방북을 통해 남북화해의 물꼬를 튼 공로를 인정해 故 정주영씨를 제5회 만해상의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천상에는 〈창작과 비평〉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우리 문학의 발전과 사회의 민주화에 영향을 끼친 점을 인정받은 서울대교수 백낙청 씨가 선정됐으며, 시문학상은 10여년에 걸친 오랜 투병생활속에서도 불굴의 창작정신을 발휘해 후배문인들의 귀감이 된 동국대 교수 이형기씨(시인)가 선정됐다. 또 30여권의 저서와 3백여편의 논문을 통해 국내 고고미술학의 초석을 다진 정영호 문화재위원(한국교원대명예교수)이 학술상을, 현대도심 포교의 새 장을 연 정우 스님(서울 구룡사 주지)이 포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인터뷰 붓다뉴스 참조)

시상식은 8월 6일 백담사에서 열리는 제3회 만해축전에서 거행된다.

이은자 기자

## "전쟁 잔혹함 잊어선 안돼"

### 원폭 피해자 시민모임 한우 스님



지난 달 28일 대구 변호사공제회관에서 국내 처음으로 창립된 '원폭피해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를 맡은 한우 스님(실천불교 대구경북승가회장, 남지장사 주지)은 "군인도 아닌 수많은 시민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죽고,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사죄하지 않는다"며 "원폭피해 문제는 단지 보상금을 받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잔혹함을 밝혀 이를 인류가 깨닫도록 하는 일"이고 말했다.

스님은 29일 일본에 건너가 재일 한국인청년연합회와 함께 '한국인 원폭피해보상법' 제정, 동아시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 촉구, 핵무기 개발및 보유·사용에 대한 반대활동 등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053)768-9920

김재경 기자



## 불교방송 '일일무료 한방병원'

불교방송은 4월 28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일일 무료한방병원'을 열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 공동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당뇨병 전문 클리닉 미래한의원과 비만·통증클리닉인 향기나무한의원,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대학원생 등 의료진 17명이 참석해 50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무료시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불교사회봉사회 효실천 캠페인

(사) 21세기 한국불교 사회봉사회(이사장 설산)는 어버이날인 8일 종로구 거리에서 '부모은중경' 카세트테이프 5천 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효 실천 캠페인을 벌였다. 한편 봉사회는 3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무료합동결혼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리기 대회

월간 불광과 목아박물관이 공동 주최한 '제7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가 5일 법주사에서 1천5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우뚝으뜸상(문화부장관상)은 김동훈군(아산 동덕 초등 3년), 으뜸상(봉축위원장상)은 조애희양(천안 쌍룡초등 5년), 불교 조계종 포교원장상은 한미란양(보은 삼선초등 6년)이 각각 차지했다.




## 월드컵 성공기원 법회 및 경로잔치

김제 흥복사(주지 견진)는 1일 2002년 한·일 월드컵 성공기원 법회 및 제2회 불교 문화제와 경로잔치를 열었다.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는 봉축법회에 이어 떡암 사물놀이패와 전주 국악 연구소, 벽성대 보컬 가희의 공연, 살풀이 춤, 탑돌이 순으로 진행됐다.

조기식 전북지사장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雪山玉佛
釋迦世尊께서 成道하신 雪山玉石으로 造成한 圓滿慈悲하시고 透徹智慧가 具足하신 無上圓滿聖像이시다
二五四五年二月二十一日
小衲 西翁謹書

■ 주전서



■ 고불총림 방장 서옹 큰스님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 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buddha.co.kr

# 불심 다지는 '사회의 목탁'

그동안 활동이 다소 미약했던 방송언론인 불자회들이 성지순례, 수련회를 통해 불자회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중앙일보 등 미창립 언론기관에 불자회가 창립될 것으로 보여 올 한해 방송언론인 불자들의 왕성한 신행활동이 기대된다.

## KBS · SBS · 경향신문 사찰 성지 순례
## 중앙일보 6월 불자회창립…종단 연수도

SBS법우회(회장 허원재)는 19일 전남지역 유명사찰을 순례하는 성지순례를 떠난다. 30여명이 참석할 이날 행사에서는 고창 선운사, 내소사, 수행도량인 월명암을 차례로 참배한다. 경향신문불자회(회장 강신철)도 26일 충남 청양 장곡사로 사찰순례 법회를 떠난다. 회원 감소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경향신문 불자회는 이번 순례법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회원들의 불교이해를 높이고 신심을 키워 조직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KBS불교연구회(회장 정종철)는 26~27일 천태종 본산인 구인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조석 예불, 절과 참선하는 법, 친교의 시간 등으로 진행될 이날 성지순례에는 원주, 안동, 춘천 지역 방송국 불자들도 참석한다. 또한 6월 중순경 MBC, SBS법우회와 함께 방송3사 불교단체 회원 수련회를 가 최한다. 방송분야에 종사하는 불자들의 신심과 단결심을 고양하고 방송미디어를 통한 언론인 불자들의 사명과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수련회는 수원 용주사 등의 사찰에서 1박 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미창립 언론기관의 불자회 창립도 활발하다.

대전지역의 방송, 신문, 케이블TV, 잡지 등 언론기관 종사자로 구성된 대전불교언론인회(회장 김종완)는 25일 백제불교회관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지난달 18일 창립발기인 모임에서 장곡 공주 갑사 주지스님과 종실 연화사 주지스님을 지도법사로 위촉한 대전불교언론인회는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백제불교회관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사찰순례, 수련회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중앙일보불자회는 6월초 창립준비 모임을 갖는다. 현재 백성기 영자신문 사업본부 마케팅팀장을 중심으로 불자파악에 나서는 한편 6월말 불자회 창립을 목표로 활발한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방송언론인불자회들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며 신심을 키우고 있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마곡사에서 열린 방송언론인 연수 모습.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공중파 방송 및 일간지에 근무하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교문화와 교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6월말 '방송 · 언론인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덕혜스님은 "급속히 변하는 사회환경으로 방송언론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히 방송언론인 불자회 활성화는 대중매체에서 일어나는 불교왜곡을 외호하고 불법을 적극 홍보할 수 있어 앞으로 종단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소림사 방장 영신스님은 소림사를 방문한 한국 불자들과 질의 응답을 한 후 기념 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국사암 주지 월호 스님, 소림사 방장 영신 스님, 정혜사 주지 혜일 스님, 정혜사 혜진 스님

# 용문석굴 10만불상 장관

## 본사 하남성 불교유적 순례 성공리 마쳐

"소림사(少林寺)는 인도의 고승 보리달마가 9년간 달마동에서 면벽좌선을 통해 중국 선불교를 크게 일으켰던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또 당나라 태종 이세민을 구출한 소림사 무승들로도 유명해 주위에 무술학교도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3일 중국 등봉(登封)에 위치한 소림사 접견실에서는 방장 영신(永信) 스님의 소림사 안내가 곁들어진 법문이 이어졌다. 현대불교신문사가 기획한 '중국 불교문화기행'에 동참한 1백여명의 참배객들은 귀중하게 마련된 방장 스님과의 조우에 감격해하며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법문이 끝나자 전주 정혜사 주지 혜일 스님(보문종 총무원장)은 영신 스님에게 한중불교 발전을 위해 소림사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 소림사 무술시연
### 방장법문도 들어

둘째날, 삼국지의 무대로 유명한 낙양(洛陽)시를 방문한 참배객들은 중국 3대 석굴 중의 하나인 용문석굴에서 10만 여개의 크고 작은 불상을 보고 엄청난 규모에 탄성을 연발했다. 이어 방문한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白馬寺)(68년 건립)에서는 원나라 때 만들어진 중국의 국보 18나한상을 친견 했다.

셋째날, 개봉(開封)시로 이동한 참배객들은 원 · 명 나라 때의 궁궐로 사용되던 '용정'의 수려한 풍광과 건축 양식에 압도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또 드라마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청빈한 관리 포청천을 모신 사당과 '천수천안관음보살상'으로 유명한 대상국사(大相國寺)도 참배하는 등 중국 불교 역사의 흔적을 사진기와 가슴속에 두루 담았다. 마지막날에는 하남성 역사 유물이 시대별로 가지런히 진열돼 있는 '하남 박물원'을 관람했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4박5일간 첫 중국 불교문화기행을 실시한 현대불교신문사는 이번 순례에 보내준 독자들의 깊은 관심에 보답하고자 10월 중국 불교유적 순례를 또한번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 정주=김주일기자



◇전국 경찰불교회 준비위는 4월28일 구암사에서 창립준비모임을 가졌다.

# 전국경찰불교회 만든다

## 내달 16일 창립법회
## 초대회장 김중겸씨

경찰청, 충남 · 부산 지방경찰청 불자회 등으로 구성된 전국경찰불교회 창립 준비위는 4월 28일 대전 구암사에서 모임을 갖고 6월 16일 오후 5시 조계사에서 경승단 총재인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모시고 창립법회를 봉행키로 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김중겸 청와대 치안비서관이 초대 회장으로 추대됐고, 엄기용 대전북부경찰서 불자회 총무가 수석부회장에, 고행섭 부산지방경찰청 불자회장이 감사에, 박희영 경찰청 불자회 총무가 사무국장으로 각각 선임됐다. 또한 연합사무소를 경찰청 본청에 두고 각 지방경찰청, 경찰학교를 지부로, 경찰서를 지회로 하는 전국 조직을 구성하고 사이버경찰청 내에 불교동호회를 등록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정보교류를 강화키로 했다.

전국경찰불교회 창립으로 경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불자들의 신행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전국 250여개 경찰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승 활성화와 함께 그동안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전 · 의경에 대한 포교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두식 기자

## 정각선원 탄공스님 초청



국회정각회직원불교신도회(회장 김문희)는 2일 국회내 법당인 정각선원 개원 6주년을 맞아 전 문경 대승사 주지 탄공스님을 모시고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권익현 전 국회정각회장, 함종한 · 김태곤 · 박권흠 전의원을 비롯해 사부대중 60여명이 참석했다.

## 구로승무소 경로행사

구로승무사무소법우회(회장 박창식)는 7일 구로지역 무의탁 어르신 60여명을 모시고 서산 수덕사를 참배, 덕산온천 온천욕 등 경로 위안행사를 펼쳤다.

부처님 오신날과 어버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법우회원을 비롯해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와 간호사 등 2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했다.

## 지하철법우회 노인잔치

서울지하철공사법우회(회장 민병훈)는 8일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떡 등 음식물을 공양했다. 또한 멜로디 연주 및 경품퀴즈, 어울림마당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

## 석불문화硏 불상강연

한국석불문화연구원(회장 이근후)는 9일 삼청동 가족아카데미아에서 5월 불교강좌를 개최했다.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강좌는 고려의 불상을 주제로 한국석불문화연구원 전 사무국장 유영렬씨가 강의했다.

## 우리 모임에선

### 알림

▲은해사 홈페이지 오픈=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영천 은해사는 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주소는 http://www.eunhae-sa.org이다.

▲무료 한방서비스=자양사회복지관은 매월 첫째 · 둘째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광진구 내 저소득층 및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르 폼, 부황 등 무료 한방서비스를 실시한다. (02)458-1664

### 강좌

▲전통 사찰음식=한국사찰음식문화연구소는 22일부터 6개월 과정의 전통사찰음식 강좌를 실시한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0분 서울 불광산사에서 사찰음식 연구가 이여영씨가 진행한다.(02)747-8734

▲반야심경 · 천수경=조계사는 16일부터 3개월 과정 '반야심경 · 천수경' 강좌를 개최한다. 조계사 스님들이 강의하는 이번 강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하는 주간반과 오후 7시 야간반,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토요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02)720-1390

### 모집

▲관문사 합창단=천태종 관문사는 금강합창단 단원을 모집한다. 50세 미만의 여성불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접수는 관문사 1층 종무소에서 받는다.(02)3460-5300

▲축구단원=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강남구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능인청소년 축구단원을 모집한다.(02)571-2988

▲자원봉사자=경희의료원 불자회는 병원 안내 등을 도울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958-8113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 게시판

# '지리산 생태 살리기' 227km 도보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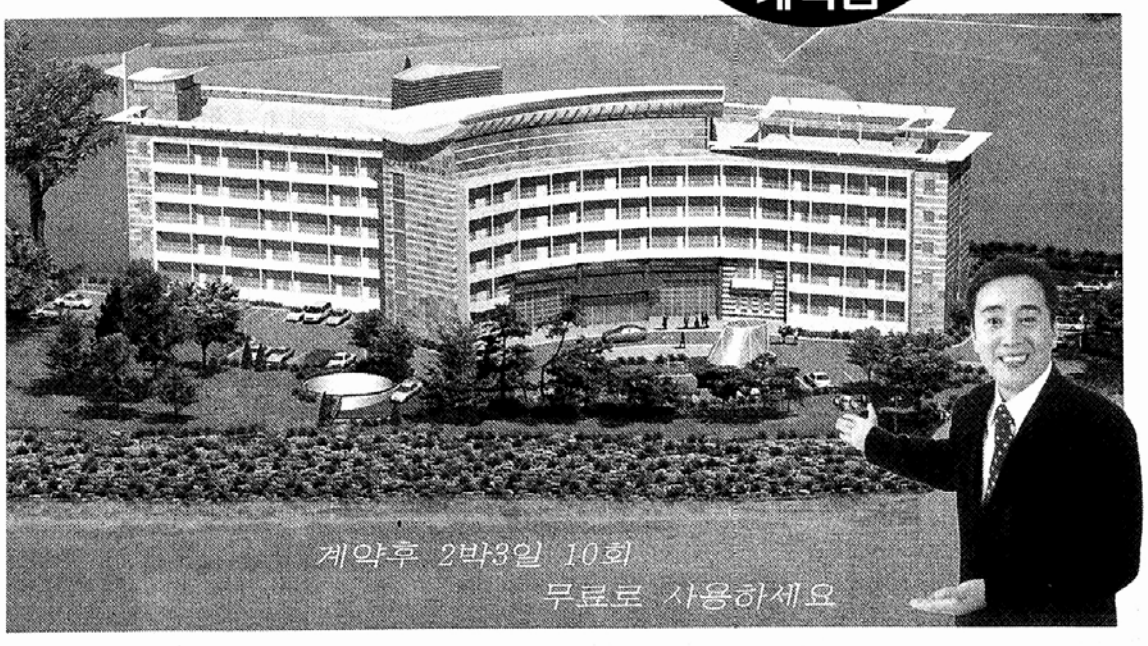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상임대표 수경스님)은 3일 경남 함양군 마천면 의탄초등학교에서 지리산 도보순례단 출정식을 열고, 지리산을 둘러싼 경남 · 전북 · 전남지역 5개 시 · 군에서 지리산 생명공동체 회복과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도보순례에 들어갔다.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경남 함양에서부터 전남 구례군까지 모두 227㎞를 도보로 순례하며 함양 식수댐 건설(3일)과 남원 운봉골프장(17일)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와 엄천강 살리기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한 각종 캠페인, 작은 영화제 등을 갖는다.

김재경 기자

■사업승인 경북관광91743-289 ■분양승인 경북관광91700109135

일성의 7번째 직영콘도 190만원 계약금 + 등기 주인으로 모십니다!!




일성 경주보문콘도 창립회원 모집

● 창립 회원 가입시 혜택
• 지분분양으로 등기제와 회원제만 분양
• 평생동안 연회비 면제
• 전세계 90개국 3,300여체인 사용 가능
• 직영콘도의 사우나/수영장 평생무료 (효도카드)
• 계약과 동시에 전국 16곳 정회원 사용
• 신용카드 장기 분할 가능(18개월)

● 경주분양가 및 평형
17평형 498만원 | 19평형 557만원 | 28평형 791만원 | 35평형 1026만원

창립회원 입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006-25-0018-714 / 농 협 053-01-239331
예 금 주 : 일성리조트(주)

일성콘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사용하는 정상적인 기업입니다.

회원가입문의
02)718-9372

자연사랑과 가족사랑의 실천입니다
일성콘도미니엄 IL SUNG CONDOMINIUM



# 불교문화로 외국인 포교 '효과'

신행현장 통도사 부산포교원 국제포교부

노란 머리, 푸른 눈동자, 법당 천장에 닿을 듯한 큰 키의 외국인들이 통도사부산포교원 법당에 들어와 합장으로 예를 갖춘다. 이같은 풍경은 통도사 부산포교원(원장 심산)에서는 이제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매월 셋째주 일요일마다 (사)한나래문화재단 소속의 국제포교부(회장 김건웅)가 외국인들을 위해 열고 있는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기행' 때면 볼 수 있는 풍경이기 때문이다.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 등을 만들면 으리들 마음도 환하게 밝아져요. 이 등은 팔각등이라고 하는데…"

국제포교부 회원들은 지난 초파일 때 외국인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안내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외국인들이 가장 신나 하는 연등만들기에서 영어로 연등의 의미부터 만드는 방법까지 차근 차근 설명하고 시범을 보여 큰 인기를 얻었다.

"외국인에 대한 포교는 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97년 창립된 국제포교부는 드자기 만들기, 녹차 만들기, 한지공예, 사물놀이, 전통연 만들기 등 우리문화를 통해 불교를 전하는 문화포교의 중심이 되고 있다.

44회를 맞이한 문화체험행사를 거쳐간 외국인만도 6백여명. 동남아, 유럽, 미국, 인도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국문화의 우수성에 감탄하고 불교의 깊은 가르침에 매료되었다.

국제포교부의 고문으로 활동하는 인도인 로이교수가 그렇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스테파니(35·영어강사)도 그렇게 포교원과 인연을 맺게된 외국인중 한사람이다. 어머니 49재를 절에서 모셨을 정도의 불교에 흠뻑 빠진 스테파니는 "한국문화와 불교는 알면 알수록 깊고 멋져서 이제는 내가 가르치고 있는 중학생들을 데리고 함께 온다"며 자랑이다. 스테파니는 이제 거꾸

**매월 문화체험 행사**
**녹차·연등 만들고**
**사물놀이로 흥돋우고**
**44회동안 6백명 동참**

로 한국문화와 불교를 한국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셈이다.

15명의 많지 않은 회원들이 한결같은 신심으로 일구어온 외국인 포교는 이렇게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제포교부로부터 참선을 알게된 외국인들이 자체적으로 모여 만든 참선모임도 생겼다. 조만간 외국인 자체 모임도 만들어질 계획이라 문화포교를 통한 외국인 포교의 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통도사 부산포교원 국제포교부 회원들이 외국인들에게 연등 만드는 법을 지도하고 있다.

김건웅 회장은 "외국인 포교는 장기적인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동양적인 문화는 불교와 상통하고 있어 문화를 통한 포교가 아주 효과적"이라고 문화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처음 시작할 때는 국제 포교 자료가 전무해 어려움을 겪었던 회원들은 그동안 철야 1080배를 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발심수행장, 천수경, 금강경 등을 영어로 배우며 신심을 다지는 한편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 왔다. 부산불교연합회 팜플렛 영어제작, 동남아 옷 지원 등 포교와 보시도 병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서예수·63보살의 꾸준한 포교 활동과 이은정(35)회원이 담당하고 있는 홈페이지(www.busanbuddhism.org) 자료 정리, 최길차, 이영숙 회원이 맡아 매주 일요일마다 열고 있는 초,중고생들을 위한 영어회화 강좌 등 회원 모두 일인다역을 해야 될 정도로 활동이 많다.

지난해는 국제포교의 성과를 인정받아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포교원력상을 받았고 4월 1일에는 김건웅 회장이 조계종포교원 국제포교사회 정기연수회에 발제자로 초청받아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포교'라는 주제로 국제포교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하기도 했다.

오는 20일 경남 하동 악양 매암 차문화 박물관에서 열리게 될 제45차 차만들기 행사를 앞두고 준비에 한창인 국제포교부 회원들의 포교 원력은 불교적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눈푸른 외국인들의 마음안에서 알차게 자라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 생활속의 불교 뿌린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누구라도 콩을 수확하려 하면서 팥씨를 뿌리는 짓은 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서도 뿌린 그대로 스스로 거두고, 행한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철칙이다. 이 인과의 법칙엔 털끝만큼의 오차도 없다. 고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해서 행한 그대로, 뿌린 그대로 우리 앞에 결과로 다가온다. 기쁨의 씨앗을 뿌리면 기쁨의 열매가 오고 괴로움의 씨앗을 뿌리면 괴로움이 찾아 오는 것이다. 내가 행하고 내가 먹는 도리이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 않다. 나는 분명히 성취와 기쁨을 원하고 또 그렇게 행동했지만 결과는 좌절과 슬픔으로 귀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면 인과에도 예외가 있단 말인가?

'내 손길이 닿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 달라'던 마이더스 왕은 그 소원이 성취됨으로 해서 굶어 죽고 말았다. 세 끼 음식까지도 황금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이더스의 경우에도 법칙은 엄연히 살아 있었다. '손길 닿는 것마다…' 하고 원한 것이 씨앗이고 '황금으로 변한 것'이 결과라면 다시 황금이 새로운 씨앗이 되고 죽음이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인과의 2차 방정식이라 할 수 있다. 삶은 상대적이다. 혼자서 뿌리고 혼자서 거두는 경우란 거의 없다. 따라서 인과의 법칙은 얽히고 설킨 고차원의 방정식과 같다. 혹은 촘촘히 짜여진 그물 같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씨앗과 결과 간의 상관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법칙에 예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지한 것이다.

내가 한 끼의 식사를 위해, 혹은 취미라는 명목으로 살생을 한다고 하자. 나는 분명 배고픔을 해결했고 여가를 즐겼으니 행한 대로 원한 대로 뿌리고 거두었다. 그러나 인과의 고리는 거기서 종결된 게 아니다. 나의 즐거움이 상대의 아픔·괴로움으로 이어졌으니 그 아픔과 괴로움의 과보도 내가 받아야만 한다. 이것이 예외 없는 인과의 법칙이다.

진정 자신의 삶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원하거든 불법을 실천하라. 삶은 그대가 원하는 대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龍眼

## 주제가 있는 법문

# "스승은 제2의 부모 공경하고 찬탄합시다"



해주 동국대 교수

올해도 여느 때처럼 스승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교단에 몸담았던 교원들이 스승의 자리를 포기하고 무더기로 교단을 떠났습니다. 그 원인의 하나로서 바람직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지도의 난점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등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중도에서 학교를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 크게 우려할 만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은 왔지만 즐겁지만은 않은 게 솔직한 심경들입니다.

〈육방예경(六方禮經)〉에서 "제자가 스승을 섬김에는 마땅히 다섯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공경해 존중함이요, 둘째는 은혜를 생각해 잊지 않음이요, 셋째는 가르침 받은 것을

**깨달음으로 이끄시는**
**부처님 영원한 스승**

따름이요, 넷째는 자꾸 생각해 싫증내지 않음이요, 다섯째는 그 덕을 찬탄함이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간절해질 때입니다.

예전처럼 전인교육을 목표로 할 때는 모르지만 오늘날의 교육 풍토 속에서도 과연 스승이 있다고 여기며, 스승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가 회의가 들때도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부제가 시행되고 난 뒤에는 졸업생들이 사은회를 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 때는 사은회 장소가 마지막으로 선생들을 성토하는 자리로 바뀌기도 하여 선생들이 사은회에 참가하기를 부담스러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예 사은회가 열리지 않기도 하는 요즘에 비하면 그 성토장이 오히려 서로 기대하고 아끼는 마음의 발로가 아니었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스승의 날을 맞아 옛 스승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전히 학생들을 아끼고, 스승을 존경하는 사제지간의 흐뭇한 광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교육현장에 몸담고 있는 선생들에게 있어서 '스승의 날'은 자신의 스승에게 도리를 다하지 못한 채, 학생들의 방문을 받아 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온갖 만물로 공양 한대도 스승의 은혜는 못 다 갚는다'는 말처럼 스승의 은혜가 깊다고 하겠습니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스승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람직한 스승상은?

잊지 못하는 스승의 모습은 개인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언제나 미소짓는 따스함이 그리울 수도 있고, 그 때는 야속하고 무서웠지만 지나고 나니 깊은 배려가 있었음에 감사하기도 하는 등, 존경하는 스승상은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가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승은 제2의 부모일 수도 있고 어쩌면 부모님보다 자신의 인생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온 인류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영원한 스승을 한 분만 들라고 한다면, 불자들은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불자라는 말 자체가 갖는 의미 역시 부처님의 아들 딸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제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불문에서도 제일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예경하면서 '부처님을 모든 중생의 어지신 어버이이며 우리들의 스승(三界導師 四生慈父 是我本師)'이라고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들이 미혹과 집착에서 벗어나 고통을 없애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구제자이며 어버이로서 스승이신 것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의 참 뜻과 은혜를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겨보게 됩니다.

## 신행 캘린더

**5월 17일 (목)**

■진각종 통리원장, 교육원장 이·취임법회=불교.진각종은 오후 2시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에서 통리원장, 교육원장 이·취임법회를 봉행한다.(02)913-0751

**5월 18일 (금)**

■법장사 성지순례=서울 법장사는 19일까지 1박 2일간 설악산 봉정암 적멸보궁 성지순례를 떠난다.(02)971-0303

■한국전통선 조명 학술회의=한국선학회는 19일까지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한국선이란 무엇인가-신라시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02)2260-3135

**5월 19일 (토)**

■철야용맹정진=대구 동화사는 오후 8시부터 20일 새벽 4시까지 철야용맹정진법회를 봉행한다.(053)982-0101

■SBS법우회 성지순례=SBS법우회는 고창 선운사, 내소사, 월명암을 참배하는 성지순례를 떠난다.(02)369-1391 이태전

■파라미타 오픈세미나=파라미타 청소년협회는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디지털시대 청소년 문화의 진단과 방향'을 주제로 오픈세미나를 개최한다.(02)723-6165

■어르신 효도잔치=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오전 11시 효경골 경로당에서 어르신 효도잔치를 개최한다.(02)385-1351

**5월 20일 (일)**

■진실 희망 찾기 콘서트=불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4개 교단 인권위원회는 오후 5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진실, 희망 찾기 콘서트-산 자여 말하라'를 개최한다.(02)737-3313

**5월 21일 (월)**

■(가)종교환경단체협의회 출범식=불교환경교육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및 원불교 천지보은회 대표들은 오후 2시 조계사에서 (가칭) 종교환경단체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5월 22일 (화)**

■조계사 신중기도 입제=조계사는 오전 9시 30분 지홍 주지스님의 집전으로 신중기도 입제 법회를 봉행한다.(02)732-2187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본 불국사에 모셔진 부처님 진신 사리는 신라에 불교를 처음으로 전한 아도화상이 모셔온 사리입니다. 현재 도리사에 모셔져 있는 사리의 분과로서 영롱한 그 빛은 친견하는 이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자아내기에 모자람이 없는 부처님의 오색사리입니다. 또한 스리랑카의 보타레 사원에서 모셔온 사리는 약 1700년전에 아누라다왕조시대부터 모시던 2과 중 1과를 태현큰스님이 기증받아 모셔오게 되었으며, 다른 한과는 1982년 11월 12일 인도 기원정사에서 상카라스님께서 태현큰스님의 전법의지를 찬탄하시면서 한국 불교의 새로운 중흥을 이루라는 서원과 함께 기증하여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 찬란한 방광을 하시니 어찌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아니라 의심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는 것은 부처님의 상주하시는 불신의 모습을 친견하는 것과 같으며, 또한 부처님의 한량없는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리와 친견공덕은 몇 겁의 무명속에 헤메이던 우리의 두터운 업장을 소멸하며, 정성으로 기도하면 소원성취를 이룩할 것입니다. 이에 본 사찰에서 봉행되는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에 두루 동참하시어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 일 시 : 2001년 5월 23일(음 윤달 4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분당 수미산 불국사 극락보전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

- 일 시 : 2001년 6월 12일 (음 윤 4월 21일) 오전 10시 30분
- 보살계 수계법사 : 가산지관 큰 스님 (전 동국대 총장, 현 조계종 원로의원)
- 보살계 인례법사 연봉태현, 가섭, 보광, 덕광 스님
- 장 소 : 분당 수미산 불국사 극락보전

**신사년 윤달 생전예수재 봉행 안내**

- 기도입재 : 2001년 5월 23일(음 윤달 4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대법회 봉행
- 기도회향 : 2001년 6월 12일(음 윤달 4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보살계 수계 산림 봉행
- 장 소 : 분당 수미산 불국사

증명 : 가산지관 큰 스님 주지 : 연봉태현 스님 총무 : 가섭스님
법주 : 일각스님 법주 : 원담스님, 성종스님 진행 : 보광스님, 덕광스님

*세상에서 가장 마음 편안한 도량 / 천하제일 지장기도 성취 도량*

전화 031) 719-0408~9 팩스 031) 726-0409

대한불교 조계종 수미산 불국사 주지 태현 총무 가섭 두손모음

근본불교 진흥원 **서울불교대학** 서울·서초구 서초동 1640-2 ☎ 02)588-8009·Fax 02)588-8055

대한불교 조계종 **여래선원** 서울·서초구 서초동 1640-2 ☎ 02)588-8009 대구·수성구 범어동 292-15 ☎ 053)744-9009

## 모 제1기생 집

말이나 글을 믿을 필요가 없다. 와서 직접 체험하라. 붓다이신 고타마 성자의 참 가르침만을 고집하는 집. 참 가르침인 원시경전과 위빠싸나 수행의 실천만이 있는 곳 진리는 말이나 글의 저 너머에 있다.

미얀마 국립 국제 불교대학교, 미얀마 국립 승가대학교의 자매대학.

마음 길들이고 마음 다스리는 붓다의 가르침(원전)과 실천(위빠싸나)으로 그대들도 불교명상 지도자가 되어 나누며 정진하라!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소정의 법계 품위를 수여함. ※ 국내의 어디든지 여래선원의 지원을 개원할 수 있음.
※ 선원 개원시 직접적(경제적·인적)으로 적극 지원.
※ 미얀마·국제불교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음. ※ 미얀마·국제승가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음.

**모집안내**

1) 모집과정
- 포교사(디플로마) : Dip(B.Dh) ; Diploma in Byddha Dhamma
- 교법사(학사 과정) : B.A(B.Dh) ; Bachelor of Art in Buddha Dh.
- 선법사(석사 과정) : M.A(B.Dh) ; Mastor of Art in B. Dhamma.
- 대법사(박사 과정) : Ph.D.(B.Dh) ; Doctor of Philosophy in B. Dh.

2) 입학자격
- 참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려는 자
- 전 과정 수료 후 여래선원·지원을 개원하려는 자
- 각 지원에 자원 출강 할 수 있는 자 ·해외 유학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교육기간
- 불교기본 수료(포교사 품위) 과정 : 1년 (4주 집중수행 필수)
- 불교학 학사(교법사 품위) 과정 : 2년 (8주 집중수행 필수)
- 불교학 석사(선법사 품위) 과정 : 3년 (12주 집중수행 필수) 본대학·미얀마 국제불교대학교 공히 인증
- 불교학 박사(대법사 품위) 과정 : 4년 (16주 집중수행 필수) 본대학·미얀마 국제불교대학교·국립승가대학교 공히 인증

4) 수업시간 주 3일(월, 화, 수) 중 주 1회 시간 선택 필히 참석
월요일 10:30 ~ 12:00 화요일 19:30 ~ 21:00 수요일 10:30 ~ 12:00

5) 입학식 2001년 5월 27일(일요일) 오전 10시 30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위를 맞춰야 할 제 3자는 없느니라 법과 자신만을 의지해서 쉼 없이 정진하라!"

라는 붓다의 가르침을 믿고 마음을 길들이고 다스리려는 선우들을 위한 시민 선방이며 쉼터입니다.

우선 성내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려 보십시오

종교나 사상을 뛰어넘어 마음을 길들이는 노력은 거룩한 작업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되는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려는 선우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입 방 안 내**

1) 입방자격
종교·학력·연령 제한 없음
불교를 보다 사실적으로 이해하려는 자

2) 제출서류
입방원서(본원 소정양식) 1부
여권용 사진 2매

3) 원서교부·접수기간 :
2001. 4. 20~2001. 5. 25

4) 개원식 : 2001년 5월 20일(일요일) 10시 30분

**2,3호선 교대역 1번 출구 전방 150M (던킨도너츠 점) 에서 우측 100M (두란노 고시원 앞)**



박태원 교수의 35

## 불교로 보는 인생

# 한국인과 가족

해마다 5월이면 새삼스레 인간을 보려고 주위를 살핀다.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이 이어지면서 화들짝 놀란 심정으로 가족을 보는 눈길에 온기를 싣고, 스승 인연들의 은덕을 환기하며 높이 떠있던 마음을 겸허하게 내려놓는다.

인간에게 가족이란 무엇일까. 염색체에 새겨진 생물학적 번식 욕구의 표현이요, 그 필연적 산물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생물적 본능을 넘어서는 인간 특유의 문화적 선택일까. 개인의 삶과 가족은 어떤 관계이며,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하는가. 불교는 가족의 의미와 가치에 또 어떤 가르침을 보태는 것인가.

"박 선생님, 이 편지 좀 읽고 선생님 생각을 말해 주세요." 십여 년 전, 한 솥 밥 먹던 미국 청년이 편지 한 통을 불쑥 내밀었다. 불교에 매료되어 한국에서 출가 준비를 하던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편지였다.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자수성가한 그의 아버지는 비록 상식적이지만 매우 건강하고 합리적인 인생관을 펼치고 있었다.

'나는 너의 선택과 인생 행로가 어떤 것일지라도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지금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은 혼란스럽다. 현재 네가 보여주는 삶의 방식은 이해도 어렵고 수긍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까지 가족과 사회의 보살핌과 도움으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인간이 되기까지 가족과 사회는 너를 보살폈다. 이제 너는 지금의 네가 있을 수 있게 한 사회에 보답을 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너는 진리 탐구라는 명분으로 또 다시 남의 도움에 의지하는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진리 탐구를 위한 노력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선택한 진리 탐구의 방식이 납득되지 않는 것이다. 도대체 왜 선량한 동양인들의 시혜에 의지하며 생활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받은 시혜만 해도 갚기 어려울 정도인데, 왜 다시 전적으로 시혜에 의존하는 생활을 구도라는 미명 아래 선택하고 있는가? 구도도 좋다마는 네 생존은 이제 네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의 솔직한 비판에 아들은 곤혹스러워 했다. "아버지는 전형적인 세속의 상식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아버지의 얕은 생각을 깨우쳐 주는 답장을 쓰겠습니다. 한 농부로부터 왜 당신은 농사 지어 먹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리를 알려 주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내 생각을 전했다. "이번에는 굳이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을 법문으로 간직하고 감사의 글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소. 당신 아버지의 질책은 시은(施恩)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수행인에게 너무도 훌륭한 법문이 아니오? 그나저나 아버지와 아들이 친구처럼 속내 생각을 주고받는 모습이 신선하오. 아직 가부장적 권위가 행세하는 한국 가정과 비교되는군요."

눈물을 글썽거리던 그가 한 참 후 다시 말을 이었다. "박 선생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국 가정이 오히려 신선합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가장 부러운 것이 바로 한국 가정입니다. 미국 가정의 토대인 개인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박 선생님은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항상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한국 가정은 그 개인주의의 고독을 녹여 주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한국인들 자신은 오히려 그 점을 충분히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 장점이 퇴색하지 않고 더욱 발전되길 희망합니다."

### 강한 가족주의적 연대
### 개인주의의 고독 녹여

강한 가족주의적 연대와 개인주의적 분열. 개인의 고독을 극복하는 가족적 대아(大我)와 자칫 걸려드는 폐쇄적 가족 이기주의의 덫. 그 엇갈리는 미로에 우리는 서있다. 무아(無我)와 연기(緣起)의 지혜가 출구로 인도한다.

▩ 울산대 철학과 교수

# 부처님 그리며 가르침 되새긴다

참불자의 길 사불(寫佛)

불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경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다양한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도 이뤄진다. 불교적 신앙의 내용을 압축하여 그림으로 표현해 사람들이 쉽게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고 종교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화는 불탑, 불상, 불경 등과 함께 불교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이런 까닭에 예로부터 경전의 말씀을 한자 한자 옮겨 쓰는 사경과 더불어 부처님의 형상을 그리는 사불(寫佛) 또한 불교 수행법의 하나로 전해왔다.

종이와 먹이 귀했던 시절에 사불은 화승(畵僧)의 불화 불사에 시주를 함으로써 동참하는 형태로 이뤄지기도 했는데, 오늘날에는 불자들이 직접 사불을 할 수 있도록 사찰 특별법회나, 영가천도재 등에서 이 사불수행을 활용하고 있다. 또 신심을 고취하는 방편으로 여가시간을 이용해 불화교실을 찾아 불화그리기를 직접 배우는 불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증일아함경〉에도 "불상을 조성하거나 부처님을 그려 모시거나 채화하여 불화로 장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누리고 불도를 이룬다."라며 사불의 공덕과 중요성을 설하고 있다.

불화는 만들어진 형태에 따라 벽화, 탱화, 경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탱화가 주류를 이룬다. 벽화는 말 그대로 사찰 건축물의 벽면에 그려진 불화를 뜻하고, 탱화는 넓은 비단이나 종이, 삼베 등에 그려서 벽면에 걸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경화는 대장경 판본에 새겨져 경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부연하는 내용의 판화나, 손으로 쓰여진 사경의 앞이나 중간 부분에서 삽화적 기능을 하는 불화다.

실제로 화승들은 불화의 밑그림이 되는 초(草)를 제대로 그려내기 위해 수년의 시간을 바친다. 처음 여래초부터 시작해 불보살 그림 위에 비치는 얇은 종이를 대고 3천장을 그리고, 그 다음엔 그림을 보고 3천장을 그리고, 그림을 보지않고 3천장을 그려야만 제대로 된 초가 완성된다 한다. 이렇게 공을 들이는 만큼 사불의 원력은 깊고 원대할 수밖에 없다.

〈반야심경〉 사경과 지장보살 사불(寫佛)을 통해 불자들에게 사경과 사불 수행의 중요성을 알려 온

### 사경 못잖은 수행방편
### 불화교실 체계적 교육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은 "사불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사찰이나 문화센터 등의 불화교실 등을 찾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이를 실생활 속에서 수행으로 삼아 활용하면 된다"면서 "지장보살 뿐 아니라 연꽃, 비천상, 아미타여래, 관세음보살 등 불보살을 그리고 거기에 색까지 입히면 더없이 수승한 공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심을 고취하는 방편으로 불화교실을 찾아 직접 불화 그리는 법을 배우는 불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불화그리기는 불교문화센터(02-703-0101), 조계사 불화그리기강좌(02-720-1390), 동방불교대(02-763-0229)나 삼화불교대(02-511-2026) 불교미술과 등에서 배울 수 있다.

불화교실을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불자들이라면 여시아문 등 불교 서점에 나와 있는 사불책을 활용하거나, 불보살이 그려져 있는 체본과 얇은 종이, 붓 펜을 마련해 집에서 직접 해도 된다.

사불 의식은 사경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불을 시작하기 전에 주위환경을 정돈하고, 몸과 마음을 바로잡아 호흡을 가다듬는다. 합장하여 간단히 삼배를 올리거나 개경게를 읽는다. 마음을 모아 한 붓 한 붓 정성껏 붓을 옮겨가며 부처님을 그린다. 사불을 마친 다음 합장하고 모든 생명들을 위해 부처님께 발원한다. 완성된 사불은 모아서 불전에 올린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⑬ 부추밀에 대한 답서(2)

# 지혜 안 갖추고 정서적 만족만 좇으면…

"대개 세상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은, 오래도록 번다한 세간사에 집착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남에게 고요한 곳에서 공부하라는 가르침을 받고서 잠깐이라도 가슴 속에 일이 없어지면, 곧 여기에 집착하여 구경의 안락처라 여깁니다만, 이것이 돌로 풀을 잠시 눌러 놓은 것과 같음을 알지는 못합니다. 비록 잠시 소식이 끊어짐을 느끼겠지만, 뿌리는 여전히 있으니 어찌 적멸을 철저히 얻을 때가 있겠습니까? 참된 적멸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활활 타오르는 생멸 속에서 곧장 한 번 뛰쳐나와야만 합니다."

참선 공부란 근본을 확철히 파악하여 분명한 지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좋게 느껴지는 정서적인 만족감이 아니다. 정서적 만족감은 일종의 쾌감으로서 번뇌와 마찬가지로 피해야 할 것이지, 믿고 의존할 만한 것이 못 된다. 확고한 지혜를 갖추지 못하고 정서적 만족감만을 좇아다니면, 감각적 쾌락을 좇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대개 처음 선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번다한 일상을 떠나서 고요한 산사나 선방에 앉아 정진하다보면, 일순 잡념이 없어지고 고요히 가라앉은 행복한 느낌을 맛보기도 한다. 그러다 다시 번잡한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느낌의 기억만 남아 있을 뿐, 여러 경계에 끄달리는 것은 이전과 다름이 없다. 마치 돌을 가지고 풀을 눌러 놓은 동안에는 풀이 나오지 못하다가 돌을 치우면 풀이 다시 솟아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경험은 단지 주위의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에 의하여 유도되거나 스스로 정신을 집중하여 생각을 마취시킴으로써 맛볼 수 있는 하나의 경계일 뿐, 생각의 구속을 벗어나 견성한 것은 결코 아니다.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선공부의 올바른 결실이란, 요컨대 만 가지 경계의 일미청정(一味淸淨)한 본성을 보아서 한번 크게 쉬어버려야 하는 것이다. 이 때에야 비로소 번잡한 곳에 있으나 고요한 곳에 있으나 한결같이 담담할 수가 있다. 물론 이것은 특정한 느낌이나 견해에 의지하여 머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맑고도 맑아서 아무 경계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것이다. 일부러 헤아리지 않아도 대하는 경계 마다가 아무 의심이 없고 아무 방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헤아리려고 하여도 헤아릴 수가 없고, 힘들여 이해하고 알려는 마음이 억지로 생기지도 않는다. 모든 일이 한결 같으므로 그저 담담할 뿐이다.

"그래야 털끝 만큼도 움직이지 않고서도, 긴 강을 저어서 곧장 우유를 만들고 대지를 변화시켜 황금으로 만들며, 때에 따라 놓고 붙잡고 죽이고 살림에 자유로와서, 스스로와 남을 이롭게 함에 베푸는 일마다 옳지 아니함이 없을 것입니다."

견성을 하여 바른 안목을 가지는 것은 무엇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다. 세계와 나는 지금 존재하는 이대로가 전부이다. 이대로의 세계, 이대로의 나는 그대로 완전하여 아무 문제도 없다. 변화시킬 무엇이 없는 것이다. 만약 나와 세계를 부족하게 여기고 무엇인가를 바꾸어야 한다고 여긴다면, 이것은 분별심에 기인한 생각일 뿐이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세계를 판단하여 무언가를 바꾸어 간다. 그러나 이것은 세간의 일일뿐이고, 깨달음의 진리와는 무관한 것이다.

진리의 안목을 통하여 보면, 무엇이 가치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일이 없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하나 하나가 모두 아무런 차이가 없다. 강물과 우유가 아무 차이가 없고, 흙덩이와 황금이 꼭 같다. 그러므로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취하고 버리고 죽이고 살림에 자유자재할 수가 있으며, 모두가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옳지 아니함이 없다. 물론 진리라는 생각도 없고 옳고 그르다는 생각도 없다.


제31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

# 해맑은 어리이 희망찬 우리미래

귀의 삼보하옵고
제 31차 전국어린이 지도자 연수회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개최합니다.
금번 연수회에서는 기본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으로 연수회 진행
전문화 과정을 통해 전문 지도자의 양성과 여름불교학교 교재의 적극적인
활용에 중점을 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연수회 안내**

※ 언 제 : 불기 2545년(2001년) 6월 2일(토) 오후 6시 - 6월 3일(일) 오후 1시 (1박 2일)
※ 어 디 서 : 속리산 유스타운
※ 참 가 대 상 : 어린이지도자 및 교사, 어린이포교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
※ 신 청 방 법 : 홈페이지 - www.sesag.or.kr에서 연수회 참가 신청서 클릭하여 접수
전화접수 - 본회 사무국 (051) 808-4569
※ 접 수 기 간 :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 참가비 납부 : 접수 후 입금(실명확인 관계로 송금 후 꼭 연락바랍니다)
※ 송금계좌번호 : 우체국 601310-01-001351 (예금주 : 조중환)

**연수 참가비**

※ 해외거주자는 무료

| 구 분 | 기본과정 | 전문과정 | 비 고 |
|---|---|---|---|
| 예약접수 | 35,000원 | 45,000원 | |
| 당일접수 | 38,000원 | 48,000원 | |
| 제주도, 울릉도, 군종병 | 20,000원 | 25,000원 | |

지급품 : 기념품, 연수자료집, 여름불교학교교재

**과정별 운영방법**

| 구분 | 기본과정 | 전문과정 | |
|---|---|---|---|
| | | 레크레이션(1과정) | 상담교육(1과정) |
| 대상 | 연수회 2회 이내참가자 | 연수회 3회 이상 참가자 연수회2회 이내 참가자로서 스님 | 연수회 3회 이상 참가자 연수회2회 이내 참가자로서 스님 |
| 방향 | 여름불교학교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 전문적인 지도자의 양성으로 어린이 법회의 활성화 | 아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상담원리와 문제아동 상담방법을 이해하되 불교적 관점에서 조망 |
| 교육내용 | 지도자의 마음 가짐, 레크레이션(만남의 시간), 여름불교학교교재 활용(여름 불교학교 준비에서 마무리, 만들기, 설법과 교리), 찬불가와 율동 등 | 법회에서의 만남의 시간, 인간관계훈련(심성개발과 관계개선), 실내게임의 실제, 공동체놀이 한마당, 찬불가와 율동 등 | 아동의 심리, 상담의 기본원리, 문제 아동 상담1 (아동의 문제행동 이해) ,문제아동 상담2 (문제행동다루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담에 쓰면 |
| 특전 | 기본과정 수료증 지급 | (사)한국여가교육협회에서 1과정 수료증 수여하며 겨울연수시 2과정을 수료 후 소정의 자격검정을 이수하면 레크레이션 자격증이 수여됨 | 이번 연수의 1과정 및 겨울연수시 2과정을 이수하면 불교상담개발원이 수여하는 수료증이 주어짐 |
| 정원 | 제한없음 | 선착순 100명 | 선착순 100명 |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 주 관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제 2 기

## 연꽃 어린이 기자를 모집해요

연꽃은 어린이 여러분의 천진한 마음을 실은 어린이 불교 잡지 입니다. 우리는 연꽃을 통하여 나의 생각을 바르게 가꾸고 꿈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참다운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부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 내가 다니는 절이야기, 나의 주장, 친구 이야기 등을 직접 취재해 연꽃지를 예쁘게 꾸며갈 어린이 기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방법 : 불교어린이법회 회원 4·5·6학년중 각 어린이회별 2명 이내(어린이회에서 선발하여 추천바람)
■ 모집마감 : 2001년 5월 26일(토)
■ 보 낼 것 : 사진 2매(반 명함 3×4), 자기소개서(원고지 3매 내외)
※ 자기소개서 윗부분에 학교, 학년, 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꼭 기록할 것
■ 발 표 : 어린이회와 개인에게 알리고 연꽃 7월호에 발표
■ 보 낼 곳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8/2 성원서면주차빌딩 205호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연꽃 편집부
■ 문 의 : 051-808-4569, 4570
■ 혜 택 : 연꽃 어린이 기자는 기자활동과 함께 연꽃잡지를 무료로 받아보게 되며 각종캠프나 어린이 기자 연수에 참가하게 됩니다.

## 이렇게 들었다

### 종교간 화해

### 마음이 한 법이 되어…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생활 공동체에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한다. 진실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대반열반경>

▨비구들이여, 정당한 비구는 화합하고 환희하며 쟁론치 않고 유수(乳水)와 같으니라. 서로 친애의 눈으로 바로 보며 살면 이를 화합중(和合衆)이라 설하느니라. <증지부경전>

넓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의 생활공동체이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 종교, 생활방식이 공존하는 이 세상은 무엇으로 유지되는 것일까?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힘은 마음에서 나온다. 부처님은 〈잡아함경〉에서 '마음이 한 법이 되어 세상을 능히 제어한다'고 하셨다.

그런데 마음 하나 모으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종교간의 마음 모으기는 더더욱 그렇다. 그 마음 하나를 돌리기 위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가톨릭의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최근 그리스와 시리아, 몰타 등 중동 3개국을 방문했다. 이슬람교와 유대교, 이슬람 국가들과 이스라엘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유혈의 땅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나선 교황은 이들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마음을 열고, 종교간의 화해를 적극 추진하고자 했다.

교황은 첫 기착지였던 그리스에서 크리스토둘로스 그리스정교회 대주교를 만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가톨릭 신자들이 행위나 태만으로 정교회 형제들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 참회하오니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고 사과했다.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가진 기독교도 수만 명을 상대로한 미사에서도 "종교간의 화합 및 중동평화에 힘써달라"고 호소했으며, 다마스쿠스의 우마야드 이슬람사원에서는 "이슬람 지도자와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제 우리의 위대한 종교공동체를 더 이상 갈등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대화의 집단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양 종교간의 화해를 강조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올해 팔순이다. 지난 78년 로마 교황청에 착좌한 이후 23년 동안 세계 140여개국을 순방하며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몸을 아끼지 않았다. 사상과 장벽, 동양과 서양을 넘나들며 화해를 추구했고, 종파간의 대화합을 모색했다.

교황의 이슬람 방문으로 고조된 종교화해의 분위기를 진정한 종교간의 화해로 이끌어 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오랜 반목과 원한을 풀고, 서로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모아 이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정토의 세계로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마음을 모아 화해와 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길. 그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

이은자 기자

# 유전자 변형 위험은 '내일·저기'

### 불자 세상보기

### 부모가 셋인 아이
### 국내서도 이식 성공



김상득
전북대 교수
윤리학

최근 CNN 보도에 따르면 유전자 변형 아기 30명이 출생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임신 장애를 겪고 있는 불임여성의 난세포 세포질에서 일부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한 다음 정상 여성의 미토콘드리아를 삽입하여 생식력을 증대시켜 임신에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는 비록 미미하지만 3명의 유전인자를 공유하게 되어, 적어도 유전학적으로는 부모가 둘이 아니라 셋이게 된다. 국내에서도 모 불임센터에서 세포질 이식술에 성공하여 현재 한 명의 태아가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유전자 선택에 의한 아기 출산에 이은, 생명공학이 이룬 또 하나의 쾌거(?)이다. 바야흐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의 생명을 조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셈이다. '생명의 책'이라 일컬어지는 유전자는 '판도라 상자'에 비유되듯이 이제까지 베일에 싸여 있었다. 생명을 공학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야심찬 기획인 생명공학이 서서히 이 베일을 벗겨주고 있다.

하지만 인간 유전자 변형은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유전자변형 식품(GMOs)의 안전성조차 아직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생명의 신비를 파헤칠 수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지식을 전 인류에게 선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생명공학자들은 언제나 현재적 이득에 눈멀어 유전자 변형이 가져올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아무런 위해가 없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기술은 안전하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안정성의 물음은 '지금 여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 저기'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격세유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전혀 문제가 없던 것이 다음 세대에 이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미국에서 안전한 것이 한국 토양에서는 위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유전자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잠재태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즉, '지금 여기'의 환경과 다른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 변형된 유전자가 어떤 이상을 야기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아기가 장차 어떤 삶을 살아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유전자 변형 아기를 통해 태어난 다음 세대의 아이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되면 이들의 생명과 건강은 누가 책임을 지는가? 이는 미래 아기에 대한, 약자에 대한 또 하나의 학대이다.

안전성이 검증된다 해도 여전히 생명윤리의 문제는 남아 있다. 유전자 변형 아기란 곧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유전자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유전자 결정론은 참이 아니지만, 유전자는 인간의 정신이나 신체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닌다. 즉, 유전자 변형은 한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바꾼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제는 불교에서 말하는 業(karma)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꾸어야 할지 모른다. 이 지상에서 내가 잘못된 업을 쌓아도 내가 새롭게 태어날 때 좋은 과학자를 만나게 되면 그 모든 업보는 한 줌의 재로 사라지게 된다. 언젠가는 생명공학자가 신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 열 린 마 당

### 교수불자련 '불교와 교육' 세미나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연기영)는 12일 '불교와 교육'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불교교육의 이념과 그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박선영 · 김용표(이상 동국대), 유승무(중앙승가대) 교수는 "오늘의 불교는 깨달음과 중생구제라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불교교육은 이 과제를 풀 수 있는 불교인 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문을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

### "지혜 · 자비 겸비한 불제자 양성"

박선영 교수 〈동국대 · 교육학〉



불교교육의 이념은 자각을 통해 지혜를 체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자각은 개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불교교육의 실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자각을 강조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교육의 대전제로 삼아야 한다.

부처님은 마지막 만행 중에 아난다에게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부디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말라. 자기 자신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라. 부디 다른 것에 귀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말씀에서 보면 불교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할 인간상은 예속적이거나 모방적인 인간이기보다는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상이다. 이는 대승불교를 '서원의 실천불교'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서원에는 국토성취원(國土成就願)과 중생성취원(衆生成就願) 등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국토성취는 자연적, 물질적, 사회적 조건이 모두 쾌적하고 풍부하며 정화된 것을 뜻하고, 중생성취는 인민이 모두 깨달음을 이루어 성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각을 통해 얻은 지혜는 연기법의 깨달음이며, 자비는 자타불이의 동체대비이다. 이런 관점에서 비구와 비구니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종단의 기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학의 이수를 필수조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불교는 그 교학이 매우 방대하고 다양하므로 같은 불교라 하더라도 교리나 신행에 있어서 너무나도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승가대는 불교학과, 역경학과, 포교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전통교육과 사회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현대식 교육을 조화시키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방의 승가대학은 중앙승가대학의 대학원으로 전환하여 한역의 경론을 중심으로 하되, 각 지방 승가대학을 전공별로 특성화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스님의 학력 수준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공인은 보다 능동적인 연구와 교류의 길을 열 것이기 때문이다.

### "깨달음과 중생제도에 초점"

유승무 교수 〈중앙승가대 · 포교사회학〉



불교교육을 논의할 때, 먼저 최종 피교육자인 재가자를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불교교육은 출가자 개인의 깨달음에 편향돼 왔다. 이는 선(禪) 우위의 전통을 지키는 데는 훌륭한 토양은 되었으나, 불교일반 특히 원시불교나 불교사, 불교문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부족과 종단 및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사교입선에 대한 오해로 인해 교육 그 자체에 대한 경시풍조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한국불교가 대승불교의 전통을 따른다고 했을 때, 마땅히 불교교육의 이념은 깨달음의 추구와 중생제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불교교육이라는 문제는 전통적인 교육이론과 진보교육이론을 어떻게 종합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만약 우리가 진보적인 교육이론의 입장을 취하면 불교교육의 특수성이 사장될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전통적인 교육이론의 입장을 취하면 스스로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불교교리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전통과 진보의 조화 없이는 출가자 자신의 현실적응능력 및 지도력의 약화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재 수행과 관련한 프로그램은 그런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대사회적 활동이나 사찰행정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승가교육 프로그램은 종단 ·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강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선 종단의 수요와 관련해서는 종무행정, 사원경제 및 사찰경영, 신도교육 및 조직, 문화재 관리 등 불교공동체의 현실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불교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수요와 관련하여는 불교사회복지, 불교의 사회참여, 불교지도자론 등을 포함한 각종 응용불교학적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교육 현장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보살정신 키우는 불교교육"

김용표 교수 〈동국대 · 불교학〉



불교 교육의 체계는 이상적인 불교인의 양성이라는 대명제에서 생각해야 한다. 대승불교에서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발보리심한 보살을 말한다. 발보리심은 무명의 마음을 정각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는, 즉 마음을 일으켜 자신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볼교적 인간교육의 첫걸음인 것이다. 따라서 이상적인 불교인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사람이며, 항상 선정에 들어 불성의 현전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며,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자유자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며 모든 존재를 자신의 생명으로 느끼며 사는 사람이다.

불교교육은 이러한 인간을 양성해야 하며, '방편'이라는 불교적 방법에 의해 교육시키되, 피교육자 자신의 노력과 교육자의 교육활동이 조화를 이룰 때 성공적일 수 있다. 방편이라는 교육 방법은 피교육자의 능력과 흥미와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 위에 행해지는 교육 방법이다. 그러므로 불교교육은 사찰의 법회, 강원, 율원, 선원 등의 상황이나 피교육자의 필요성에 가장 적합한 교육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 나라에 전승되어 오고 있는 갖가지 신행 · 수행 방법과 최근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갖가지 수행 방법들을 〈보리도차제론〉에 따라 재정리하고 보완해야 한다. 이로 인해 우리의 불교 전통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모든 불자로 하여금 진정한 보살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여법한 신행 · 수행 체계가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교교육은 사찰의 법회, 강원, 율원, 선원 등의 상황이나 피교육자의 필요성에 가장 적합한 교육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불교적 인간 교육은 승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불교인 스스로 자신에게 귀의하며 법의 등불을 밝히려는 자기 교육의 노력과 함께 이를 밖에서 도와주려는 선지식 내지 불교 교육자의 교육활동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선 무 도 여 름 수 련 회

선무도 대금강문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 기 간 : 2001년 7월 1일부터 2개월간 (1주, 2주, 1달)
■ 대 상 : 초등학생이상 개인 및 단체 (불교학생회, 신행단체, 각종 사회단체 위탁연수)
■ 수련내용 : 참선, 선요가, 선무술, 전통문화 (다도, 한국무용)
■ 동 참 금 : 학생 (1일 - 2만 5천원, 1달 - 60만원) 일반 (1일 - 3만원, 1달 - 65만원)
■ 접수문의 : TEL (054) 745-0246, 744-1689 FAX (054) 746-0172 〈단체연수가 많으므로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예약없이 입산 불가〉
■ 준 비 물 : 개인세면도구, 운동복, 운동화, 우산

1천 5백년 전 신라시대에 창건된 골굴사의 부설 선무도 대학에서 주관하는 본 수련회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대자연속에서 불교와 선무도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며 화랑정신을 배운다. 선기공 수련으로 정서불안과 각종 성인병, 만성병을 치료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소홀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얻는다.

**일 과 표**

4시 - 기상, 예불 (불참시 3천배 참회 및 전대중이 1일 금식)
5시 - 좌선
6시 - 조깅, 등산
7시 - 아침공양 (발우 공양)
9시 - 오전 수련
11시 - 108배 참회기도, 자아를 향한 서원
13시 - 독서와 사색
14시 - 오후 수련 및 전통문화 강습 (학생)
16시 - 운력(농장 채소 가꾸기, 청소등)
17시 - 휴식, 산책 (행선)
18시 - 저녁 공양
19시 - 예불 후 학생은 자율학습 및 참회록 쓰기
19시 30분 - 저녁 수련(일반인)
21시 - 점호 및 취침

■ 입산 후 개인 외출, 이성교제, 술, 담배, 간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 수련회 참가자는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 한 불 교 조 계 종 11교구 골 굴 사
세계선무도협회 대금강문 선무도대학
☎ 054)744-1689 홈페이지 golgulsa.com sunmudo.com

## 윤달 삼사 순례는 아미타불이 계신곳으로





골굴사는 1천5백년전 신라시대에 마애아미타불(보물 581호)과 12처 석굴이 조성되었으며 인도의 아잔타와 중국 돈황의 축소판이라할 수 있는 한국 최고의 석굴사원 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천오백년 미소가 중생들의 삼세업장을 소멸하고 극락 세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까운 거리에 지장기도로 유명한 기림사와 오어사, 동해의 문무대왕 수중릉과 감은사지, 석굴암 등은 30분 이내의 거리에 인접하고 있으며, 당사의 경내에 있는 선무도 대학과 수련모습을 견학할 수도 있습니다.




## 호스피스 · 간병과정

(3개월 과정 : 78시간)

개 강 일 : 5월 22일 (화) 오후 2시
강의기간 : 5월 22일 (화) - 8월 24일 (금)

❖ 강의시간 : 매주 화 · 금 (오후 2시~5시)
❖ 대 상 : 19세이상 ~ 60세까지의 남 . 녀 ❖ 수 강 료 월 6만원 (교재비 포함)
❖ 특 전 · 수료증 수여 · 봉사활동 지원 · 유급활동 위한 지원 가능

**교 육 내 용**

■ 인간의 이해 및 간병인의 자세
■ 말기 임종환자와의 의사소통
■ 사회복지와 보건복지
■ 산모간호와 애기돌보기
■ 말기환자 간호 및 통증관리
■ 불교 호스피스
■ 물리치료 및 재활요법
■ 호스피스의 역사와 철학
■ 임종 간호와 영적간호
■ 치매 환자 간호
■ 건강 증진법 ■ 음악과 건강
■ 건강과 질병(노인간호)
■ 경락 이론 및 맛사지
■ 생명의 의미와 가치
■ 심신이완요법(발반사요법)-3회
■ 병원견학 및 실습
■ 거동이 불편한 환자간호
■ 기초간호실습
■ 한의학 이론과 한방 간호
■ 만성질환과 간호

## 불교복지보건대학

명예학장 성오스님(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회장)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3동 1163-5 대아빌딩 4층
051) 462-5670

**호스피스 · 간병봉사자** 본 대학의 호스피스 . 간병봉사자는 수료후 현재 여러 의료기관에서 보건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부·대·중

## 신록의 뒤에는



노귀남
〈협성대 강사 · 국문학〉

요즘 아이들 놀이는 자연과 흙을 잃어버렸다. 일상에서 계절 감각을 느낄 일도 별로 없다. 이것이 불행인지 아닌지도 아무런 자각이 없다. 유전자 조작으로 인간의 생명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 생노병사의 자연 순리에 따르는 삶의 의미가 우습게 보이게 되었다. 끝없이 기계문명의 혁신에만 몰두하여 '테크노피아'를 지향하는 인간에게 인간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어느 날 앞산 자락에 앉은 우리 아파트 창문에 비친 풍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버들과에 속하는 백양나무들 수십 그루가 어느 새 신록을 입고 춤추고 있었다.

이곳에 산 지 십 년이 넘었는데, 늙은 나무가 하루아침에 신선한 얼굴로 확 들어오긴 처음이었다. 겨우내 빈 가지로 떨고 있던 나무에, 어디로부터 온 기운인지 연둣빛 실눈이 여기저기 움트면서 검은 가지를 깨어내더니만, 한 순간 신생의 숲을 눈앞에 토해냈던 것이다.

불혹이 아니라, 끊임없는 유혹들에 흔들리는 갱년기의 눈에 그것은 견성(見性)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5월의 신록은 이렇게 내게 왔다.

수풀이 하루하루 새로움은 그 근본 줄기와 뿌리가 낡고 늙어 있음에서 왔다.

그런데 요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젊고 아름다운 겉모습에 집착하며, 불황 속에서도 성형외과가 성업이라고 하니, 늙어가면서 점점 마음까지 쓸쓸하고 가난해 지게 생겼다.

의식주의 생활문화는 말할 것도 없이, 드디어 육신까지 탈자연하여 가니, 장차 인조인간은 자연인의 땅을 피(?)한 방을 흘리지 않고 새 왕국을 거저 건설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비극은 이미 공상과학영화에서 많이 보았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새것과 젊음의 욕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처 살피지 않고 있다.

내 삶이 자연을 잃어버린 땅에 역사의 줄기와 뿌리가 잘린 생명 없는 것으로 타락하고 말, 허망한 꿈을 꾸고 있지 않은지, 싱그러운 신록이 자꾸 물어본다.

목탁소리

## 달라이 라마와 조계종

김 재 경 (취재1부 기자)

"조계종이 나서면 달라이 라마의 연내 방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달라이라마방한준비위 관계자는 최근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와는 달리 외교통상부와 정치권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변했고,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도 방한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혀 방한 분위기가 충분히 성숙되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조계종이 지난해처럼 이도 저도 아닌 반응을 보일 경우, 외교 당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아가며 방한에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내놓았다.

현재 달라이라마의 방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곳은 청와대 비서실로 알려져 있다. 반면 외교통상부 실무자선에서는 아직 반대 입장에 다소 무게가 실려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새천년민주당 연등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와는 달리 방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달라이 라마 방한의 주최라고 할 수 있는 조계종(총무원장 스님이 방한준비위 고문)의 중진스님들이 제각기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달라이 라마의 방한운동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심지어 일부 스님들은 방한준비위에 관계하는 모 스님이 차기(또는 차차기) 총무원장을 노린다며 음해할 정도로 종단내 여론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 티베트를 잘 아는 일부 스님들의 경우, "방한준비위가 해산하면 그때 달라이 라마를 초대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처럼 정부가 달라이 라마의 방한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음에도, 조계종이 지금처럼 분열된 모습을 보일 경우 올해도 달라이 라마의 방한은 어려울 전망이다.

달라이 라마의 대만 방문에서 보듯, 그의 방한은 불교 홍포에 엄청난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종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스님들이 '한국에 그만한 고승이 없느냐'며 그의 방한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한국불교의 소아적인 발상 내지, 아만심일 수도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때다.

# "맑은 물 푸른 산 숨쉬는 갯벌 만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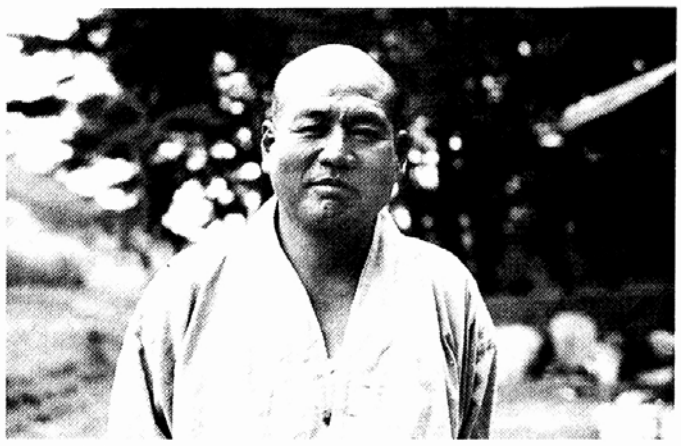
인터뷰

지난 2월 16일, 지리산 천왕봉에선 아주 특별한 산행의 시작을 알리는 모임이 있었다. 이념과 지역 그리고 종교의 다름에서 비롯된 반목과 대립을 화합으로 돌려 놓기 위한 '백두대간 종주' 발대식이 열린 것이다.

단순히 산이 좋아 산에 가는 일이 아니었다. '맑은 물 푸른 산 숨쉬는 갯벌'을 기치로, 수경 스님(지리산살리기 국민행동 공동대표)과 도법 스님(실상사 주지,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상임대표)은 100일 기도를, 그리고 연관 스님(화엄학림 학장)은 백두대간 종주에 나선 것이다.

마침내 지난 4월 29일, 두 조각으로 나뉜 조국의 현실이 더 이상의 발걸음은 허용치 않는, 남한 지역 백두대간의 최북단 향로봉 정상에 섰다. 눈밭을 헤쳐나와 들꽃을 만나기까지 72일 간의 대장정을 원만히 회향한 것이다.

과연 무엇이 연관 스님으로 하여금 승복 대신 등산복을, 바랑 대신 배낭을 짊어지고 백두대간을 걷게 했을까? 실상사 수월암에서 연관 스님을 만나 백두대간의 의미와 종주를 마친 소감을 들었다.



◇지도상 거리 640km, 실제거리 1200km로 3천리에 가까운 남한 지역 백두대간 종주를 마친 연관스님.

## 백두대간 종주 마친 연관스님

—쉽지 않은 일을 해냈다. 특별한 동기같은 건 없었나.

▲원래 산을 좋아했다. 백두대간 종주를 할 생각도 품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지리산살리기 국민운동이 지리산댐 건설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그 힘을 새만금 살리기로 옮겼다. 나도 그 일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

환경운동이란 게 뭔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들이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것 아닌가.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청정국토 가꾸기일 텐데, 그러려면 우선 우리 국토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백두대간을 온몸으로 만나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 국토실상 제대로 알자

또한 모든 지리 공간은 역사 ·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지리산의 경우, 8 · 15광복 이후 6 · 25를 거치면서 수많은 목숨들이 뼈를 묻었다. 한이 서리지 않을 수 없다. 또 지리산은 전남 · 전북 · 경남에 걸쳐 있다. 이것이 이번 백두대간 종주에서 지리산 좌우익 희생자 해원상생 천도재(5월26일)와 지역 화합을 기원하게 된 소이다.

—백두대간이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우리 국토의 등뼈다.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지리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산줄기가 바로 백두대간이다. 지도상 거리로 약 1,600km에 이른다. 동으로 1정간과 서남으로 13정맥이 다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온다. 1대간 1정간 13정맥, 이것이 이 땅의 실체다. 이러한 지리 인식은 오늘 날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18세기 조선의 실학에 바탕을 둔 것이고 여암 신경준(1712~1781)에 의해 집성됐다.

그런데 일제를 거치면서 산맥이 우리 고유의 지리 체계를 밀어내 아직도 혼란을 부른다.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백두대간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긴 했지만 피상적인 수준이다.

산맥 체계의 가장 큰 오류는 삶과 문화 그리고 역사의 터전으로서 존재하는 산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질 구조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속히 극복돼야 할 일제 잔재다.

> '환경운동=생명 공존' 무분별한 개발-훼손 삶의 공간 없애는 꼴

—몸으로 백두대간을 만나면서 느낀 점이 많았을 것이다. 고통과 희열, 보람만큼의 아쉬움이 뒤섞였을 것 같다.

▲걷고 또 걷다 보면 환희심으로 가득 차오를 때가 있다. 칠흙 같은 밤에 오히려 더 선명한 별무리를 만났을 때나, 들꽃 만발한 능선을 지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잠긴다. 간접 체험으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즐거움이다.

가장 가슴 아픈 점은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의 흔적이다. 특히 추풍령 지나 금산의 채석장, 백복령 지나 자병산은 석회석 채취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런데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생명의 보금자리로서의 면모를 잃어간다는 사실이다. 예전에 비해 숲은 많이 우거졌다. 이에 비해 동물 종은 너무 빈약하다. 이런 현상을 생태 전문가들은 덩치는 큰데 허약한 아이에 비유하곤 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심각했다. 그래서인지 설악산에서 멸종 위기에 있는 황구렁이를 만났을 때는 대단히 반가웠다. 다양한 생물종이 공존하는 안정된 생태계의 가치는 돈으로는 따질 수 없을 만큼이다.

깊은 산골짜기까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소비 수준에 비해 환경 의식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다.

즐길 줄 모르고 뛰듯이 산을 오르내리는 것도 민망한 산행 문화다. 빨리 다니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산을 망친다'는 말이 있다.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환경 보호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간은 자연에 기대지 않고 살 수 없다. 또 호연지기를 키우고 심신의 피로를 달래는 데 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는가. 무조건 가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자연에 심각한 부담을 안기지 않을 적정 수준의 통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몇년 등산로를 폐쇄하여 어느 정도 생태를 회복한 곳도 개방 하루만이면 만신창이가 돼 버린다.




◇백두대간 종주단(단장 연관스님)은 지난 4월28일 강원도 진부령에서 백두대간 종주 회향식을 가졌다. 오른쪽 두번째부터 박기성 대장, 연관스님, 김욱철 대원.

### 자연에 기대어 사는 인간

지리산이나 설악산 아니면 산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기호를 다양화하고 제도적으로는 적절한 통제와 분산이 필요하다.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국민들의 의식이 먼저 버뀌어야 한다. 쓰레기 문제만 해도 그렇다. 줍는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버리는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온다.

사실 백두대간을 종주한 사람은 많다. 대단할 것도 없고. 하지만 이번의 종주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국토나 환경 문제 그리고 지역갈등이나 분단현실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남원=윤제학 기자


인터뷰

##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구중구포(2개월 150만원), 유황간장(2개월 50만원), 유황된장

#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조 총판 의료법인 효성양방 · 한방병원

이사장 김 시 연 합장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254-2600 (011)545-550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솔선식(松仙食)」,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53-655-3027) 최 청정심 올림



반산스님의

## 경전읽기

### 화엄경 ⑧

제12 현수품(賢首品)에서는 믿음의 역할(功能)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믿음이 만족하게 되면 성불에 이르게 된다(信滿成佛)'는 뜻으로 설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성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불교에서도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공덕도 이룰 수 없다는 뜻이다.

"믿음은 도의 근본 공덕의 어머니라 온갖 모든 선법을 길렀으며 의심의 그물 끊고 애착을 벗어나 위없는 열반의 도 열어 보이네(信爲道元功德母 長養一切諸善法 斷除疑網出愛流 開示涅槃無上道 / 믿음은 온갖 마의 길에서 뛰어나 위 없는 해탈의 도를 나타내 보이니라. 믿음은 공덕의 파괴되지 않는 종자요, 믿음은 깨달음의 나무를 생장케 하며(信能超出衆魔路 示現無上解脫道 信爲功德不壞種 信能生長菩提樹)"

## 깨달음의 나무 키우는 믿음

### 의심 끊고 해탈로 이끄는 도의 근원

"또 광명을 놓아 꽃으로 장엄하니 가지가지 묘한 꽃이 모여 휘장이 되는지라 널리 시방의 모든 국토에 흡어서 일체 큰 덕 높은 이께 공양하나니라(又放光明華莊嚴 種種妙華集爲帳 普散十方諸國土 供養一切大德尊)/ 또 광명을 놓아서 향으로 장엄하니 가지가지 묘한 향이 모여 휘장이 되는지라 널리 시방의 모든 국토에 흡어서 일체 큰 덕 높은 이께 공양하느니라(又放光明香莊嚴 種種妙香集爲帳 普散十方諸國土 供養一切大德尊)

위의 게송은 부처님께 꽃, 향, 촉, 쌀, 차, 과일로 올리는 정성스런 공양 즉 화엄시식(華嚴施食)에서 볼 수 있는 '육법공양(六法供養)'의 사상적 기반이 된 게송이다. 부처님 오신날로 시작한 가정의 달 오월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로 이어지나니, 이런 게송의 정신으로 정성 다해 부모님과 스승님께 마치 부처님께 올리듯이 공양해야 하리라.

이제 현수품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위의 두 게송은 화엄의 일진법계(一眞法界) · 무진연기(無盡緣起)의 사상을 대변하는 게송이다. 또 아래의 두 게송은 유통(流通)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니, 현수품도 독립된 경전으로 유통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혹은 동방에서 바른 정에 들어가 서방에서 정을 좇아 나오고 혹은 서방에서 바른 정에 들어가 동방에서 정을 좇아 나오며(或於東方入正定 而於西方從定出 或於西方入正定 而於東方從定出) / 동자의 몸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장년의 몸 가운데서 정을 좇아 나오고, 장년의 몸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노년의 몸 가운데서 정을 좇아 나오며(童子身中入正定 壯年身中從定出 壯年身中入正定 老年身中從定出)

열 세계 티끌 수의 중생이 있는 곳에 다 즐길 거리를 보시하며 한 겁을 지내더라도 그것의 복덕은 수승함이 되지 못하거니와, 이 법을 믿는 것은 가장 수승함이 되느니라(十剎塵數衆生所悉施樂具經一劫 彼之福德未爲勝 信此法者爲最勝) / 열 세계 티끌 수의 여래께서 계신 곳에 다 모두 받들어 섬기며 한 겁을 지내더라도 만약 이 품을 능히 외우고 지니면 그 복이 가장 수승하여 저보다 많으리라(十剎塵數如來所 悉皆承事盡一劫 若於此品能誦持 其福最勝過於彼)"

가뭄 끝에 내리는 비를 우리는 단비[甘雨]라 한다. 또 모든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음료수를 감로(甘露)라 한다. 이렇게 귀하고 좋은 것에 '달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니, 올해는 풍수해 없이 풍성한 가을 수확을 비는 마음으로 갖가지 공양을 정성 다해 올려야 하리라. 그래서 '청정한 최상의 차로 중생의 병을 낫게 하는 부처님께 정성 다해 올리옵니다(淸淨茗茶藥 能除病昏沈 願垂哀納受)'라고 게송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두 번째 보광명전(普光明殿) 법회가 마무리되었다. 다음 호에서는 '세 번째 도리천궁(忉利天宮) 법회'로 찾아갈 것이다.

■봉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그림 · 문병성

# '삶의 양날개' 과학과 종교

## 불교와 과학 〈27〉

나는 누구인가? 복잡한 현대산업사회 속에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본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다. 기껏해야 나는 내 직장의 총무부 대리이고 동네 조기축구회의 총무이며, 고등학교 동창회 간사이고, 두 아이의 아비이며 등등의 역할의 집합으로서 나를 규정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자아는 지난 호에 이야기했듯이 집착의 자아를 낳을 뿐이다. 이런 자아는 껍질을 벗기고 또 벗기면 아무 것도 남지 않는 양파와 같은 자아이기도 하다. 역할의 집합으로서의 자아는 결국 기계 부속품들의 집합으로서의 자아와 연관성을 지닌다.

기계를 조립하는 공장에서 공장 노동자들은 똑같은 부속품을 똑같은 방식으로 컨베어벨트의 속도에 맞추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할 뿐이다. 어떤 노동자가 소변이 마려워도 그 노동자의 생리적 상황에 맞추어 컨베어벨트가 멈추지 않는다. 단지 컨베어벨트가 정기적으로 멈추는 휴식시간에 그 노동자는 참고 있던 소변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 공장 시스템은 인간을 위해서 기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위해서 인간이 있는 셈이다. 현대 산업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런 현상이다. 이를 일러 철학에서는 소외라고 말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소외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소외가 아니라, 인간이 기계로부터 혹은 물질문명으로부터 당하는 문명적 소외를 말하고 있다.

찰리 채플린이 나오는 30년대 경화 중에서 '모던 타임즈'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다. 제목처럼 그 영화가 말하려는 내용은 톱니바퀴로 상징되는 엄밀한 시계의 기계성에 의해서 인간의 인간성이 상실되고 기계의 노예로 전락되어 가는 피폐화된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것이 앞서 말한 철학적 소외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삶의 소외는 다시 나는 누구인가를 묻게 되었다.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의 과학기술이 이제는 으히려 과학기술이 주인행세를 하고 인간이 도구화되어 가고 있다. 도구화되어 버린 인간은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부터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난다.

극도로 산업화되어 가는 현대 과학기술사회에서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란 일종의 중독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은 물론이거니와 요즘은 종교를 가장한 주술과 신비주의 중독이나 정보 유토피아를 가장한 인터넷 게임 중독 혹은 소비 중독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중독현상들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상실하면서 어디엔가 자신을 정착시킬 데 없는 표류하는 삶의 방황이기도 하다. 문제는 자신을 상실하고, 자연을 상실하고, 나아가 미래를 상실하는 중독증이 인간 자신이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상업주의가 결정해 준 결과라는 데 있다. 그런데 잉여의 소비재까지 소비하도록 만드는 현대 산업사회의 진짜 문제는 소비재뿐만이 아니라 소비 주체인 자기 자신을 소비하도록 만드는 문화적 역류 구조에 있다.

### 소외와 중독

### 과학기술의 노예화 된 인간
### 종교의 자비와 사랑으로 치유

아마도 현대인에게서 과학기술은 피해갈 수 없는 문명적 통과제의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미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이 미래 상황이라면 소외에 따르는 다양한 중독현상들도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기술에 소외된 인간은 어디에 인지는 모르나 분명히 정착해야 할 자비와 사랑의 터전이 있어야 한다. 결국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종교가 없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필요해 질 것이다.

이렇게 과학과 종교는 삶의 양쪽 날개인지도 모른다. 그것이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라도 좋다. 문제는 중독현상을 일으키는 주술적 종교로 가는 것을 미리 경계해야 한다. 종교를 빙자한 주술주의는 과학의 맞은 편 날개가 아니라 과학과 종교 모두를 거꾸로 내동기치는 회오리바람이다. 그래서 추락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다.

언뜻 모순적으로 보이는 과학과 종교가 삶의 양쪽 날개라는 이야기는 과학과 종교가 같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부작용을 치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종교의 미래가 안고 있는 문명적 과제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뜻도 담고 있다. 이런 뜻에서 볼 때 불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과학과 대화할 수 있는 폭이 너무나 크다. 신비주의를 경계한다는 점에서 그러할 것이고, 문명 중독증을 해독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최종덕/상지대 교수(jdchoi@chiak.sangji.ac.kr)

# 155m 세계최대 불상 2004년 구화산에 우뚝

## 지구촌 불교 / 中 김지장 동상 건립

통일신라시대의 고승인 김교각 스님(659~794)의 모습을 담은 세계 최대 규모의 청동 불상이 중국 구화산에 세워진다.

영국의 BBC 방송은 6일 중국 신화통신을 인용, "신라 왕자로서 중국에서 지장보살의 현신으로 추앙받은 김교각 스님의 등신불이 모셔져 있는 구화산에 1천톤 규모의 청동 지장보살상이 건립된다"고 보도했다.

구화산불교협회가 중국 중앙정부에 건의해 오는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지장보살상은 연화좌대를 포함해 155m에 이르는 높이로 2004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파괴된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석불의 3배(53m)에 달한다. 현존하는 세계 최대 불상은 93년 일본 도쿄에 세워진 120m 높이의 청동대불이다.



◇중국 구화산 육신보전에 모셔진 김교각 스님의 등신불.

불상 제작에는 총 7천만 달러(약 9백억 원)가 소요될 전망인데, 불상 제작비 1천 8백만 달러에 동상전, 산문전, 위타전, 천왕전, 대웅보전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 경관 조성비 5천 5백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중국 당국이 불교성지로 조성키로 한 구화산은 오대산, 아미산, 보타산 등과 함께 중국 4대 불교명산의 하나이다. 당나라 〈구화산 지장보살 추앙 김교각 스님 기려〉에 따르면 신라 성덕왕의 장자인 김교각 스님이 구화산 일대에서 수행하며 이 곳 주민들의 불심을 닦은 이래 명 · 청 시대에는 구화산 일대의 사찰의 수가 300~400 개나 되고 승려의 수도 4000~5000 명이나 되는 불교성지로 발전했다.

### 9백억 투입 … 청동 1천톤 들어가

그러나 구화산 불교성지는 전란과 천재지변으로 많은 사찰과 건물들이 파손돼 현재는 사찰 94개에 800여 명 남짓한 스님과 불교유물 2000여 점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구화산불교협회는 구화산에 명실상부한 불교상징물 건립을 발원. 김교각 지장보살상을 세울 것을 중국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했다.

김교각 스님은 구화산에서 75년 동안 수행을 한 뒤 99세에 입적했는데, 썩지 않은 육신의 모습이 지장보살과 흡사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등신불은 현재까지도 구화산 육신보전에 모셔져 있다.

한편 중국측의 이 같은 발표가 있자 애초 세계 최대의 불상을 건립하려던 인도가 발끈하고 나섰다. 인도는 2005년까지 북부 비하르주 보드가야에 151.5m 높이의 청동불상을 세운다는 목표아래 영국에 이미 제작을 의뢰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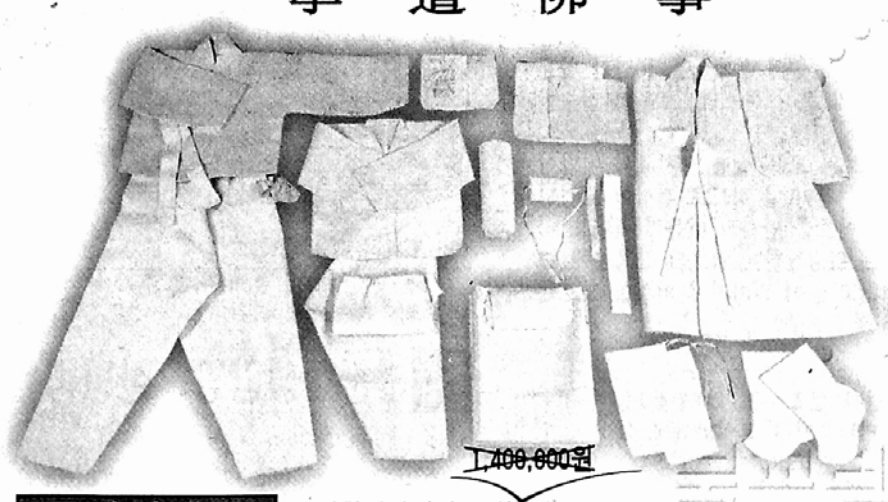
BBC 방송은 "인도가 중국측의 지장보살상 건립을 계기로 당초 계획보다 4~5m 더 높게 불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청동 지장보살상 건립과 관련해 지난해 7월 구화산 방장 인덕스님이 방한한 바 있다. 이 때 인덕스님은 "지장보살상은 구화산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공사로 한 · 중 양국 불교계가 다함께 이루어 내야 할 불사"라며 "우리들은 지장 스님이 직접 창건한 구화산 도량을 세간에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하여 양국 불교계 인사들과 사회 각층이 손을 맞잡아 천추에 길이 빛날 위대한 불사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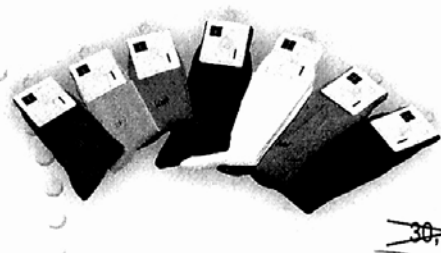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불교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 孝 • 道 • 佛 • 事 -



극락왕생복 1,400,000원 특별할인가 (남 • 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수분흡수와 방산기능은 일반면의 48배,
무좀이나 피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삼베양말 30,000원 특별할인가 (남 • 여) 각 1set(6족) 20,000원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배특유의 사각사각한
느낌이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삼베목수건 20,000원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 x 262cm(길이)

btn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02-3270-3300 팩스:02-3270-34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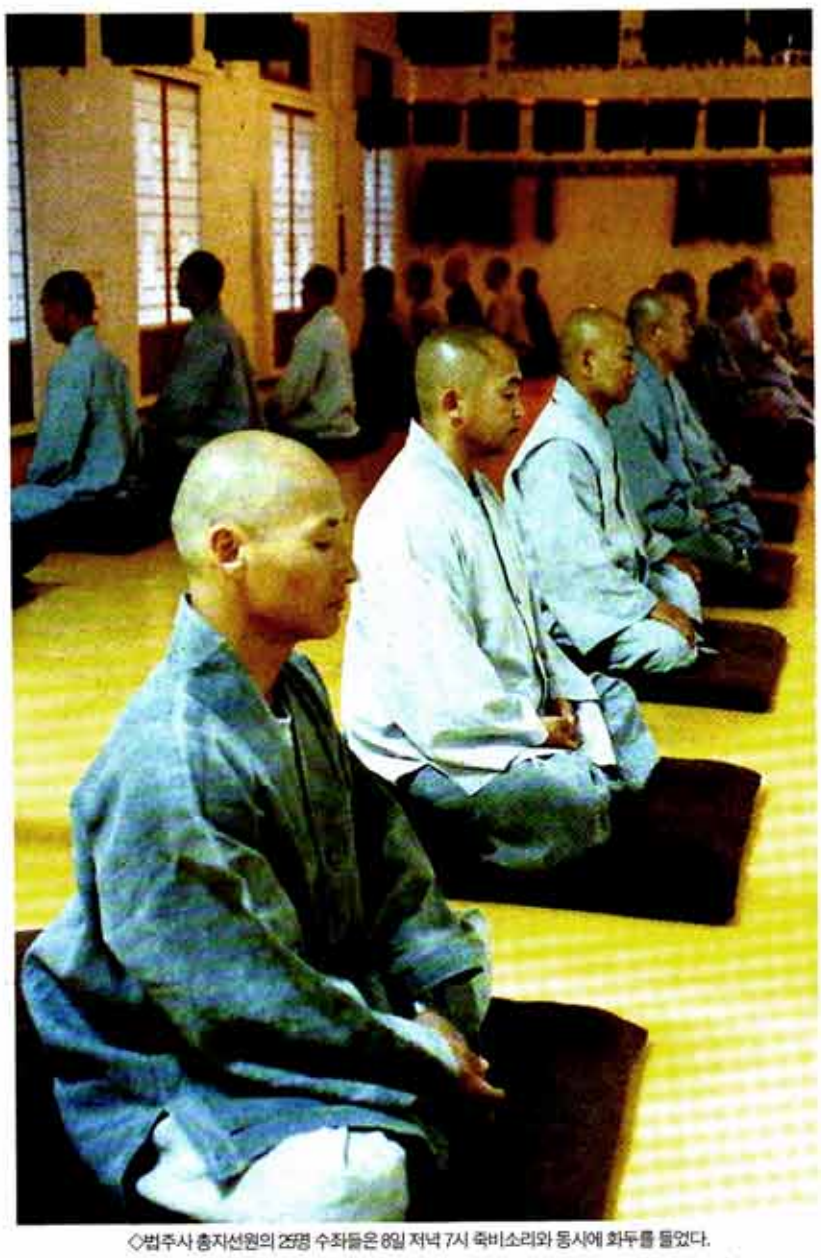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 청 방 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

불교서적의 모든 것! 여시아문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Tel 02)737-0695 Fax 02)737-0696



# "대자유 찾아가는 길은 오직 禪뿐이다"



◇법주사 총지선원의 25명 수좌들은 8일 저녁 7시 죽비소리와 동시에 화두를 들었다.

## 법주사 총지선원의 하안거 결제

"시방(十方)의 무리가 한 자리에 모여, 제각기 무위법(無爲法)을 배우니, 이곳이 부처를 선발하는 도량이며, 마음을 텅 비워 깨달아 급제하여 돌아가네."

일찍이 마조 도일(709~788) 스님은 그의 선원인 선불장(選佛場)에서 참문하는 수행자들을 보고 모두 부처들이라고 말했다.

마조와 석두 희천(700~790)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선종은 백장 스님의 선원청규 제정을 계기로 선원생활을 체계화했다. '수선(修禪)의 공간'인 선원(禪院). 특히 우리나라 선원의 전통은 오히려 선종의 발원지인 중국보다 올곧게 지켜오고 있다. 또한 1600여 년 동안 불교가 연년이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기둥이기도 하다.

하안거 결제 날 찾은 보은 법주사(주지 지명). 속세의 온갖 욕망을 멀리 떠나 있다는 속리산(俗離山) 초입부터 터널을 이룬 수목 사이로 잘게 깔린 새벽 안개가 발길을 잡는다. 금강문과 팔상전을 지나 대웅보전에서 오른쪽으로 비켜들어 긴 담장 너머 큰 학이 날개를 접듯 장중하게 자리하고 있는 천각이 보인다. 그곳이 바로 부휴 선수(1543~1615)→ 벽암 각성(1575~1660) →금오 태전(1896~1968) 스님의 선맥이 이어지고 있는 총지선원이다.

선원에는 수좌들이 하안거 입방 절차를 마치고 결제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법주사 총지선원 하안거에는 60여 년 가까이 제방 선원에서 정진한 지용 스님(대흥사 · 77세)을 비롯해 비구계를 갓 받은 정경 스님(법주사 · 33세) 등 모두 25명이 동참한다. 많게는 50년 이상의 법랍 차이가 나지만 모든 대중들은 오직 깨달음만을 위해 절차탁마하는 도반일 뿐이다. 이들은 대부분 제방선원에서 수행해 온 수좌들이지만 그 중에는 오랜 동안 주지 · 군법사 · 유학생 등의 생활을 하다 입방한 스님들도 있다. "선리(禪理)가 없다면 출가 수행자가 아니다. 대자유를 찾아가는 길은 오직 선뿐이다"는 그들의 말 속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장부의 기상이 서려 있다.

솔 향기가 물씬 풍기는 선원 뜰을 거닐고 있던 지중 스님은 "쉬기 위해 왔다"며 "몸과 마음을 굳이 깨달음조차 집착하지 말고 오직 화두만 참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소가 풀을 먹고 물을 마시고서는 충분히 만족하여 그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는 것처럼 본도의 수행에 철저하여 깨달음에 집착하지 않고 담담하게 수행해야 있는 그대로 바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안거를 위해 방부를 들인 수좌들은 보통 10여일 전에 선원에 들어와 결제 준비를 한다. 사실 삼의일발(三衣一鉢)이 전부인 수좌들에게 결제 준비란 게 특별할 것은 없다. 빨래, 청소, 삭발, 소임 짜기 등이 전부다. 그 중에서 대중의 공의로 결정되는 소임 짜기는 원만한 정진과 회향을 위한 결제 준비의 필수과정. 선원에는 수좌들의 법명과 한자로 쓰여진 표가 걸려 있는데, 이것이 대중의 소임을 알리는 용상방(龍象榜)이다. 수좌들은 법랍과 안거 횟수에 따라 입승(책임자), 청중(책임자 보좌), 지객(손님접대), 청통(화장실 청소), 욕두(목욕 담당), 다각(다과준비) 등의 소임이 정해진다. 한 명도 빠짐없이 소임을 맡는 것이 소임 짜기의 원칙이다. 그리고 자리는 나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안거 연수(법랍)에 의해 정해진다.

선방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양쪽 벽면 하단에 붙어 있는 삼함(三緘)과 오관(五觀)이란 글귀다. 입승 원산 스님은 "안거 중에 특별한 계율은 없다. 다만 삼함과 오관을 지키는 것이 안거 수행자의 기본이자 전부다"고 말한다. 삼함은 몸과 입 그리고 뜻을 삼가라는 뜻이며, 다섯 종류의 관법을 일컫는 오관은 진리의 이치를 관해서 보고 생각하는 의심을 끊는 진관(眞觀)을 비롯해 청정관(淸淨觀), 광대지혜관(廣大智慧觀), 비관(悲觀), 자관(慈觀)을 말한다. 수좌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불문율이다. 이밖에 안거 수행에 있어 특별한 규칙은 없다. 다만 수행에 태만한 수행자가 생기면 대중공사를 열어 퇴방 시키면 그만이다.

해제와 결제가 따로 없다고 했다. 하안거 결제 법회를 3시간 여 앞둔 30명의 총지선방은 이미 결제에 들어간 듯 고요하다. 특히 가부좌를 틀고 화두와 씨름하는 몇몇 수좌들이 모습은 긴장감 마저 감돈다.

오전 10시 30분, 법주사 대웅보전에서는 총지선원을 비롯해 탈골암 대휴선원, 복천암 복천선원 등 본말사의 선원 수좌 1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제 법회가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주지 지명 스님은 "선원을 본래 부처인 그 사실을 철저히 자각해 부처가 되는 곳이다. 수좌들이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받들어 모시는 것도 큰 불공이며 공덕이다"며 사중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법회를 마치고 강원의 학인 스님들, 법주사 대중스님들과 점심공양을 함께 한 수좌들은 선원주변의 잡초 뽑기 울력을 마지막으로 모든 안거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석양이 속리산의 신봉을 붉게 물들이는 시각 한 명씩 선방에 들어 벽을 향해 가부좌를 한다. 이 시각, 대웅보전에서는 저녁예불이 한창이다. 시계의 초침과 분침이 정각 7시를 알리는 순간 선방에는 죽비 소리와 동시에 입선에 들었다. 말과 움직임 그리고 생각도 없다. 부동(不動), 무언(無言)의 선 수행이 마침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법주사 총지선원의 25명의 수좌들은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고 3개월 동안 오직 화두만 참구할 것이다.

**안거 수좌의 계율**
**삼함(三緘)과 오관(五觀)**
**입승-지객-정통 등**
**공의로 소임짜기**
**不動과 無言 3개월**
**오직 화두와 씨름**

글=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 안거란 여름-겨울 두차례 3개월씩 정진

음력으로 4월 보름은 하안거(夏安居)가 시작되는 결제 날. 이번 하안거에는 해인총림 등 5대 총림을 비롯해 전국의 80여 선원 1700여명의 수좌들이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안거는 인도에서 수행자들이 질병이 창궐하는 우기에 한 곳에 모여 산 데서 유래했다. 그래서 우안거(雨安居)라고도 한다. 하지만 중국을 거치면서 여름과 겨울 두 차례씩으로 자리잡았고, 선이 꽃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어져 1천여 년의 전통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두 차례 안거가 있는데, 여름 수행을 하안거, 겨울 수행을 동안거라고 한다. 안거는 일반적으로 3가지 정진이 있다. 하루 8~10시간의 일반정진, 하루 12~14시간하는 가행정진, 그리고 해제를 앞두고 용맹정진을 하는데 1주일 동안 매일 12시간 이상 참선을 해야 하는 고행이다. 안거에서 수좌들이 가장 힘겨운 시기는 결제 후 30일 전후다. 법주사 총지선원의 한 수좌는 "결제 후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지날 때가 육체 · 심적으로 가장 괴로울 때다"며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지 못해 스스로 퇴방하는 수좌도 있다"고 귀띔했다.

하안거는 음력 4월 보름인 지난 8일부터 음력 7월 보름까지 한다. 특히 윤해처럼 윤달이 있을 경우 선방에 따라 4개월 정진하는 곳도 있다. 안거를 시작하는 것을 결제(結制)라 하고, 마치는 것은 해제(解制)라 한다.



◇법주사는 8일 대웅보전에서 총지선원을 비롯해 탈골암, 복천암 등 본말사 수좌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안거 결제 법회를 가졌다.



◇하안거 결제에 앞서 선원 주변에서 잡초 뽑기 울력을 하고 있는 총지선원 수좌들.



정세채와 떠나는
## 선·식·기·행



### 버찌차

병자호란을 겪고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만주 벌판을 걸어오는 효종은 오직 북벌(北伐)계획 뿐이었다. 효종은 등극한 뒤, 청나라 모르게 활과 창을 만들 나무를 구할 수 있는 핑계를 대안을 찾지 못해 식음을 전폐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효종이 울적한 심사를 달래느라 삼전도를 지나 남한산성에 오르자, 때마침 팔도 도총섭으로 승병을 일으켜 육전(陸戰)의 사명당에 버금가는, 해전(海戰)을 승리로 이끈 벽안 스님이 남한산성 축조를 독려하던 중, 어가(御駕)를 보고는 달려와 효종의 근심을 소승이 헤아리겠노라 아뢰었다. 효종이 벽안 스님에게 은밀히 청하여 묻자, 흰 종이에 벚나무라 쓴지라! 이에 효종은 어둠이 임시에 걷히는 듯했다.

경의 생각이 종묘사직을 지키고 조선을 융성케 하리라. 이 때부터 전국에 벚나무를 심게 했고 특히 벽안 스님의 본찰인 지리산 화엄사와 쌍계사 계곡에는 벚나무가 장려되었다. 서울 우이동도 개발 전까진 벚나무 단지가 남아 있었는데 수양을벗이라고 하여 나무로 활을 만들고 껍질로 활을 감아, 손이 아프지 않으면서도 소뿔보다 성능이 우수했다.

화엄사에는 지금도 천연기념물 38호로 지정된 벚꽃이 있어 효종의 북벌계획이 아직도 미완(未完)임을 말해준다. 1912년 독일 식물학자에 의해 일본의 국화인 벚꽃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의 지리산으로 밝혀졌다. 벚나무의 용도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벚나무의 껍질을 앵피 또는 화피라 하여 기침, 두드러기 피부염에 사용했고, 버찌는 식용으로 했다. 또 숙취나 식중독의 해독제, 무좀과 습진 등에도 효험이 있다.

버찌는 벚꽃이 떨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열매로 5월 하순경, 파란색에 붉은 기운이 감도는 버찌를 말려서 차를 만들어 마시면 좋다.

### 검버섯 · 죽은깨, 피부미용에 효과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버찌, 꿀, 맑은 물

**요리법** ① 덜 익은 버찌가 좋지만, 이미 익은 버찌로 할 경우 잘 씻어 물기를 완전히 뺀다.

② 꿀을 넣고 살짝 버무려 질그릇이나 유리병에 담아 15일 정도 재워둔다.

③ 마실 때는 뜨거운 물에다 ②의 즙을 1~2 숟가락 넣고 꽃잎 1~2개를 띄워 마신다.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저자

## 다시 푸는 경서

###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㉛

同生淨土 愚智行相
동생정토 우지행상
天地懸隔 何如現今學大乘唯心法門
천지현격 하여현금학대승유심법문
專於定慧 免墮凡小心外
전어정혜 면타범소심외
取色分齊之見也
취색분재지견야

비록 다같이 정토에 난다고 하나, 우자와 지자의 수행은 천지차이니, 이제라도 대승의 유심법문을 배우고 선정과 지혜에 힘써서 범부와 소승들이 마음 밖의 물질이나 분별을 취하는 소견에 떨어지는 것을 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如是則雖曰同生淨土 愚智行相
여시즉수왈동생정토 우지행상
天地懸隔 何如現今學大乘唯心法門
천지현격 하여현금학대승유심법문
專於定慧 免墮凡小心外取色
전어정혜 면타범소심외취색
分齊之見也 若是祖宗門下 以心傳心
분재지견야 약시조종문하 이심전심
密意指授之處 不在此限 琪和尙云
밀의지수지처 부재차한 기화상운
能悟祖道 發揮般若者
능오조도 발휘반야자
末季未之有也 故此勸修文中
말계미지유야 고차권수문중
皆依大乘經論之義 爲明證
개의대승경론지의 위명증
略辨現傳門信解發明之由致
약변현전문신해발명지유치
竝出生入死 淨穢往來之得失
병출생입사 정예왕래지득실
앙유불안 증차미성 보위법계군미
發此同修定慧之願
발차동수정혜지원

그러므로 다함께 정토에 난다고는 하나, 어리석은 이와 지혜로운 이의 수행하는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인데 어찌 대승의 유심법문을 배워 선정과 지혜를 닦아 범부와 소승들의 마음 밖의 물질적 차별을 취하는 것과 같겠는가. 조종(祖宗)의 문하에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비밀한 뜻을 가르쳐주는 곳은 이 차한(此限)에는 없다. 그래서 기(琪)화상은 '조사의 도를 능히 깨달아 반야를 발휘하는 이는 이 말세에는 없다' 하였다. 그러므로 이 권수문에서는 모두 대승 경론의 이치에 따라 밝게 증명하고, 현재에 전하는 법을 믿고 알아 밝힌 이치와 또 삶으로 나오고 죽음으로 들어가고, 정토와 예토로 가고 오는 이익과 손실을 간략히 분별하였다.

欲令入社修心之人 知其本末
욕령입사수심지인 지기본말
息諸口諍 辨其權實
식제구쟁 변기권실
不枉用功於大乘法門正修行路
불왕용공어대승법문정수행로
同結正因
동결정인
同修定慧 同修行願 同生佛地
등수정혜 동수행원 동생불지
同證菩提 如是一切 悉皆同學
동증보리 여시일체 실개동학
窮未來際 自在遊歷十方世界
궁미래제 자재유희시방세계
互爲主伴 共相助成 轉政法輪
호위주반 공상조성 전정법륜
廣度群品 以報諸佛莫大之恩
광도군품 이보제불막대지은
仰惟佛眼 證此徵誠 普爲法界群迷

그러므로 다함께 정토에 난다고는 하나, 어리석은 이와 지혜로운 이의 수행하는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인데 어찌 대승의 유심법문을 배워 선정과 지혜를 닦아 범부와 소승들의 마음 밖의 물질적 차별을 취하는 것과 같겠는가. 조종(祖宗)의 문하에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비밀한 뜻을 가르쳐주는 곳은 이 차한(此限)에는 없다. 그래서 기(琪)화상은 '조사의 도를 능히 깨달아 반야를 발휘하는 이는 이 말세에는 없다' 하였다. 그러므로 이 권수문에서는 모두 대승 경론의 이치에 따라 밝게 증명하고, 현재에 전하는 법을 믿고 알아 밝힌 이치와 또 삶으로 나오고 죽음으로 들어가고, 정토와 예토로 가고 오는 이익과 손실을 간략히 분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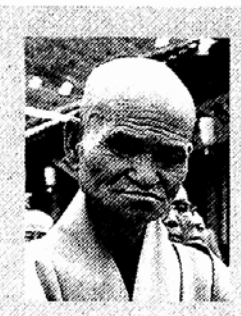
### "법륜 굴려 중생 구제 모든 부처의 은혜 갚자"

欲令入社修心之人 知其本末 息諸口諍 辨其權實 不枉用功於大乘法門正修行路 同結正因 同修定慧 同修行願 同生佛地 同證菩提 如是一切 悉皆同學 窮未來際 自在遊歷十方世界 互爲主伴 共相助成 轉政法輪 廣度群品 以報諸佛莫大之恩 仰惟佛眼 證此徵誠 普爲法界群迷

그러므로 다함께 정토에 난다고는 하나, 어리석은 이와 지혜로운 이의 수행하는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인데 어찌 대승의 유심법문을 배워 선정과 지혜를 닦아 범부와 소승들의 마음 밖의 물질적 차별을 취하는 것과 같겠는가. 조종(祖宗)의 문하에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비밀한 뜻을 가르쳐주는 곳은 이 차한(此限)에는 없다. 그래서 기(琪)화상은 '조사의 도를 능히 깨달아 반야를 발휘하는 이는 이 말세에는 없다' 하였다. 그러므로 이 권수문에서는 모두 대승 경론의 이치에 따라 밝게 증명하고, 현재에 전하는 법을 믿고 알아 밝힌 이치와 또 삶으로 나오고 죽음으로 들어가고, 정토와 예토로 가고 오는 이익과 손실을 간략히 분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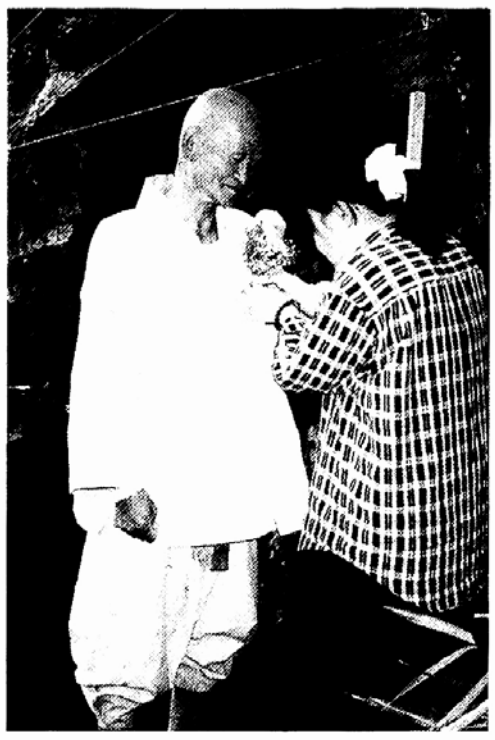
도천스님은

## 91세 불구 365일 울력



1910년 평안북도 철산에서 나신 도천스님은 19세에 "도를 이루겠다"며 금강산 마하연에서 수월스님의 제자인 신묵언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20여년간 금강산 마하연 신계사 묘향산 유점사 법왕사 등에서 수행해 온 스님은 전쟁으로 금강산이 북한의 수중에 들어가자 남한으로 내려왔다. 범어사와 내원암 칠불암 해인사선방을 거쳐 금강산과 산세가 비슷한 대둔사 태고사에 방부를 들이고 공양주 소임을 보았다. 태고사에 팔치산이 들어오자 묵언을 하고 7일 단식을 하다 마지막으로 태고사에서 나왔다. 스님은 '난리통에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게 된 것은 순전히 부처님 덕분이고 그 은혜를 갚는 일이 제대로 도량을 정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6·25전쟁으로 불에 타 아무것도 없는 태고사로 62년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태고사 터에 움막을 하나 짓고 나물죽을 끓여 먹으며 40년간 두문불출 지금까지 불사를 계속 해왔다.

스님은 묵언을 지키고 계행이 청정하며, 철두철미한 보살행, 백장청규에 따라 오로지 일만 할 뿐 좀처럼 대중 앞에 나서지 않는 '수월가풍'을 세우고 있다.



◇8일 어버이 날을 맞아 청년 불자가 감사의 꽃을 달아드리자 기뻐하고 있는 도천스님. 스님은 이때에도 "놀지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 한가지 집중해서 땀흘려 일하면 탐·진·치 눈녹듯

가면 택시를 타고않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공양하신다. 돈을 쓰고 안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삼보정재이기에 개인적으로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스님은 평소 부처님 같이는 못하더라도 천만분의 일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누기 위해서는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삿된 것이 많은 세상일수록 정법을 지키고 검약하려는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과 수행을 함께하는 백장청규의 정신이 살아 있는 '수월가풍'. 태고사에 사는 사람이나 찾아오는 사람은 잠자는 시간을 빼고 누구나 기도정진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둘 중 한가지는 무조건 해야 한다. 누구든 예외는 없다.

스님은 1929년 금강산 마하연에서 '평생 수행하며 살 것'을 발원하며 출가했다. 은사는 평생 묵언수행을 해온 것으로 유명하며 법명까지 '묵언'인 '신묵언스님'. 묵언스님은 도천스님이 찾아가 제자되기를 청하자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허락한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이후 16년간 스님은 잣나무 잎을 따먹으며 은사인 묵언스님을 모시고 살았다. 묵언스님은 2층 정자에서, 스님은 1층에서 생활하며 새벽3시에 일어나 죽비로 예불한 뒤 온종일 은사스님과 일하고 수행했다.

그 묵언스님의 은사, 즉 도천스님의 할아버지가 바로 수월스님이다. 수월스님이 방아찧으면서 한발을 들어서 방아에 올려놓고 조시는데 방아공이가 위에서 떨어지질 않고 그대로 허공에 있자 방앗간 주인이 놀라 도인임을 새삼 알았다고 하는 일화는 유명하다.

수월스님이 도인으로 소문나자 주석하고 계시던 북간도까지 찾아온 스님과 신도들이 매일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그에 아랑곳 않고 항상 하던대로 밖에 나가 묵묵히 일만 하셨다고 한다.

평생 일하고 기도했던 수월스님은 입적하자 마자 7일7야 방광이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백장청규 가풍을 철저히 지킨 수월 묵언 스님 가풍을 그대로 전수받은 도천스님은 한마음으로 일에 전념해 태고사에는 어느 한곳 스님의 땀과 손길이 거치지 않은곳이 없다.

"요즘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하고 편하게 살려고만 해. 그런데 호강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탐심 진심 치심으로 작용해 나타나고 결국에는 수행과는 전혀 먼 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을 몰라."

스님의 경책은 그저 한가지에 집중해서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면 탐진치 삼독이 눈녹듯 사라지고 온갖 번뇌를 여의게 되는 것을 저절로 느끼게 된다는 법을 설명하신 것이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상(相)내는 마음도 저절로 사라져 수행의 첫걸음이 되는,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자세를 알게 된다는 말이다.

스님은 흙 속에 묻힌 돌멩이를 골라내시며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자상하게 다음과 같이 일러주신다.

"인간은 누구나 나고(生) 늙고(老) 병들고(病) 죽는 것(死)을 벗어날 수 없어. 그러고 보면 인생은 너무 짧아.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물질적으로 많고 적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죽으면 벗어놓고 갈 육신을 왜 그리 아껴. 부자와 가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진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는 것은 물질이 아닌 마음 뿐이야. 그러니 남의 물건 탐낼 것도 없고, 부자는 자신이 잠깐 맡고 있는 물건들을 없는 사람들에게 줘야 해"

중생사는 너나 할 것 없이 육도윤회(六道輪廻)를 한다며 모든 것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스님은 중생들은 자신들이 지은 업(業)에 따라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수레바퀴처럼 반복하지만 이 이치를 몰라 금생에서 벌것도 아닌 일에 집착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 계곡 울리는 곡괭이 소리 마치 법문처럼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3천년에 한번 올라오는 거북이가 바다에 떠 있는 나뭇가지 잡기보다 힘들지만 사람으로 태어나 짧은 인생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자리 찾는 공부를 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 불자들에게 들려주는 가르침이다.

스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많이 알려 한사람이라도 빨리 깨우치게 해야 한다"며 "불자들은 한시라도 놀지 말고 기도하고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여 남과 후세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당부 또 당부하셨다.

스님의 이런 생각은 태고사에 그대로 화현되고 있다. 앞으로 많은 도인들을 배출할 도량이 완성되고 있고, 제자들도 열심히 기도정진 중이다.

태고사로 들어온 68년 10월 보름에 입재한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33년 동안 기도만 하고 있는 정안스님(59세). 스님은 지난해 1만일 기도를 회향하고 곧바로 또다시 일체 중생 구제, 세세생생 영가천도, 보현행 실천을 발원하며 1천일기도 입재에 들어가 내년 2월 회향한다. 정안스님은 "어렵더라도 계속 기도하라며 길을 제시하여 부처님 가피를 알게 해준 은사스님을 존경한다."며 "스님의 뜻을 이어 중생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

정안 스님은 또 "은사스님이 죽자사자 열심히 일하고 계행을 철저히 지키시니 아랫사람들도 저절로 따라가게 된다"며 "몇십년간 이런 생활이 반복되니 뭔지 모를 힘이 태고사에 뭉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산을 내려오며 계곡을 울리며 들려오는 곡괭이 소리가 '항상 기도하고 마음공부 열심히 하라'는 스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다. 석문 앞에서 아쉬운 마음으로 뒤돌아 보니 관음봉 아래 자리잡은 태고사를 중심으로 관음대 지장대 보현대 오백나한대가 잣나무숲 사이로 우뚝 우뚝 솟아 있다. 그 위로 넓게 펼쳐진 맑게 갠 하늘은 언제 새 찬 비바람을 뿌렸냐는 듯 푸른빛을 발하고 있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지난 317호 '관응스님' 기사와 관련, 해당사찰의 공식적인 허락을 받지 않은점을 사과드립니다.



수완스님의
## 스 님 이 야 기
정원스님 (2)

정원스님께서 26, 7년 전 강원도 철원 심원사 주지를 하실 때의 일이다.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법요식 할 때 쓰는 법요집이나 독송용 책이 매우 귀했다. 그러다 보니 대체로 노트에 직접 베껴 썼고, 좀 낫다는 것이 빈 책에 사경해 한지로 맨 것이었다. 이런 실정이니 염불을 익힐 경우 갱지를 B5나 A4 용지 크기로 잘라서 앞 뒤 면에 백백이 써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익혔다. 스님께서 설령 '재받이중'은 안하더라도 중이 마지밥은 내려먹을 줄 알아야된다며 기본적인 법요 의식을 익히라고 하셨지만 나는 염불중은 하지 않을 거니까 배우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러던 어느날 스님께서 대중들과 함께 출타하셨다. 공양주와 나만 남게 되었는데 사시 무렵이 되자 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 20여명이 기도를 하러왔다. 나는 약간은 당황했지만 법요집을 보고 해주면 되겠지 하고 별다른 생각을 안했다. 그런데 축원카드를 찾아 가지고 기도하러 법당엘 들어가 보니 평소에 늘 탁자에 있던 석문의범과 법요의식을 베껴 써둔 노트마저 보이지 않았다. 매우 난감했으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고 천수경과 예불문 까지는 했다. 다음이 문제였다. 그 이외는 외워두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기도하다가 말고 탁자 밑과 불단 밑을

### 날마다 손수 도량청소
### "정재유실 절대 안된다"

여기 저기 뒤적거리며 찾아보았지만 없었다. 침이 바짝바짝 타들어 가고 진땀이 났다. 급기야는 신도들도 기도를 중단하고 법요집을 찾으러 온 도량을 뒤지고 다녔다. 한시간도 넘게 방마다 찾아보았지만 허사였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 따로 없었다. 그런데도 신도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나와 함께 이방 저방을 열심히 찾아 다녔다. 나는 거의 정신이 없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신도회장이 묘한 웃음을 지으며 "스님, 불공기도는 그냥 한 것으로 하고 이제 마칩시다" 했을 때 나는 지옥에라도 와 있는 듯 했다. 며칠간 출타하실 거라던 정원스님은 오후 늦게 대중들과 함께 돌아왔다. 신도회장도 함께 왔다. 걸망 속에서 석문의범과 여타의 법요의식을 써둔 노트들을 꺼내놓았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나는 쓰다 달다 한 마디도 못하고 법요의식을 익혔다.

스님께서는 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수행자다운 수행을 못하고 지금껏 허송세월 한 것이 제일 마음 아프다. 지금이라도 피나는 정진을 해야겠지만 나이 80이 되어 몸은 이미 늙었고 또 공부에 길들여지지 않아 뜻과 같지 않다. 젊다고 자랑말고 정진 열심히 해라. 다른 것은 사실 별게 아니다. 자기 마당 하나 쓸 줄 모르는 위인들이 도인임네 하고 남 앞에서 이름날리는 것은 엄격히 따지지 않더라도 위선이다.이름 날리는데 힘쓰지 말고 공부하는데 힘써라. 지 목숨 걸고 하는 일인데 하물며 무엇이 필요하겠어."

스님께서는 70대 후반인 지금도 좀처럼 쉬는 일이 없다. 멍하니 앉아있으면 망상 생긴다며 날마다 도량 구석구석의 잡초를 뽑고 쓸기를 하루에도 수 차례씩 하신다. 강원도 건봉사에서 스님을 모시고 살 때다. 종무행정에 관한 업무를 스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다. 또 말로 돈을 몇 천만원 혹은 몇 억원을 주고는 1주일이나 10일 안에 1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장부와 결산을 복식부기로 하게 시켰다. 지금 같으면 전자계산기라도 있지만 나는 상업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주산을 사용할 줄 몰랐다. 부기 또한 할 줄 몰라 여간 힘들지 않았으나 작은 오차나 실수를 용납 안했다. 예, 결산 심사를 실제처럼 했고 잘못된 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야단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경중에 따라 참회기도까지 시켰다. 실제 돈을 주신 것도 아닌데 하고 대꾸하면 돈을 주지 않았는데도 잘못을 하는데 실제 돈을 손에 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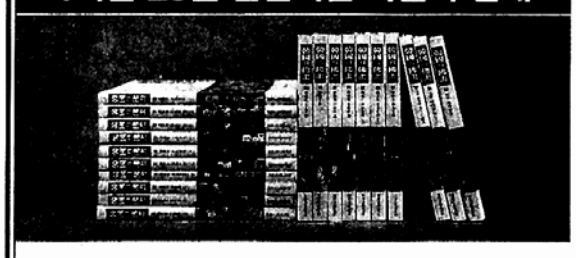
집행할 경우 무슨 과오를 저지를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며 더욱 심하게 꾸짖으셨다. 예, 결산뿐 아니고 종무행정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반복해서 시켰다. 중(僧)공부를 안 가르치고 왜 사무일만 가르칩니까 하고 따지면 제 밥그릇도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도 씩이나 논하느냐고 하셨다. 지금이사 그때 스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알지만 당시 사미시절에는 스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다.

스님께서는 출가 전에 전매청과 경찰간부로 재직하신 적이 있다. 행정에 밝다보니 출가한 후 사찰행정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사찰재산이 알게 모르게 유실되고 사유화돼 가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하시다 못해 분개하셨다. 털끝 만한 사욕과 사심도 용납하지 않는 스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편히 먹고 자고 수행 정진하는 사찰과, 사찰 소유의 재산들이 옛날 스님들이 안 먹고 안 쓰고 아껴서 모은 재산인데, 못난 후손들이 하라는 수행은 안하고 절까지 망해먹고 있으니 복장 터질 일이라며 애통해 하신다. 스님들이 도를 닦고 수행정진만 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진할 터전은 우리 스스로 지키고 보존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 후손들이 정진하고 교화할 터전이기 때문이란 것이 정원스님의 한결 같은 뜻이다.

정취암 주지




1차분 20권 완간기념 특별가 판매



• 판매기간 : 2001. 9. 15까지(정가:각권 9만원, 총180만원)
• 특별보급가 : 120만원(20권 1질, 카드분납 가능)

1차분 수록대상(1996~2000년)
통도사 · 해인사 · 송광사 · 직지사 · 월정사 · 화엄사 · 선암사 · 금산사 · 선운사 · 마곡사 · 법주사 등 11개 본말사 564개 사찰 및 박물관 7개 소에 소장되어 있는 1,621점의 탱화(3,674컷 수록)

소장하면 소장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책

◆ 한국의 불화를 집대성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 및 국공립 ·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등 국내외에 산재한 불화를 직접 조사하여 수록했습니다.

◆ 원색도판을 풍부하게 실어 원화를 직접 대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각 불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識記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 韓國의 佛畵

불교출판 사상 최대의 불사, 두 번 다시 하기 힘든 한국불화의 집대성

해를 거듭할수록 훼손으로 인해 친견하기 어려워지는 각종 불화들!
우리의 성보인 이 불화(탱화)들은 장엄한 불국토의 화현이요
신심의 결정체이며, 불보살님의 원만한 상호에서 우러나오는 복덕의 광명은
우리의 어둠을 없애주고 간절한 바람을 성취시켜 줍니다.
저희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한국의 불화』 1차분 20권의 완간에 이어
2차분 20권의 차질없는 간행을 새천년의 원으로 삼아 일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부디 이 기회에 불화집을 구입하고 또 2차분 회원이 되시어
불보살님과 함께하는 인연을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보문화재연구원 총재 / 석정 이사장 / 범하 원장 / 김현준
이사 / 무주 무현 동욱 태허 정우 명신 지현 정수 현기 우진
임창욱 홍윤식 장충식 손창길 조해수 조경숙

구입문의 / 성보문화재연구원 ☎ (02) 587-6613, 701-6830, 6832 팩스 (02) 586-9078

『한국의 불화』 2차분 20권 불사에 동참을!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올해부터 향후 5년에 걸쳐 2차분 20권을 편찬함으로써**, 이 땅의 독특한 성보요 전세계의 지랑거리인 우리의 불화를 총망라하여 **『한국의 불화』 총 40권을 완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매년 4권씩 발간하는 이 불화집의 편찬은 방대한 예산과 많은 인력, 그리고 지극한 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야말로 불교계 전체의 일이요, 감히 한 연구단체에서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불사입니다. 부디 시방의 불보살님과 인연을 맺는 이 불사에 뜻있는 분들이 동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 회원 모집기간 : 2001. 9. 15까지
• 회원동참비 : 120만원 (20권 1질, 카드분납 가능)

▶ 회원이 되신 분은 20권 각 권마다 시주질(이름)을 밝혀 불연을 영구히 남깁니다.

原畵 그대로의 화려함이 살아 있습니다



○ 판형 : 가로 257 × 348㎜ (타블로이드판형)
○ 면수 : 각권 250쪽 내외 (원색화보, 해설, 화기 수록)
○ 장정 : 전면 컬러 양장제본
○ 발행처 : 성보문화재연구원

25일은 차의 날

# 차 축제 등 잇달은 행사
# '禪茶一如'로의 초대

'영산으로 가져가 여러 부처님께 바치고자 차를 끓이면서 다시금 범율(梵律)에 대해 세밀히 생각해 보네.

알가(茶)의 참 모습은 오묘한 근원에 이르게 하나니

오묘한 근원은 집착이 없는 바라밀이라네.'

다성(茶聖)으로 불리우는 초의선사(1786~1866)는 차를 끓이는 과정에서 우주의 근본 법칙을 깨닫고 이렇게 읊었다. 차 마시는 일을 욕심과 번뇌를 없애주는 수행방편으로서 참선과 같은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차 마시는 일은 수행자들의 중요한 일과중의 하나다. 중국 강서성 영수현의 선종사찰인 진여사에서는 지금도 출가 이후 삼년 동안 제다(製茶)에 종사해야 정식 승려로 득도할 수 있을 정도로 차 다루는 일 자체가 수행의 한 과정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어디 수행자들뿐이랴, 현대인들 또한 차 마시기를 즐겨하며 선다일여(禪茶一如)의 경지를 지향한다.

25일은 스물 한 번 째 맞는 차의 날이다. 차의 날을 앞두고 차의 멋과 맛과 향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중이다.

**제6회 하동야생차문화 축제**

제6회 하동야생차문화 축제가 24~27일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 차 시배지 및 진교면 박사밭 도요지 일대에서 열린다. 차 만들기 체험, 차 만들기 시연, 차 여인 선발대회, 차 시배지 다례식, 어린이 차 예절 경연대회, 유적지 관광 등으로 이루어진다. (055)880-2351

**제21회 차의 날 기념 큰 잔치**

한국차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제21회 차의 날 기념 큰 잔치는 24~25일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 일원에서 열린다. 기념식을 비롯해 선덕여왕 다유회, 두리차회가 우리 차 시연을 선보이고, 올해의 명차도 선정한다. (02)734-5866

**쌍계사 국사암 산사문화체험**

참선과 차, 범패의 본고장인 쌍계사 국사암에서는 25일~27일까지 2박3일간 제2회 산사문화체험 마당을 연다.

25일 국사암 암주 월호스님과 유근자씨(동국대 강사)가 지도하는 불교미술 강좌를 시작으로 차시배지 견학 및 시음, 참선, 가람 탐방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6일 오후 7시에는 쌍계사 팔영루에서 영산재보존회 법현스님과 니르바나실내악단, 쌍계사합창단이 전통 불교음악과 현대불교음악이 어우러지는 작은 음악회도 선보일 예정이며, 27일 오전 10시에는 쌍계사 창건주인 진감국사 추모다례식도 봉행한다. 산사문화체험은 미리 참가 신청을 해야 동참할 수 있으며, 진감국사 추모다례제와 작은 음악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55)883-8801

**한일 차문화 교류회**

포항차인회 제11회 봄맞이 들차회 및 한일 차문화 교류회는 19일 포항문화회관 소공연장 및 야외 잔디밭에서 열린다. 한국 차와 일본 차 행다 시연과 동래학춤과 승무 등이 공연된다. (054)247-8595

**김창배 다실 풍경전**

화가 김창배 씨의 '다실 풍경전'은 6월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담원갤러리에서 열린다. 차 한잔 앞에 놓고 참선에 든 노스님의 모습에서부터 장난스레 차를 끓이는 어린 행자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다실 풍경을 사계절의 변화와 함께 담았다.

서울 전시와 더불어 11일~20일에는 대구 갤러리 수다에서, 6월1일~8일에는 제주 해변공연장 전시실에서 선보인다. (02)736-7445

이은자 기자(ejee@buddhapa.com)



◇'차사모'는 매월 둘째 토요일 무박다회를 열어 갓 입문한 차인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 인사동에 아늑한 공간 차 만들어 마시는 곳

전통문화의 거리 인사동에 차의 향기를 전하는 곳이 생겼다. 국제차문화원의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차사모)이 바로 그것이다.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차를 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문을 연 '차사모'는 원장인 연극인 전무송씨를 비롯해 강화 전등사 범우스님, 부석사 도륜스님, 중앙무형문화재 45호 대금산조 이수자 자연스님, 선화가 범주스님 등이 함께 한다.

'차사모'는 외양으로만 우리 것을 좇는 것이 아니라, 차의 정신은 물론 그속에 담긴 우리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사람 냄새나는 정겨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데 그동안 입소문을 통해 16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회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가입비를 내고 월 1만원의 회비를 내면 된다.

'차사모'에서는 차 만들어 마시는 모든 과정이 개인의 직접 참여로 이뤄지는데, 총무이미애보살이 초보 다인에게 간단한 설명과 지도도 해준다. 녹차를 비롯해 보이차, 말차 등 다양한 종류의 차가 준비돼 있으며, 다구와 다완도 판매한다.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차사모'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차 시음료 2천원을 내야 한다. 한잔에 5~6천원을 호가하는 인사동 찻집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차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음미할 수 있다.

'차사모'는 3월부터 무박다회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열어 아마추어 차인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2일 일반회원을 위한 무박다회에서는 시낭송과 음악감상, 야생녹차 시음, 말차시연을 가졌다.

인사동 한복판 인창빌딩 4층에 자리한 '차사모'는 차 마시는 일조차 얄팍한 상술로 포장해 판매하는 인사동의 뒤틀린 문화에 경책이 되고 있다. (02)735-7114

## 화제의 전시



### 민속박물관 '성철 스님 만장전'

국립민속박물관은 28일까지 박물관내 1,2전시실에서 '부처님 오신 날-성철스님 만장과의 해후' 특별전을 연다.

만장(輓章)은 생전에 친하게 지내던 벗이나 제자들이 돌아가신 이의 덕과 학식을 기리기 위해 지은 만가, 만시, 만사 등을 종이나 비단에 써서 영전에 바치는 것으로 보통 길이 8자, 폭2자 내외이며 다양한 색상으로 만들어진다.

성철(性徹) 스님의 다비식을 위해 제작된 만장은 약 1000여개였으나 그 중 2백여개는 신도와 스님들이 기념 신표로 간직하기 위해 가져갔고, 나머지 776개는 박물관에서 수거, 정리하여 보관해 왔다. 박물관측은 이번에 이 가운데 30여점을 공개한다. '이뭣고', '산은 산 물은 물', '자기를 바로 봅시다' 등 구도와 자각을 일깨우는 내용들이다. (02)720-3138

### 중앙박물관 '전통미술 속 어린이'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달의 문화재'로 조선시대 목동자 · 동녀상들을 모은 '전통미술 속의 어린이' 전을 31일까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목동자상과 함께 다양한 표정을 담은 어린이 목우도 함께 전시된다.

목동자상은 사찰의 명부전에 모신 시왕(十王)을 좌 우에서 협시하거나 응진전의 나한상 옆에 봉안되었던 것들로 6~7cm 크기 4점이 선보인다.

중앙박물관 전인지 학예연구사는 "소박한 조각기법과 다채로운 색채, 순박한 표정들이 어우러진 목동자상들은 목조각 분야에서도 최근에야 그 아름다움이 부각되고 있는 것들"이라며 "종교적 믿음이 배어있는 것들이라 동자상 중에서도 특히 표정이나 기법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02)398-5199





김홍근이 쓰는

## 문학 속의 불교

남쪽으로 난 길을 따라 화순 운주사에 다녀왔다. 달리는 버스의 창 밖으로 산과 들의 신록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봄 햇살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듯한 투명하고 보드라운 연두색 이파리들에서 차마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자세히 보았더니, 그 초록의 빛깔은 나무마다 모두 달랐다. 아니, 같은 나무라도 잎사귀 하나 하나가 서로 다른 색깔이었다. 무심히 볼 때는 그저 다 같은 초록빛으로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하나 하나가 이렇게 미묘하게 다르다니! 초록의 빛깔이 이토록 다양한지 미처 몰랐다.

운주사 같이 초행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가서 본 천불천탑(千佛千塔)은 새삼스러운 감동으로 다가왔다. 수많은 석탑과 돌부처가 흩어져 있는 운주사 계곡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절 뒤편의 '공사바위' 돌의자에 걸터앉아 인공과 자연이 기막히게 조화를 이룬 계곡과 양편 언덕을 내려다보고 있노라니, 이 장엄한 노천법당 겸 천연 야외조각미술관을 처음 디자인한 그 누군가의 심성이 더욱 궁금해지면서, '남도풍(南道風)의 파수군'이라는 송수권 시인의 '운주사 운(雲住寺 韻)'이 생각났다.

송수권 '운주사 韻' (1)

### 돌부처와 탑들 용화세계로 이끄는 듯하다

(一) 아 통성(通性)도 없이 통성(通性)도 없이
이(李)서방이나 김(金)서방 한물댁이나 여산댁들
한밤내 모닥불 지피고 내게 이르는 말
화적(火賊)떼나 되라 하네 활빈당이나 되라 하네
저 들머리 나자빠진 시무룩한 돌미륵들
너는 될거지떼 되지 말고 구름에 가 살지도 말라 하네
(…)

세련되고 화려한 귀족 불교예술과는 거리가 먼 이 '못난이' 돌부처와 소박한 탑들은 단순하고 투박한 서민들의 심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귀족들의 귀의 대상으로 도솔천에 왕생할 상생(上生) 신앙의 미륵이 아니라, 무지한 민중들을 위해 이 '겨우 견디고 살아가는 사바세계'에 내려올 하생(下生) 신앙의 미륵은 마땅히 저런 얼굴을 하고 나타나야 할 것이다.

운주사는 사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그 창건 유래를 알 수 없고 구전으로 전해오는 설화만 분분하다.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나로서는 어쩐지 송수권의 시가 말하는 것처럼, 고려 초에 나라를 잃고 유랑 길에 나선 후백제의 유민들이 이 산골에 흘러 들어와 망국의 원(怨)과 한(恨)을 남도 땅 특유의 시심(詩心)으로 승화시켜 이 비산비야(非山非野)의 운주사 계곡에 나름의 미륵 용화세계(龍華世界)를 이룩한 게 아닌가 하는 가설에 마음이 기우는 것이다.

이 천진한 돌부처와 엉성한 돌탑이 오히려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은 무슨 조화일까? 나는 계곡 입구 바른편 언덕 위 소나무 숲 사이에 서 있는, 소위 '거지탑' 혹은 '동냥치탑'이라 불리는 가장 못생긴 탑 앞에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맛보았다. 근처에 굴러다니는 자연석을 그대로 덤벙 덤벙 얹어놓은 이 오층석탑은 그야말로 '무기교의 기교'의 극치였기 때문이다. (계속)

■문학평론가


# 뼈를 바로 알면 장수가 보인다!

나!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거야!
왜! 의성홍화가 있으니까.




홍화씨엑기스 성분

| | |
|---|---|
| 홍화씨 추출액 | 60% |
| 천연감미료 | 6% |
| 구연산 | 5% |
| 비타민C | 5% |
| 올리고당 | 4% |
| 효소 | 3% |
| 칼슘 | 3% |
| 향료 | 2% |
| 기타 | 1% |

"우리 손으로 재배한 100% 순수국산 홍화씨만을 사용하였습니다!"

## 홍화씨가 몸에 좋은 이유

우리나라 도종 홍화씨의 70%이상을 700여명의 의성우리농민 홍화조합원들에 의해 계약재배되며 화학비에 유해물 뿌리고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으로만 고집한 무공해 천연약재로 100%수매하여 가공한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세계적 골프스타 박세리, 김미현 등 스포츠선수도 튼튼한 골격에서 나오며 프로야구 일본 쥬니찌의 이종범 선수가 부상으로 골절상을 입었을 때도 부친이 일본으로 우리 홍화씨를 가지고가 복용 한 사실이 뉴스보도 를 만큼 유명합니다.
〈96. 6 27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보도〉

뼈의 튼튼함을 위해 호르몬 투여와 고칼슘 섭취는 여러 부작용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어 신중한 선택이 요망됩니다. 지금까지 공인도 개선과 강한 뼈와 근육을 돕는 식물 소재는 오직 우리홍화뿐입니다. 또한 그 홍화의 신비함을 연구하며 특허출원중에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농산물가공저장유통기술연구소〉

의성우리농민 홍화씨 엑기스에는 리놀산이 다량함유되어 우리몸의 나쁜성분을 분해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경북대학교 농산물가공저장유통기술연구소〉

의사, 약사도 적극 권하는 제품입니다 - 교통사고 또는 부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의사나 약사들도 좋은 제품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성우리농민홍화조합법인
조합장 김 호 준

믿을수 산줄은 의성의 특산물로 의성 우리 농민 홍화영농조합에서 자신있게 추천하는 의성홍화씨. 홍화장입니다.

故 仁山 金一勳 先生의 "신약"에서나 최근 연구기관 및 교수님들의 결과 뼈나 우리몸에 좋은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대륙성기후의 황토땅에 유황을 뿌려 의성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홍화는 의성 우리 농민조합의 자부심이자 명예로써 자신있게 추천보증합니다.

1999. 11

정상인의 뼈와 압박 골절된 뼈



정상인의 척추 뼈의양이 감소되어 골절된 척추

홍화씨는 21세기 자연이 인간에게 배푼 은혜의 장수식품

1. 홍화씨는 뼈를 튼튼히게 합니다(골격대謝)
2. 튼튼한 뼈속에서 새롯한 피가 생성됩니다(호르, 헤모)
3. 우리 몸안에 새롯한 피가 흐르면 건강하고 젊어집니다(健康, 回春)
*그러므로 홍홍홍화는 건강과 젊음을 주는 은혜의 장수식품(홍홍홍品)입니다

"홍화씨엑기스는 의성홍화씨 중에서도 제일 좋은 홍화만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뼈가 튼튼해야 만사에 자신이 생깁니다.
■몸이 약하신 분들이나 청소년 성장발육을 도와줍니다.
■관절 및 신경계통에 유익한 식품입니다.
■생리고통의 해방으로 아름다움을 지켜줍니다.
■강한 근골과 근육을 도와줍니다.
■비만오면 팔, 다리, 허리, 아픈데 유익한 식품입니다

엑기스를 드셔야 하는 4가지 이유

홍화씨, 환, 기름, 가루보다
첫째 흡수가 잘된다.
둘째 비위가 약한 분도 드시기가 편리하다.
셋째 소화가 잘 되고 부작용이없다.
넷째 120℃고온 고농축 추출과 한약재를 첨가하여 우리몸의 다른 기능에도 좋다.

1박스를 사시면 1박스를 무료로 더 드립니다
본 행사의 기간이 지나면 1박스를 무료로 더 드릴수가 없습니다



₩396,000 ➡ ₩180,000
(80g×60포×2박스)
할부가 (33,000×6개월) ₩198,000

입금계좌 : 농협 211014-51-025111
〈예금주 최 관 수〉

전국무료전화 080-085-7575
(주문접수:08:00~22:00, 공휴일도 주문가능)

전구에 고객께 무료증정

★주문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3일이내 배달되며 제품을 받으신후 대금지불 하시면 됩니다★

"본 제품은 정부 기관의 제조 허가를 받은 제품 입니다"

"시세원의 좋은세상만들기" SBS출연진 1999년 5월 19일(박상준 탤런트 지도의 주인)

홍화씨는 산삼, 죽염과 함께 3대 신의선물
우리몸에 신비한 것은 죽염이고, 다음은 홍화이고 장수하는데는 홍화가 첫째, 죽염이 둘째이며 건강에는 산삼이 첫째이다. 〈仁山 金一勳 先生의 생전 親筆本 原文에서〉

◆주의 임신한 여성은 홍화씨를 드시면 안됩니다. 씻속에 있는 아기의 뼈가 단단해져서 출산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출산 예정일을 며칠 앞두고 먹는 것은 관찮습니다. 또 아기를 낳고 나서 드시면 산모와 아기한테 다 같이 좋고 산후 조리를 하는 중에도 매우 좋습니다.

이인우 저 『홍화씨 건강법』중에서

원료공급원 홍화씨 홍보원 : 의성우리농민홍화조합법인 / 제조 및 기술개발원 : (주)대보식품 / 판매원 : 의성우리농민홍화조합 판매사업부

## 주인공 되면 선 자리가 참되다


불 따라 흐르는 꽃을 본다

'물따라 흐르는 꽃을…'
서옹 스님 글

"참사람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나눌 수 없는 자기이다. 그렇듯 한정도 없고 형상도 없고 자기부정을 자유로 하는 것이므로 무(無)라고 한다. 무에서 무한의 능동적인 적극성이 나오므로 곧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곳에 서든지 주인공이 되면 있는 곳은 진실하다."

참사람 운동을 펼치고 있는 서옹(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스님의 선 이야기와 삶을 글과 사진으로 엮은 〈물 따라 흐르는 꽃을 본다〉(글 서옹스님, 사진 박보하, 다른 세상)가 나왔다. 이 책의 특징은 선(禪)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삶에 대한 진리를 화두처럼 던져진 서옹 스님의 선문답과 행을 통해 선을 가슴으로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다. 알듯하면서도 이해가 안되는 선어를 화두로 들고 고요히 생각하면 우리 생활 속에 먹고 입고 자는 행위들, 그것이 바로 선의 자리임을 일깨워준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 불교가 제안하는 성공의 길

'반야심경에서 찾아낸…' 황태호 지음



부처님 가르침의 알맹이를 담고 있는 〈반야심경〉을 통하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성공비법을 담은 〈반야심경에서 찾아낸 108가지 성공비법〉(찬섬)가 나왔다.

지은이는 '감성지능 EQ'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황태호(연세대 강사)씨. 그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 책에서 두 가지 비법을 내놓는다.

그 첫째는 견경(見經 · 눈으로 보는 것), 독경(讀經 ·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 사경(寫經 · 손으로 베껴 쓰는 것), 묵독경(默讀經 · 소리내지 않고 읽는 것), 문경(聞經 · 귀로 듣는 것) 등 〈반야심경〉 수련 5개 비결이다. 둘째는 100일간의 기간을 정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 책은 108가지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지은이의 경험과 〈반야심경〉 수련 5대 비법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례를 들어 설명한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 초심자를 위한 기초교리집

'불교를 알고싶어요' 돈관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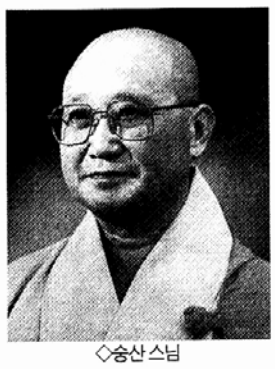
"출가하기 전 불교 교리를 기본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책을 구하러 다녔지만 마땅한 책이 없었다."

신간 〈불교를 알고 싶어요〉(우리)는 한 스님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불교교리서 부족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출간된 책이다. 지은이는 돈관(대구 환성사 주지) 스님. 이 책은 BBS 대구불교방송의 신행상담 프로그램 '열린 불교, 지혜의 샘'을 진행하면서 청취자들로부터 질문받은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책의 내용은 초심자들의 가장 궁금한 사찰예절 등의 불교의식과 문화 그리고 상식에서부터 기초교리, 경전 이야기, 불 · 보살 이야기, 기도 · 수행이야기, 신행이야기 등이 망라돼 있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 서양인 정신 뒤흔든 선문답

##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무심 스님 옮김


◇숭산 스님

*'나는 누구인가.' '오직 모를 뿐.'*

*숭산 스님(화계사 조실)의 이 화두는 우리나라보다 이방인 불자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지난 60년대부터 숭산 스님은 이 화두를 골자로 우리나라 선 불교를 세계에 알려왔다. 지금까지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해외에 건립된 선원과 사찰은 약 32개국 130여 곳(신도 5만여 명).*

신간 〈온 세상은 한 송이 꽃〉(현암사)은 숭산 스님이 40여 년 동안 이방인들을 선의 세계로 이끈 수행법과 사상 등이 담겨 있다.

이 책은 숭산 스님이 서양에 한국 선을 알린 최초의 책(The Whole World is a Single Flower)으로, 외국인들의 정신문화에 일대 변혁을 일으켜 무심 · 현각 스님 등 눈 푸른 수행자들을 배출하는 사상적 토대가 되기도 했다.

### 숭산 스님 선법문 진수

### 365공안 통해 진리 눈뜸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무문관〉 〈벽암록〉 등 불교의 공안뿐만 아니라 도덕경에 나오는 도교사상,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사상 등을 망라해 숭산 스님의 독특한 방식으로 체화된 일종의 '숭산 공안집'이라는 점이다. 한암 · 만공 · 고봉 · 진제 스님 등 우리나라 선승들의 대표적 공안들이 주종을 이루지만 새롭게 창안된 서양식 공안도 있다. '걸어가는 세 남자'의 경우가 그 중 하나다.



스님은 먼저 "세 남자가 걷는다. 첫째 남자는 칼 소리를 내고, 둘째 남자는 손을 흔들고, 셋째 남자는 손수건을 집어 올렸다"는 이야기를 꺼낸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있었다면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가', '그들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상황은 어떤 것인가'라는 3~4개의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할(불법에 대해 개안하지 못한 사람을 경책하는 말)을 외친다. "행동은 모두 다르지만 상황은 똑같다."

여기에 실린 공안들은 모두 스님이 제자와 마주앉아 공부를 점검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독자들도 제자의 입장이 됨은 물론이다.

하지만 숭산 스님은 들머리에서 문자에 집착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스님은 "공안 이야기에 집착하거나 읽는 이의 견해에 매달린다면 그 공안의 참뜻을 깨닫지 못한다. 읽는 이의 견해나 조건, 상황을 모두 놓아 버려야 한다. 그러면 어떤 공안에 대해서도 저절로 정답이 나온다"며 지혜(예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통적인 화두에서부터 숭산 스님이 직접 내린 화두 365개를 담은 이 책은, 365일 하루 한편씩 읽으면서 그 속에 숨은 뜻을 파악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했다. 전 세계에 사원과 선원을 개설, 종교의 장벽을 뛰어넘는 보편적 진리를 제시해온 숭산 스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365일 공안. 그 핵심을 찌르는 질문과 평창(評唱 · 공안에 나타나는 일문일답에 비평을 하거나 동감의 뜻을 밝힌 것)은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루하루 마음을 닦아 나가야 하는지, 존재와 삶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준다

특히 이 책은 숭산 스님의 여러 책 가운데 스님이 직접 설한 선문답을 집약한 결정판이란 점에서 자료적 가치도 높다. 숭산 스님의 제자인 무심(화계사 국제선원장) 스님이 우리말로 옮겼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 도올의 불교이해 바로보기

'도올에게 던지는 사자후' 서병후 지음



도올 김용옥의 불교철학을 다룬 〈화두, 혜능과 셰익스피어〉 〈금강경언해〉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 등 세 권의 저서가 중국과 영국 학자의 글을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불자로 언론 · 방송인으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서병후 씨가 쓴 〈도올에게 던지는 사자후〉(화두)는 이 세 권의 저서를 바탕으로 김씨의 불교관을 비판한 책이다.

서 씨는 "불교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과정 없이, 김용옥이라는 한 개별적 인간의 잣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저지르는 만용을 우리 사회의 지성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출간계기를 밝히고 있다.

지은이는 첫 장에서 김씨의 저서 〈화두, 혜능과 셰익스피어〉 〈금강경언해〉가 중국학자 존 우의 〈선학의 황금시대(The Golden Age of Zen)〉와 영국의 동양학자 R. H. 블리드의 〈선과 영문학(Zen in English Literature)〉를 표절했다며 일일이 원문과 대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도 두 학자의 이름을 김씨의 책 '참고문헌' '인용각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준엄하게 '학문의 정직성'을 묻고 있다. 여기서 나아가 지은이는 김씨의 불교관이 밤새워 참고서 서적을 뒤지는 수험준비식 벼락공부를 통해 얻어진 것이라며, 몰이해와 무지에 가까운 그의 불교이해가 불교를 어떻게 '왜곡' 시키고 있는지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도올의 표절과 왜곡을 증명하기 위한 원문과의 '비교'가, 몇몇 부분에선 위태롭게까지 보인다. 학술적 논쟁이 아닌 텍스트 위주 비판이 지니는 한계 때문이다. 값 9천5백원.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 새로나온 책



▲나뭇가지가 바람을 따르듯이(고산 스님 지음, 들녘)=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후학양성과 포교에 정진하고 있는 고산 스님 법문집. 올바른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선이란 무엇인가…. 불교에 대해 관심 있는 불자라면 한번쯤 품어봤음직한 의문이다. 이 책은 불교, 부처님, 수행, 선 등 불교의 큰 뼈대를 하나하나 짚고 있다. 또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값 8천원.



▲지장경 강의(무비 엮음, 불광)= 부처님도 면하지 못하는 업을 녹일 만큼의 큰 원력을 갖고 있다는 지장 보살. 강인한 원력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힘찬 삶을 살아가라는 지장 보살의 메시지가 담긴 〈지장경〉의 참뜻을 해설한 책. 〈화엄경〉 〈금강경〉 등 여러 경전을 번역한 무비 스님의 명쾌한 해석이 돋보인다. 값 9천5백원.



▲왜 사는가 왜 죽는가(김해석 지음, 해누리)= 시인 김해석 씨가 지혜롭고 건강한 삶의 길을 제시한 인생 지침서. 지은이는 다카하시 신지의 영혼이론을 통해서 인간의 탄생과 죽음에 관한 의문, 마음의 실상, 마음과 육체, 마음과 우주와의 관계, 건강하게 사는 방법 등 우리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질문에 대해 답한다. 값 1만2천원.



▲학교 너는 아직 내 사랑인가(윤지형 지음, 삼진기획)= 교단에 선지 올해로 12년째, 복직한지 8년 째 되는 한 중견 교사가 우리나라의 교사는 누구이며 교사인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화두를 붙잡고 쓴 교육현장 일지. 그는 고교생을 상대하는 곤대로,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교장 선생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평교사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 과정을 교단일기 형식으로 엮었다. 값 8천원.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크하르트 톨레 지음, 노혜숙 · 유영일 옮김)= 마음으로 일으키는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을 만끽할 수 있게 안내해 주는 영혼을 위한 지침서. 지은이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 때 우리 삶이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세미나와 강연회 그리고 개인상담을 통해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은,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 창조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일관된 주장을 한다. 값 8천8백원.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 순위 | 도 서 명 | 저 · 편자 | 출 판 사 |
|---|---|---|---|
| 1 | 선의 나침반 | 현 각 | 열 림 원 |
| 2 |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 선 재 | 디자인하우스 |
| 3 | 라마나 마하르쉬 저작 전집 | 대 성 | 탐 구 사 |
| 4 | 금강경 강의 | 혜 거 | 부디스트웹 닷컴 |
| 5 | 도올에게 던지는 사자후 | 서 병 후 | 화 두 |
| 6 | 물 따라 흐르는 꽃을 본다 | 서 옹 | 다른세상 |
| 7 | 봄 여름 가을 겨울 | 법 정 | 이 레 |
| 8 |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 청 견 | 붓다의 마을 |
| 9 |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 무 심 | 현 암 사 |
| 10 | 방편개시 | 허 운 | 여시아문 |

도서 안내: (02)737-0695


성하출판 영업부 (02)2273-4452

기(氣) 치료 전문가 초능력자 지선 스님의

#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당신의 운명을 깨치는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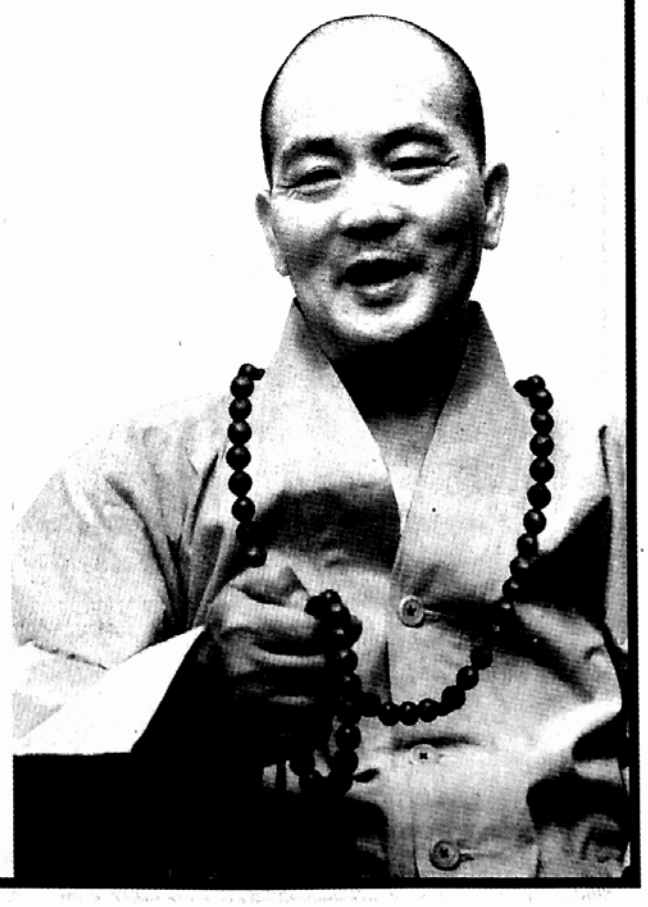
• 지선 스님 지음 (대구 팔공산 자비사 주지 스님)
• 신국판 · 276페이지 정가 9,000원
• 책속 부록 : 기적을 이르키는 지선스님의 신비의 달마도

"살아있는 에너지, 우리 몸엔 氣가 있다"

21세기, 과학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다.
과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4차원의 정신세계 기(氣)'.
질병과 고통 등의 갖가지 인생문제의 해답을
氣 전문가 지선 스님에게서 얻는다.
'좋은 기'를 받느냐 '나쁜 기'를 받느냐에 따라
무병장수 할 수도 단명병사 할 수도 있다.
좋은 기를 얻는 방법만 터득하면 누구나 다 행복해 질 수 있다.

"인간의 운명은 氣에 따라 바뀐다"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이다', '노력과 성공은 정비례한다',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등의 좋은 금언이 많지만 이것은 인간의 상식적인 선에서의 말씀이고, 4차원의 정신세계에서 볼 때에는 전혀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우선은 '기'의 영향으로 인간 삶의 행 · 불행, 인간사의 기쁨과 슬픔이 교차한다고 본다.쉽게 말하면 모든 즐거움과 슬픔, 기쁨과 고통, 무병장수와 단명병사 등 인간사의 행복과 불행의 원인은 이 '좋은 기'와 '나쁜 기'의 영향으로 그 첫째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필자는 자신이 전개하는 논리와 현실적 사례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뢰하기만 하면 자신의 환경을 좋은 기로 변형시킴으로써 그 기의 작용으로 행복한 인생의 촉진제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현실의 우환과 불행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자신과 가족들이 밝은 미래의 인생을 보장받고 싶은 사람, 미래에 큰 삶을 영위하고 싶은 사람, 현재 불행속에 있는 남녀들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책,평생 일년 열두 달 편안하게 살게 하는 지혜의 그릇이 바로 이 책이다.



# 기(氣)아는 만큼 행복하다

지선 스님의 기(氣) 강의 전국 강타!
• 한국정신과학회 세미나
(2001년 3월 28일 대전 KAIST강당)
• MBC-TV 아카데미 출연
(2001년 5월 4일 안동 MBC-TV 방송국)

# "원효 스님 교리논쟁 회통 불교대중화"

## '원효의 대중교화와 사상체계'로 올해의 논문상 받은 남동신 교수



◇"분에 넘치는 상을 받게 됐다. 더 열심히 연구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한다"며 수상 소감을 밝힌 남동신 교수.

원효 스님(617~686)의 화쟁(和諍)이나 일심(一心)사상을 역사적 관점에서 조명한 논문 '원효의 대중교화와 사상체계'가 한국사상사학회에서 제정한 '올해의 논문상'의 영예를 안았다.

남동신 교수(덕성여대)는 논문을 통해 "원효 스님은 7세기 신 · 구역(新 · 舊譯) 불교간의 교리 논쟁을 회통시키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상체계를 수립했고, 그것을 토대로 거사불교를 지향하는 불교 대중화를 실현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원효 스님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민족적 자부심만을 고취하는 인물 연구인 점과 비교해 원효 스님의 사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남 교수는 먼저 인도에서 수학하고 중국에 돌아온 현장 스님(602~664)의 행보에 주목했다. 인도불교를 배우고 귀국한 현장 스님은 1세기부터 6세기까지 중국에서 번역된 한문 경전의 오류를 지적하고 새로운 번역(新譯)을 시도했는데, 이 때부터 동아시아 불교계에서는 신 · 구역(新舊譯) 불교간의 교리 논쟁이 불붙기 시작됐다. 구역은 구마라집의 번역을 통칭한 것으로, 당시 현장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의 본 뜻을 훼손시킨 의역이 많다는 이유로 구역 경전 자체를 부정했다.

남 교수는 "신역과 구역 불교간의 갈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사상을 찾는 과정에서 원효 스님의 화쟁이나 일심사상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 교수는 "스님은 이 사상을 현실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승속불이(僧俗不二)의 거사불교를 지향했다"고 말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일심 사상에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 평등한 인간관, 이타적 인간관계가 내포되어 있기에, 전래의 무교가 지닌 신(神) 중심의 세계관, 차별적인 인간관을 극복한 새로운 사유체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남 교수는 "원효의 화쟁이나 일심사상은 〈기신론〉에 의해 철학적 토대가 구축되었고, 〈금강삼매경〉에 의해 실천성을 부여받았으며, 최종적으로 〈화엄경〉에 의해 완성됐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결론에서 "일심(一心)으로 돌아가, 중생들과 함께 나누는데 일생을 바친 원효의 삶은 많은 '해석의 공간'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며 "그 공간을 조금이라도 좁히고자 하는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사상사학회의 논문 심사에 참가한 최병헌 교수(서울대)는 "원효를 연구한 논문과 저술은 700여 편 가량이지만, 겨우 원효 사상의 윤곽을 그릴 수 있을 정도"라며 "역사적 관점에서 원효 스님의 사상을 배경을 추적한 남 교수의 논문은 원효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84년 창립된 한국사상사학회는 매년 주요 논문을 선정, 수상해 왔다. 남동신 교수의 수상식은 12일 오후 4시 이화여대 인문관 108호실에서 열린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학술기행 中 산동반도의 한국불교

# 해상교류 활발할때 불교부흥

### 구법의 바닷길 · 끝

조영록 〈동국대 교수〉



구법승은 법을 찾아 어느 곳이든지 마다하지 않는다. 길이 있으면 따라 가고, 길이 없으면 개척하면서 길을 낸다. 우리가 아는 한 신라의 혜초 스님은 세계에서 가장 먼 길을 여행한 최초의 구법승이다. 구법순례를 성공적으로 마친 분들이야 말할 것이 없지마는 구법행각에 올랐다가 후세에 그 이름조차 전하지 못하고 뜻하지 않게 불귀의 객이 된 분들이 얼마나 많았을 것인가! 북송 신종 원풍연간에 양경략(楊景略)이 고려에 사신으로 갔다가 풍랑을 만나 구사일생으로 귀국하여 판교에 해신묘를 세울 것을 주청하자, 소동파는 시를 지어 "지난날 삼한(三韓)에 사신가다가 물고기 밥이 된 자 얼마였던가? 돌아와 신사(神祀)를 지어 뭇 상인들로 하여금 분주히 활동하게 하도다. …" 하여 바다길이 얼마나 험난하였던가를 알게 해 준다.

### 당나라 이전 왕래 잦아

우리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의 해상세력과 불교의 성쇠는 불가분의 함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는 우선 산동성 답사지역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쉽사리 추정할 수 있다. 우리가 답사한 한국관련 불교유적을 정리해 보면 첫째 당(唐) 이전에는 의상대사가 경유한 등주와 적산법화원이 있는 북부 연해지역이 교섭의 중심지였고, 둘째 송(宋) 이후 대각국사가 상륙한 판교진 이남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그리고 셋째 조선시대 구법승 만공 스님이 주석한 태산 등으로 그 역사적 추이를 대별하여 볼 수 있다.

첫 번째 북부의 등주로는 한중교류에 가장 일찍부터 이용되었던 항로로써 의상대사와 장보고 선단이 내왕하면 이 길에는 두 갈래가 있었다. 항해술이 미숙하던 초기에는 등주에서 대련쪽으로 북상하고 다시 연안을 따라 동진하여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남행하는 안전한 길이 그 하나이다. 항해술이 발달한 후기에 이르면 다소의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직항로를 택한 것이 또 다른 길이다. 의상대사의 구법경로나 장보고선단의 활동 무대는 물론 후자에 속한다. 등주로를 택하는 스님들의 구법행로는 주로 오대산을 비롯한 낙양과 장안, 그리고 종남산 등 화북지역으로 향하기 마련이었다.

두 번째 송대 이후가 되면 북방민족의 위협으로 인하여 남방항로가 발달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0세기 이후 이른바 정복왕조요(遼)의 대두로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크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으니 한중관계는 전같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방의 등주로는 폐쇄되고 교섭로가 남방으로 이동하는 일이 불가피하였다. 대각국사가 산동 남부연안 판교진으로 상륙했다가 주로 절강성 일대에서 구법행각을 벌이다 명주에서 출발하여 귀국하게 된 것도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이미 강남지역으로 옮겨 온 때문이었다.

세 번째 명 · 청(明 · 淸) 대에 이르면 철저한 쇄국정책으로 말미암아 동아시아 세계는 자유로운 해상교류의 길이 봉쇄되었다. 명태조는 "조각배도 나라의 허가없이는 바다에 띄우지 못한다."는 선언으로 한중간의 조공(朝貢)은 오로지 육로로만, 그것도 정해진 요동로(遼東路)에 의해서만 허가됐다. 일본의 경우는 십 년에 한 번 조공을 명주(明州, 현 영파) 일항에 한정하여 시행토록 허용되었을 뿐이다. 이리하여 원(元) 대만 하더라도 육해 양로로 빈번하던 한중 구법의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다. 태산불교의 중흥조 만공 스님도 밀항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으니 아마도 해동의 입화구법 스님으로서는 최후의 분이며, 명 · 청을 통해서는 유일한 분으로 생각된다.

### 明 · 淸代 요동로만 허용



◇의상대사의 구법경로나 장보고 선단의 활동무대가 되었던 한 · 중간 직항로.

불법을 구하는 길은 바로 붕상의 길과 일치하고, 사신의 행로와도 일치한다. 한 · 중간의 불교교류가 가장 왕성하던 당나라 이전까지의 등아시아 국제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활발하였다는 사실, 여기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



# 월인석보 권20 초간본 발견

훈민정음 창제이후 최초의 불경언해서인 〈월인석보(月印釋譜)〉 가운데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권20 초간본(사진)이 새로 발견됐다. 한성대 문헌정보학과 강순애 교수는 최근 한성대에서 열린 서지학회 학술대회에서 조선 세조 5년(1459) 간행된 〈월인석보〉 가운데 권20을 새로 발굴, 공개했다. 초간본으로는 17번째로 발견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권20 초간본은 모두 117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에 실린 노래 중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노래가 71곡이나 수록돼 있다. 가운데 일부분이 훼손돼 있고, 뒷부분 2~3장이 빠져있긴 하나 전체적인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부처님이 가섭에게 법을 전하는 정법안장의 내용과 부처님이 전생에 행한 효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월인석보〉는 세종이 석가의 일대기를 칭송한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쳐 세조가 다시 엮은 것이다. 〈월인천강지곡〉을 본문으로 하고 〈석보상절〉을 주석으로 달았는데, 여기에 〈석보상절〉의 내용에 해당하는 불경을 한글로 번역해 덧붙였다. 이 '협주세분'은 최초의 한글대장경인 셈이다.

이번에 권20이 발견됨으로써 〈월인석보〉는 권3, 5, 6, 16, 24 등 5권만 제외하고 모두 20권이 확인됐다. 권형진 기자

# "나옹법통 조계종까지 이어진다"

## 허흥식 교수 주장



"나옹 스님의 법통은 조선시대 선종의 주류를 이루었고, 오늘날 대한불교 조계종에까지 그 맥락이 계승되고 있다."

허흥식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사진)는 9일 불국사와 경북 영덕군이 공동 주최한 학술발표대회에서 '나옹선사생애와 계승자'를 발표하고, '나옹 법통설'을 주장했다. 지금까지 불교학계는 〈불조종파지도(佛祖宗派之圖)〉, 〈해동불조원류(海東佛祖原流)〉에 근거해 태고의 법통을 이어 왔다는 견해를 통설로 받아들여 왔다.

허 교수는 나옹 법통설의 근거로 1307년에 실시된 승과 시험인 '공부선(功夫選)'을 들었다. 허 교수에 따르면 고려시대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화엄종, 천태종 등의 종파간의 갈등이 심했는데, 이 시험을 토대로 조계종은 명실상부한 대표 종파로 떠올랐다. 당시 나옹 스님은 국사로서 이 시험을 총괄했다.

또한 허 교수는 태고 스님이 왕사의 직책을 맡아 정치적 문제에 깊이 개입했던 것과는 달리 나옹 스님은 39세에 중국에서 귀국한 이래 회암사 등 주요 사찰의 주지를 맡아 교화에 주력했다는 데에도 주목했다.

이외에도 허 교수는 〈동문선〉의 기록을 근거로 조선 전기에 활발히 활동했던 환암 스님, 무학 스님 등은 나옹 스님의 법을 계승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허 교수는 결론에서 '나옹 스님이 사상계에 끼친 영향과 위치를 불교계 및 성리학계와 연결시켜 거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heritage.go.kr

# 사이버 박물관 개관

## 문화재 10만여점 검색

박물관에 가지 않고도 안방에서 전국 27개 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재와 유물을 검색하고, 3차원 입체영상까지 볼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문화관광부는 7일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서비스(www.heritage.go.kr)를 개통했다.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 9개 국립지방박물관, 8개 대학박물관 등 전국에 흩어진 10만여 점의 문화유산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사이버 박물관이 문을 연 것이다.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89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이 서비스는 통합검색 기능을 통해 지정종목별 시대별 지역별 지정유형별 유물정보별로 유물을 검색할 수 있다. 각 유물엔 명칭과 출토지역, 재질 용도 소장처 등 자세한 설명과 사진을 곁들였다.

문화재청도 7일부터 사이버 문화재탐방 코너를 신설하는 등 홈페이지(www.ocp.go.kr)를 새롭게 개편했다. 권형진 기자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오분향 - 각종 기도와 제사용)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분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 의식용 목욕향도 있습니다 ◆



生氣香 (생기향 - 건강용)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석씨향방의 특허품 실용신안 등록출원 제 2001-00009755 · 특허등록출원 제 2001-00139149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방석

방석의 내용물은 쑥과 인동, 부자, 당귀,계피, 인삼 등 32종의 한약재료로 만들었습니다. 향기방석을 사용하면 냉이 없어지고 불쾌한 냄새가 사라지고 치질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이 환(丸)으로 되어 있어 지압효과가 뛰어나고 오랜시간 앉아 있어도 피곤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 크기 40cm×40cm ▷ 무게 1.5~2kg



32종의 한약재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베개, 방석

베개의 내용물 약재는 32종의 약재가 들어 있습니다. 24절기에 상응하는 약재와 팔풍을 막아내는 약재를 혼합하였습니다. "예" 국화베개, 박하베개, 메밀베개, 질병치료용 베개(두통, 중풍 등) 석씨향방의 베개는 향기롭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의 사진은 베개를 펼쳐놓은 상태입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편안한 베개 또는 높고 낮게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 크기 70cm×40cm ▷ 무게 3~4kg



※ 모양은 다양하게 변형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중국 일본 수출 ※

국민은행 076-21-0658-363
농 협 100016-52-018512 예금주 : 김 남 서

☎ 02)538-7161, 016-756-2227 http//:www.hyangbang.com

天物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오가피 건강 상담 : 02) 455-7555

# '밝은 별' 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깨달음' 이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 달마이야기



31

### (30) 소실산의 석굴(石窟)

당시 중국 땅에서는 대승과 소승의 파벌다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비단 중국뿐만 아니었다. 천축에서조차 이런 다툼은 빈번하게 일어났고, 싸움은 점차 격렬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을 아는 달마는 소림사 주지 혜광이 소승을 고집하고 대승을 거부하는 까닭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는 문득 천축의 대승공종(大乘空宗)의 비조(鼻祖) 용수보살(龍樹菩薩)이 생각났다.

용수보살은 기원전 2세기 전후의 인물이다. 천축의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전을 익혔고, 학문에도 뛰어난 소질을 보였다. 천문지리(天文地理)에서 도위비참(圖緯秘讖), 제가(諸家)의 도술(道術)에 이르기까지 훤히 꿰뚫어 모르는 것이 없었다. 성격까지 호방했던 그는 점차 세상을 깔보기 시작했고, 이는 방탕한 생활로 이어졌다. 그는 벗들과 어울려 주색에 빠져 지냈다. 마침내 왕궁의 궁녀에게까지 손을 뻗친 그와 벗들은 궁녀와 정을 통하다 발각되고 말았다. 두 벗은 체포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그는 간신히 몸을 피해 달아났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그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 대승과 소승 파벌다툼

마음을 굳게 먹은 그는 곧 출가하여 공문(空門)으로 들어가 정진을 거듭했다. 여기에서 그는 일체개공(一切皆空)을 선양하는 수많은 논저(論著)를 저술했다. 어느덧 수많은 승려와 신도들의 존경심이 그의 한 몸에 쏠렸다. 자연스럽게 그는 대승불교의 공종(空宗)을 창립하여 그 시조(始祖)가 되었다.

용수가 말하는 '일체개공' 은 흔히 '공(空)' 을 최고로 삼는 사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는 〈중론(中論)〉이라는 저서에서 "얻는 것도 없으며 이르는 것도 없다. 또한 영원한 것도 없으며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도 없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열반(涅槃)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열반' 조차도 '공(空)' 이라고 여겼다.

용수의 이러한 '일체개공' 사상은 당시 천축의 소승파 불도들로부터 맹렬한 비난과 반대를 받았다. "소승파들은, 듣고 나면 마침내 모두가 공(空)인 것 같아 마치 칼로 베인 것처럼 상심했다"고 당시의 기록은 적시하고 있다.

선학(禪學)의 관점에서 볼 때 소승파의 주장은 '유(有)' 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들은 '아공(我空)' 을 승인할 뿐 '법공(法空)' 은 인정하지 않았다. 주체적인 '아(我)' 만이 '공(空)' 일 뿐 그 밖의 객체는 모두 '유(有)' 라는 이야기이다. 용수에 대한 소수파의 반대와 공격은 날이 갈수록 드세졌다. 용수는 어쩔 수 없이 조용한 곳으로 몸을 피해 세상을 등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

달마는 용수와 자기 신세를 비교하면서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애써 용수보다는 낙관적인 처지에 있다고 자위했다. 달마는 머리 속에 용수의 제자 제바(提婆)를 떠올렸다. 제바도 역시 바라문 출신이었다. 그는 스승 용수와 마찬가지로 많은 책을 읽어 박식했으며 재변(才辯)이 절륜(絶倫)하여 천축에서 그 이름을 떨쳤다. 용수보살이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대승공종의 후계자가 되었다. 그는 〈백론(百論)〉이란 저서를 남겼는데 이것은 스승 용수가 지은 〈중론〉, 〈십이문론(十二門論)〉과 함께 '삼론(三論)' 으로 꼽힌다. 이 '삼론' 이야말로 대승공종의 기본 경전이다.

제바의 신행(信行)은 마침내 남천축 왕의 눈에까지 띄게 되었다. 왕은 제바를 불러 들였다.

"그대는 누구인가?"

왕의 물음에 제바는 거침없이 대답했다.

"빈승은 일체지인(一切智人)이옵시다."

감히 왕 앞에서 모든 것을 안다고 장담하다니. 남천축 왕은 행여 잘못 듣지나 않았나 싶어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갖가지 일로 시험해 보니 과연 세상사에 모르는 것이 없었다.

왕은 영(令)을 내려 나라 안의 모든 승려를 불러모아 제바와 대론(對論)하게 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적수가 되지 못했다. 모두가 무릎을 꿇고 제바의 제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그 가운데는 물론 소승파의 승려들도 들어 있었다. 소승파의 한 제자는 그의 스승이 패했다는 사실에 심한 치욕을 느꼈다. 그는 복수할 마음으로 칼을 갈았다. 제바가 '공' 이라는 칼로 스승을 곤경에 빠뜨렸으니 자신은 '진짜 칼' 로 제바를 쓰러뜨리겠다고 다짐했다.

우연히도 제바는 경행(經行)하는 중 그 제자를 만났다. 제자는 비호같이 달려들어 제바의 배를 한칼에 베었다. 피가 터지면서 오장(五臟)이 땅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제바는 오연(悟然)하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 석벽사이를 누비면서

"내가 전생(前生)에 죽인 것이 바로 너였구나!"

달마는 이런 고사(故事)를 생각할수록

**소실산을 떠날 생각은 없었다**
**반야다라가 암시한 땅인데**
**섣불리 떠날 수 있겠는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깨달음의 세계를 추구한다는 이들이 서로 파벌을 갈라 싸움을 하고, 게다가 살인까지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냉랭한 눈으로 혜광을 쏘아보았다. 혜광도 작심한 듯 달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달마는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붓을 집어 들었다. 먹물을 흠뻑 찍어 북쪽 벽 앞으로 다가가더니, 숨도 쉬지 않고 일필휘지로 열 자의 글을 써 내려갔다.

- "이 곳에서 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해도(此地不容僧) 중을 받아들일 곳은 절로 있을 것이다(自有容僧地)."

글을 다 쓰자 붓을 던지고는 근엄한 목소리로 '아미타불!' 을 외쳤다. 소매바람을 일으키며 방문을 나선 달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문 밖으로 사라졌다.

달마는 소림사를 나서긴 했지만 소실산을 떠날 생각은 없었다. 반야다라 사존(師尊)께서 계송에서 암시하신 땅인데 어찌 섣불리 떠날 수 있겠는가? 그는 산문 밖에 서 있는 두 그루의 계수나무를 다시 한 번 올려다보면서 창성할 창(昌)자를 몇 번이나 입 속에서 되뇌었다. 이 곳이 스승이 지적한 불연의 땅이 맞다면, 반드시 창성할 길을 찾아야 하고 또 창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청정한 곳을 찾아야 했다. 그 곳에 머물면서 정신을 집중하여 번뇌를 제거하고 맑은 마음으로 좌선에 임함으로써 선정(禪定)의 법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첩경이라고 생각했다.



◇일섭스님 作 達摩相師像(종이에 채색, 84.5×62cm, 송광사 삼일암 방장실 소장).

달마는 선정의 법이야말로 성불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왔다. 달마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6년 고행 끝에 좌선으로 얻은 깨달음의 경지가 무엇인지 분명 알고 있었다. 그의 스승 반야다라는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 좌정하여 새벽녘에 본 명성(明星)의 실상을 달마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 가르침을 일컬어 불립문자(不立文字) 또는 교외별전(敎外別傳)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명성, 즉 밝은 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번쩍 하는 '깨달음' 이다. 머리 속에서 빛나는 별이 보이지 않고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는 법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一)의 진법(眞法)이 다다르는 최고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진법을 바로 알면 사람의 관념이나 의식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론 관념이나 의식을 바꾸지 않고는 진법을 배울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달마는 자신의 젊은 날을 회상했다. 애당초 달마 자신도 소승이 아니었던가. 스승을 만나 대승으로 옮겨가 진법을 배운 일이 그야말로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갔다. 달마의 얼굴엔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혜광을 비롯한 소림사의 승려들이 비록 지금은 소승에 사로잡혀 있지만 일단 고집과 편견의 멍에에서 벗어나 깨닫게 되면 소승을 버리고 대승으로 옮기는 것도 어려울 것 같지가 않았다. 그들이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도모하게 되면 나 달마에게 찾아와 법우(法雨), 곧 진리의 비를 걸(乞)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

달마는 생각이 이에 미치자 소림사가 마치 자가 품안에 든 듯 마음에 들었다. 반야다라 존자께서 지시하신 불연을 이루어 동쪽 땅에서 진법이 펼쳐진다고 생각하니 절로 마음과 몸에 상쾌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그는 신바람이 난 듯 소실산의 깎아지른 듯한 석벽 사이를 누비면서 바위를 타기 시작했다. 그가 찾는 청정한 터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싶어 쉬지 않고 산을 오르내렸다.

그는 기(旗) 고(鼓) 검(劍) 인(印) 종봉(鐘峰) 등 오대 산봉을 모조리 답사했다. 그동안 무려 수십 개에 이르는 바위굴과 토굴을 찾아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가 찾고 있는 터가 아니었다. 단지 비바람만 피할 수 있다든지 아늑하다는 것만으로는 선정의 터전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찾아다닌 지가 벌써 3일이 지났다. 수없이 돌고 돌아도 결과는 여전히 허사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언제나 종착지점은 한 곳이었다. 소림사 뒤쪽 가파른 산등성이에서 발이 멈췄다. 나흘째 되는 날 자시(子時), 달마는 무릎을 꿇은 궤좌의 자세로 좌정에 들었다. 그는 나를 잊은 채 무한의 시공 속으로 빠져들었다. 섬광 같은 빛이 내려꽂혔다. 그 빛을 타고 스승 반야다라 존자가 나타났다. 스승은 혼자가 아니었다. 바로 옆에 신선을 모시고 있었다. 반야다라는 그 신선을 치우천황(蚩尤天皇)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분이 득도한 동굴이 바로 산등성이 밑에 있으니 그 곳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달마는 눈을 번쩍 떴다. 빛은 잔영을 남긴 채 사라졌다. 달마는 빛이 내려꽂혔던 절벽 밑에서 신비한 기운을 느꼈다. 그 곳에서 빛의 여울이 넘실거리는 듯싶었다. 달마는 어둠을 가르고 산등성이를 내려왔다. 몇 개의 바위를 타고 넘으며 서기가 감도는 절벽 밑에 당도했다.

열 길쯤 되어 보이는 깎아지른 듯한 바위는 기이하게도 온갖 나무와 풀로 덮여 있었다. 동굴이란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러나 달마는 동굴이 있으리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믿음은 그만치 확고했다. 갑자기 그의 눈앞에 스승과 치우가 한 몸이 된 모습으로 어른거렸다. 그 모습은 뒤덮인 관목을 뚫고 이내 바위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달마는 눈앞이 환해지는 느낌이 들어 정신 없이 바위 쪽으로 달려갔다.

## 방 한칸 남짓한 동굴

관목으로 덮여 있는 쪽을 헤쳐보니 과연 동굴이 그 곳에 입을 벌리고 있었다. 동굴에선 따뜻한 기운이 새어나왔다. 마치 신선의 체온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달마는 기뻐서 미칠 것만 같았다. 빠른 손놀림으로 나무를 헤치고 풀을 뽑아 길을 냈다. 그는 동굴 안으로 고개를 내밀면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동굴의 크기는 한 칸 남짓 방만했다.

멀리 동이 트면서 한 줄기 햇빛이 동굴 안으로 스며들었다. 동굴 안은 그 빛으로 환상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어둠으로 감싸인 굴 안은 마치 태초의 혼돈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듯 빛과 어울려 등실거렸다. 달마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 하나가 되었다. 해가 솟아오르자 빛의 각도가 바뀌었다. 굴 안도 그에 따라 조명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 속에 우주의 변화 전체가 깃들여 있는 듯싶었다. 달마는 무의식적으로 손에 든 염주를 굴리기 시작했다. 우주의 순환과 변화를 염주알 속에서 짚어보기라도 하듯 열중했다. 그는 낭랑하게 '아미타불' 을 연호했다.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불광불교미술원
원장 박 갑 용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하천 1리 418-2
▶ 전화 : 031)584-3952

금강정사
포교원 신도일동
■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3가 458번지
TEL : 02)2238-3285

내설악산 백 담 사
주 지 일 문
대 중 일 동
산내암자
봉정암 감원 무산
오세암 감원 일음
▶ 주소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690번지
▶ 전화 : 033)462-6969 팩스 : 033)462-3224

국제전화 00753
이제부터 국제전화 거실 때는 00753 만 누르세요!
한국 → 미국 : 180원/분
미국 → 한국 : 220원/분
안전하고 편리한 후불제 국제전화! 전세계 280여개 지역 서비스중
미국 로밍 개통! -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하시고
요금은 저렴하게 한국에서 후불로 내시면 됩니다

| | | | |
|---|---|---|---|
| 미 국 | 180원 | 유 럽 | 380원 |
| 캐 나 다 | 380원 | 러 시 아 | 690-770원 |
| 일 본 | 290원 | 호 주 | 420원 |
| 중 국 | 760원 | 뉴질랜드 | 420원 |

■ 가입비, 연회비, 기본료가 없습니다. 할인시간대 통화시 30% 할인
■ 이용문의 : 도시폰 고객센타 TEL : 00753 또는 (02)511-6333
(주) 도화텔레콤 Dohwa Telecom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5-18 영빌딩
http://www.dosiphone.net//
E-mail : helpdesk@dositel.com

발명특허NO. 0060218

# 現像所願香

현 상 소 원 향

소원성취 이제 더 이상 남들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건강, 사업, 학업등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現像所願香이 소원성취의 기쁨을 선사합니다.
소림사의 달마대사가 오랜 面壁修道로 달마의 형상이 面壁洞 벽면에 投影되어 나타나듯이 現像所願香에도
여러분의 念願이 투영되어 나타납니다. 소원의 성취는 僥倖이나 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現像所願香이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을 증폭시켜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本 製品의 特性**

本 現像 所願香은 燃燒된 後에도 남은 재가 부서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本來의 形態를 維持함은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燃燒가 進行되면서 재 위에 부처님의 形象과 함께 貴下께서 念願하시는 文句가 나타나는 本社의 發明特許品입니다. 本 香은 정신을 맑게 하여주고 心身의 氣運을 북돋아 주는 人體에 有益한 最上質의 天然材料만을 嚴選하여 使用하였으며 一切의 人工香料는 添加하지 않았습니다.
人體에 有益함은 물론 燃燒時 담배냄새, 기타 惡臭제거에 卓越한 효과로 室內의 공기가 맑아졌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원재료 : 침숯, 지단향, 모과향, 목향, 백단향

**使用時 有意 事項**



· 향에 표시된 부분이 정면 하단에 오도록 하여 향꽂이에 꽂아 주십시오.
· 연소된 향이라 할지라도 화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화재 및 화상에 주의하십시오.
· 향이 굵은 관계로 처음 불을 붙이실 때 시간이 여타 향에 비하여 조금 더 요구됩니다.
· 제조 유통 중 파손된 제품은 본사 또는 판매점에서 교환하여 드립니다.

(株) 富好 본 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66 ☎ (02) 733-1235
대구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38-13 ☎ (053) 764-6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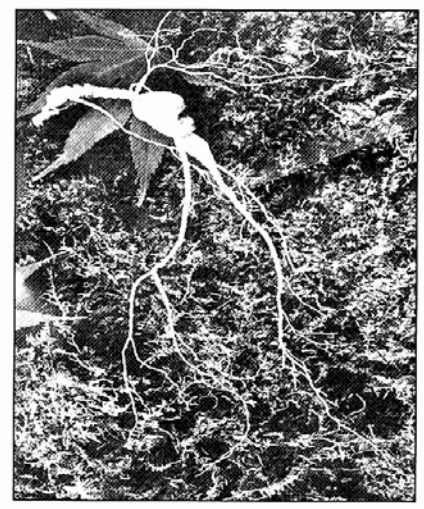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핀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四柱命理와 일반 五行術의 限界를 克服시킨

# 六壬來情秘法

-육임래정비법-

「易術活人天役者用」神示出刊

改訂增補版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17시까지 총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정석하시면 이 책을 더 빛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빛게 보실 수 있는 요령이 녹화테이프로 제작되어
60,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십시요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初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해당 국수(局數)에, 들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천역자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난해한 이론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단언의 시간만 관해 보면 순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관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점하관이나 사람이나 부속품이나 회의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거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혼백(원인사)는 묻지 않고도 그 날 그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 버릴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아래에,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천성이 악한지 선한지 ●나에게 이익줄 사람인지, 피해나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인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이는 초사란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서도 즉시 똑부러지게 알아 맞혀질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來人의 사정을 採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吉凶은 떠나 부제점 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일주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事意 및 事情을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방불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器 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流布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무속인·스님·의사 등 活人專門人에게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 책 값 : 삼십오만원(₩350,000)
-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책크기는 가로21cm × 세로30cm)
  (흑색 표지 · 양장제본 · 금박 · 1960페이지 · 미색용지 · 옵셋인쇄)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리
- 배 달 : 입금 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함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므로 탑왕, 또는 그 이튿날 받아 보시게 됩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19호 일성빌딩 401호

도서출판 복 문 대표 김 나 리

· 등관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1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천역자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 된 명성과 하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실망되실 때는 즉시 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시(每日·時)별로 적시하여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자작인 筮卜子 睦史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출판 卜 問 배상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승진사·구재사·시험사·구직사·결혼사·임신사·가정사·이주사·소송사·질병사·매매사·여행사·도난사·심인사·상면사·채용사·투자사·승부사·가격사·농경사·묘지사·기후사



# 진성 석재 예술원



최고의 장인정신으로 뭉쳐진 '진성석재 예술원'은
모든 작품들을 오직 불심으로 제작하여 불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옥에관한 문의를 해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청옥, 황옥, 백옥)

※ 순옥 조각제품 주문 제작 환영 ※



청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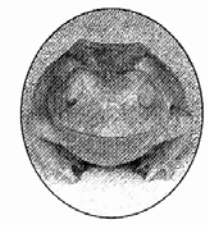


백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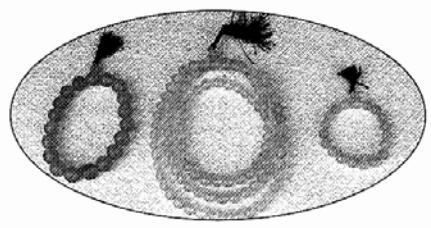


황 옥

▶대한민국 석공예 초대 명장



장수거북(청옥·화옥)



단주 · 108염주 · 합장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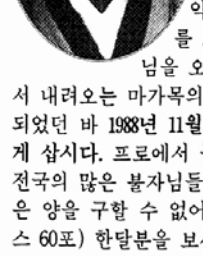
두꺼비(청옥·화옥)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155-2 (대표 : 이진억 명장 : 이석규)
■ TEL : 031-527-6778 (팩스겸용)
■ H P : 011-9046-6981
■ e-mail : LJU729@hanmail.net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 [ 마·가·목 ]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및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여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016) 222-7701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청강 대 진 합장



# 현 시대의 火(불)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石楠葉(석남엽)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유정, 정자결핍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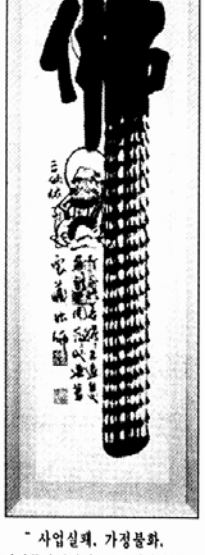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용자)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회랑방 (korea art gallery)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www.korea-art-gallery.org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 사업실패, 가정풍파, 자녀문제,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 0058
E-mail unjang21@kornet 21. net

● 주문 신청방법 우체국 013698-02-04590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돌탑아미타부처님영험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教藝術文化院

# 닥치는 일 무심으로 놓으면 절로 해결

##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 날 법문

일년이 지나고 나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면 어저께도 과거입니다. 부처님 오시는 그 날이 어느 날이냐…. 항상 여러분의 마음으로써 하시는 일들 그 자체가 바로 오시는 날입니다. 찰나찰나 오시죠. 그런데 찰나찰나 오셔도 자기가 하나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모르시죠. 이해가 안 가실 지도 모릅니다만, 왜 예전에 이런 거 보셨죠? 텔레비전에 한 사람이 섰는데 한 사람이 날아오듯 날아 와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 보셨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셔서 항상 떨어뜨리지 말고 그릇을 가지고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그릇 말입니다. 그릇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게 있죠.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은 오늘만이 아니라 오늘로 하여금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항상 그 날이 그 날이기 때문에 어느 날 따로 부처님 오시는 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각자 불성·주처 있으니**
**즉시 맡겨놓아 사용하면**
**언제나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질서를 지켜나가고 하니까 꼭 그렇게 말씀들을 해야만 되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처님은 어디에 계신데 그렇게 우리들 앞에 찰나찰나 오시나…. 만약에 우주 저 건너 서편에, 서천국이라고 하죠. 그 서천국에서 물 한 방울만 튕겨도 통신이 다 되는 겁니다. 물 한 방울 튀겨서 어떻게 통신이 다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에게 제각기 불성이 있고 주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시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 공부 한 분은 즉시즉시 받아서 사용하지 만은, 공부 안 한 분은 그것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게 내일도 미래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내일도 미래죠. 조금 있다가도 미래구요. 그래서 현실에 어떤 문제가 오는 것마다, 내 앞에 닥치는 것마다 항상 놓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무심으로 놓아라, 놓는다면 바로 공법이 된다. 놓으면은 공용으로써 스스로 해결이 된다. 스스로서 해결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비천상도 그려져 있고, 동자들도 그려져 있고, 보살님들도 그려져 있고 그렇죠. 그렇게 그려져 있기는 있지만은 그 그려져 있는, 한가지 말을 한다면 비천상은 비천상뿐이 아니지만 말입니다. 비천상은 불쌍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돼 주는 겁니다. 찰라에 그렇게 하고 찰나에 나오는 거죠.

### 부처님 꽃송이 든 까닭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고 남의 얘기만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어디 출장을 가든지 집을 떠났든지 하더라도, 길을 오다 가다가도 대책이 서질 않았으면 거기다가 딱 맡기세요. 맡겨야, 할 줄 모르는 내가 거기다 맡겨야만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데를 그렇게 출타할 수가 없으니까요. 마음이 그 출타를 받아서 하실 수 있다면, 그걸 아신다면 거기 맡기고 하면은 그게 다 돌아가는 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살기가 어렵다고 모두 하시지만 살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든 어렵지 않든 간에 우리가 웃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웃고 살 수 있어요. 그건 힘이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죠. 힘이 없다면 웃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꽃 한송이를 들으시니깐 가섭존자가 빙긋이 얼굴로 웃었단 말입니다. 얼굴로 꽃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이 되니까 말이 없이도 몽땅 맡겼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요.

이게 부처님이 돼서 다시 재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계시면은 이 공부를 덜 한 분들은 다시 한번 나와서 겪고 또 진짜 부처가 되지만은 완전히 이 공부를 해서 부처님이 되신 분들은 다시 재생하러 나오시지 않는 거죠. 가시다가도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그냥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딴 사람이 되면은 그냥 딴 사람인 줄 알죠. 그래서 건지고도 그것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모르죠.

옛날에 제가 밤중에 걷고 있는데 아니, 산비둘기가 말입니다. 막 떼로 몰려서 닥치는 거예요. 닥치면서 짝짝거리고 앞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가고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그 이튿날 새벽에 보니까 그 앞이 천야만야한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그걸 비둘기라고 그러겠습니까? 부처님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걸 보살님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산신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름을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계시지만 어느 거를 못해서 관리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이든지 다 할 수는 있으나 그 자기가 맡은 바의 이름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천차만별 색색가지로 화하는 데는 어떤 거든지 상황에 따라서, 하다 못해 나무들도 그렇고 뭐든지 화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생각을 깊이 해서 언제나 앞뒤를 두지 마시고 관하시라는 거를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일은 일대로 해 가면서 자기가 육신의 모습으로는 현실에서 뛰면서 보이지 않는 데서 여러분 앞에 닥치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깐 모두 자기 정신계의 자기 주인공한테 맡기세요. 맡겨 놓으세요. 너만이 해결할 수가 있고, 너만이 평등하게 봐 줄 수가 있고, 너만이 나의 보디가드가 돼 줄 수 있다고 관하세요. 그리고 자식들도 몸으로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름으로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관해 주세요. 마음이 스스로 들어올 때가 되면 들어오고 하게끔 말입니다. 그걸 말로 다 하려니까, 모습으로 보고 때리고 쥐어박고 욕하고 속상하면 별 소리 다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로다 그냥 분이 나서 욕을 하고 그 뒤에는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욕한 씨가 그냥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가에서는 업이라고 하는데 업이나 고통이나 고나 모두가 없다 이겁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고를 받는 거지 고가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왜 했던 말 다시 하고 했던 말 다시 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에게 급한 게, 제일 급한 게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게 제일 급한 거예요. 이게 생활이라고 하면은 모두 자식 기르면서 생활하는 것은 물론이요, 사회적으로 하는 일들이 모두죠. 그런데 여러분은 주장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소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가지고 있고 누구는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소리를 또 하지만은 태어날 때 정자 난자가 있는 데로, 돌만 있어 가지고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태어날 애기의 생명처가 거기 포함돼야 같이 잉태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자폐증이 생기고 모든 문제가 벌어져서, 문제가 벌어지게 될 때에 극히 고생을 하면은 조상님을 모셔놓은 탑에 가서 탑문을 열고 아무개를 소리 높여서 부르고 주장자로 세 번 치라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말을 자세히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보시면 스스로 아시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말이 없이도 이리로 오게 할 수도 있고 저리로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더하고 덜함도 없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천당 지옥이 먼 데 있는 줄 알았더니 한 발짝 떼 놓으니깐 천당이고 한 발짝 떼 놓으니깐 지옥이더라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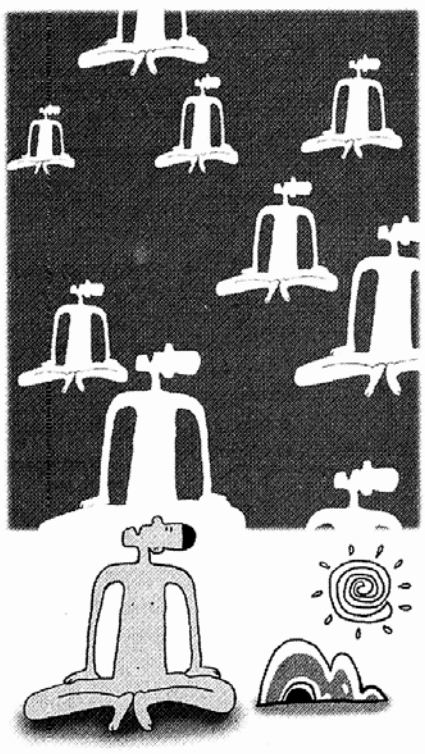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불법은 생활속에 있어

그래 어떤 때는 여러분하고 만났을 때 참 시원하고 좋을 때가 있죠. 그냥 몇 마디 안 했는데 알아듣고 그대로 해 나가시면서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은 그냥 소리만 들어도 저 분이 또 왔구나 그러고 아주 반갑고 좋죠. 때로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삶을 살면서 고생이 없고, 저 스님은 고생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째 고생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고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보질 못하셨으니까 모르실 겁니다. 배가 고파서 말입니다. 서서 갈 수가 없어서 엎드러졌습니다. 엎드러져서 흘러 내려가는 물을 먹으면서도 행복했다는 얘깁니다. 돈이 많아서만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모두 여러분이 편안하시다면 식구가 숟가락을 한꺼번에 넣고 한 그릇에서 먹어도 참 웃음꽃이 피고 그 이튿날은 또 먹을 게 생기는 겁니다.

희한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처음 이곳에 와서 김치를 하는데 큰 그릇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김치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런 큰 그릇을 싣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이 골목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오더니만 아이구! 다라가 없으시네요. 그러면서 그냥 세 개를 시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분더러 그랬죠. 모셨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울었답니다. 울면서 가난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편찮으셔도 장가를 못 들어서 식사도 못 해 드린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장기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선 장기를 두자고 그랬답니다, 부처님께 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장기를 두자고 하니깐 '그래' 하면서 자기가 또 대답을 하는 거죠. 자기가 말을 하고 자기가 대답하고, 장기를 놓고도 자기가 대답하고 자기가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이 만약에 지시면 나 장가도 들게 해 주시고 어머니 병도 낫게 하시고 집안을 좀 살게 해 주시고, 만약에 제가 지면은 어디서 얻어서라도 음식을 차려 드리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자기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 했는데 정직하게, 아주 자기 꺼나 부처님 꺼나 정직하게 놔서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자기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더러 "꼭 약속한 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선 앉았다가 '내가 엉뚱한 짓을 한 거지. 엉뚱하게 부처님한테 말씀을 한 거지. 부처님이 뭘 알아서 우리 같은 사람을 살려 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비스듬히 나무에 기대서 잠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꿈에 그 부처님이 일어나시더니 "너는 장기를 둬서 이겼으면서도 왜 여지껏 드러누워만 있느냐. 요 넘어 절에 가면 너의 색시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빨리 가

###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

## 앞뒤를 두지 말고 관하면서 살도록

## 苦 없는데 사람이 만들어서 苦 받아

"이렇게 사시는 분이니 이걸 시주하신다면 이 값을 몇 배로 받으셔야 됩니다.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깐 우리가 살아 나가는 데에 부처님 앞에 시주를 한다, 보시를 한다, 또 남 어려운데 보시를 한다, 또 남을 도와준다 이러더라도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요만큼도 에누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 거저라는 게 요만한 것도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거저가 요만한 거래도 있는지. 그거를 아신다면 참 마음 편안하고 남한테 쫓기지 않고 잘못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렇게 남들을 속썩이지 않고 허덕거리지 않게 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아주 가난한 청년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야단법석들을 하는데 그 청년은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랍니다. 저녁이 되어도 기름이 없어서 불도 못 켜 놓고 깜깜한 밤에 문을 열어 놓고 있다가 문을 닫고 자고는 그 이튿날 아침에 나무를 하러 지게를 지고 가는데 발에 뭐가 걸리적거리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깐 큰 돌이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캐서 보니까 조그마한 미륵이더랍니다. 그러니까 미륵부처님이 땅에 묻혔는데 그 총각이 캐낸 거죠. 캐내 가지고선 물에다 넣고는 깨끗하게 씻어서는 일으켜 세워서 돌을 놓고서 앉혀 놓으니깐 아주 희한한 부처님이 오셨더랍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도 가난해서 불도 못 켜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부처님을 모셨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울었답니다. 울면서 가난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편찮으셔도 장가를 못 들어서 식사도 못 해 드린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장기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선 장기를 두자고 그랬답니다, 부처님께 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장기를 두자고 하니깐 '그래' 하면서 자기가 또 대답을 하는 거죠. 자기가 말을 하고 자기가 대답하고, 장기를 놓고도 자기가 대답하고 자기가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이 만약에 지시면 나 장가도 들게 해 주시고 어머니 병도 낫게 하시고 집안을 좀 살게 해 주시고, 만약에 제가 지면은 어디서 얻어서라도 음식을 차려 드리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자기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 했는데 정직하게, 아주 자기 꺼나 부처님 꺼나 정직하게 놔서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자기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더러 "꼭 약속한 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선 앉았다가 '내가 엉뚱한 짓을 한 거지. 엉뚱하게 부처님한테 말씀을 한 거지. 부처님이 뭘 알아서 우리 같은 사람을 살려 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비스듬히 나무에 기대서 잠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꿈에 그 부처님이 일어나시더니 "너는 장기를 둬서 이겼으면서도 왜 여지껏 드러누워만 있느냐. 요 넘어 절에 가면 너의 색시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빨리 가봐라." 하는 소리를 듣곤 그 절에 가다가 그만 발에 돌이 채여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깨보니까 꿈이더란 말입니다. "아, 이건 꿈이 아니야. 꼭 부처님 오신 날 오셔서 나를 살려주시는 거야." 하고 생각하고는 그 길로 그 너머 절에 가니까 색시가 탑을 돌더라는 얘기입니다. 탑을 돌면서 어저께 저녁에 밤에 잘 때 꿈에 여기 가면은 신랑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색시가 있다고 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냥 부부로서 부처님께서 부처님 오신날 맺어 준 모양이라고 하면서 둘이 시집 장가가고, 갔다 오니깐 어머니도 병이 씻은 듯이 나으시고 또 이웃에서, 동네는 없지만 아랫동네에서 밭을 몇 뙈기 주면서 마름으로 해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잘 살았는데 그 사람은 정직하게 했으니깐 그렇게 하고 사는데 그 동네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아주 마음이 고약하고 나쁘더랍니다. 그 나쁜 사람은 부처님한테 와서 또 장기를 두기 시작을 하면서 아주 자기 좋은 대로만 해 가지곤 엉뚱하게 좋은 집으로 알고 가서 색시를 만나서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보니깐 지붕 위로 모두 사람들이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떠억 깨서 보니깐 개천 밑이래요. 개천 밑에 있는 큰 집이 좋아서 거기서 잤는데 아주 벌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보통 얘기이지만 그게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 20면으로 계속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 부처님 따로 있지 않고 자기 안에 있어

☞ 19면에서 계속

예전에는 그런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도 부처님이 아주 거룩하셔서 저렇게 앉아 계시다가도 벌판에 나가는 수도 있거든요. 못 보셨죠. 정말입니다. 저 부처님이 앉아 계시다가 안양에도 갔다 오셨는데요. 그런데 사람 모습이 바뀌졌으니까 누구든지 모르죠. 모습이 바뀌졌는데 어떻게 압니까. 애로 화하면 애인 줄 알고, 늙은이로 화하면 늙은인 줄 알고 빌빌한 처사라면은 처사로 알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크게 문제가 생긴 거를 꼭 해결하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깐 부처님이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서 아주 쪽히 여러분의 심부름을 해 주시기 때문에, 예전에도 부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똥 친 막대기라고 그랬거든요. 예전엔 막대기를 놓고 똥을 씻었었다나 봐요. 그렇게들 표현을, 참 무식하기도 하고 별나게들 했는데 그것이 정말 큰스님을 만들고 큰스님이 되시고 그랬다는 얘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 자기불성 자력을 쓰라

그것을 왜 지금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부처님 오신날이기 때문에 뭐 별로, 그냥 우리가 하는 거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거 보다도 열심히 알아서 우리는 내면에 항상 모시고 다녀야 되겠다. 내면의 자기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내 집 안에 전화통을 놓지 않으면은 전화를 받을 수도 없고, 전화 할 수도 없다. 그와 같이 내면에 우리가 자기 자력을 쓸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건 정신계의 즉 자기니까. 자기를 모른 채 한다면 큰 일이 생겨도 그거는 들을 수가 없죠. 뜻이 나한테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이 어떡하나 보느라고 그것만 살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여러분이 부처님 오신 날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몸뚱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공생으로 사는구나. 한 치도 세포의 하나도 생명체가 떨어져서 사는 법이 없구나. 공체로구나. 공심이로구나. 공심이니깐 공용을 하고 살지 않나. 병이 나면 바로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의사가 나와서 진찰을 하고, 진찰을 하는 게 아니라 저 뭡니까. 수술을 하고 이래도 되는 건데. 아마 예전 신도들은 많이 그 뜻을 알 거예요. 자기가 많이 해 봤으니까요.

그래서 과학원의 연구원들이 그것을 뚫어서 지금 현대의 박사님들이 하고 계신 거, 또 자연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내면에 바로 의사 박사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간호사도 있고요. 여러분의 내면에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모두 말로 할 수 없는 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늘은 스님이 별 말 안하고 그냥 시시껄렁하게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별 말 아니지만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 모든 거를 완화시키고, 모든 거를 해결하고, 모두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작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만 괜찮게 살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만이 무사히 없어지고, 고라는 것이 업이라는 것이 왜 생겼는가. 어떻게 해야 그 고, 업이 안 생기나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서 업보니 유전성이니 영계성이니 하는 문제들이 모두 생기는 거죠. 종교도 잘못 믿으면은 의식이 잘못돼서 말도 안하고 방에만 들어앉아서 병이 생기고 그러다가 미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을 못 키우고, 키웠다가도 못 쓰게 만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 한 집에서 그런 거 하나를 해결해도 이건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누가 삶을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신 살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가 걷고 자기가 자기 정신계의 자기 한테 관해서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데 다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고, 자기는 부지런히 살고, 빙긋이 웃고 사는 거죠. 이 모습 가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한 생인데 한 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높아지고 얕아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원대로에, 또 산 것 대로에, 또 재생할 때는 산 것대로 차원이든지 삶이든지 생김생김이든지 모든 거를 가지고 나가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마음공부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못생겼으니깐 조금 더 잘 생긴 거는 바라지 않아도 그저 밉지 않게 생겨서 좀 마음이 너그럽고 똑똑해서 남한테 해로움을 주지 않고 나를 해로움을 주지 않고, 이 모습은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아니고 진짜 자기의 시자입니다. 모습 즉 말하자면 심부름꾼이죠. 모습, 몸은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는 정신계의 자기라는 거를 꼭 믿고 그렇게 하세요.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으세요. 그러고 하기 싫어도 당신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어 한다면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다면 보이지 않는데서 해결이 다 돼서 보이는 데에서 해결이 나게끔 되는 거죠. 오늘은 사는 데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공생이면서 공심이면서 공체면서 공용을 하고 산다고요. 우리는 공법에서 만법을 들이고 어떠한 문제든지 들이고 내고 살아도 걸림이 없다 이겁니다. 이거를 꼭 생각하셔서 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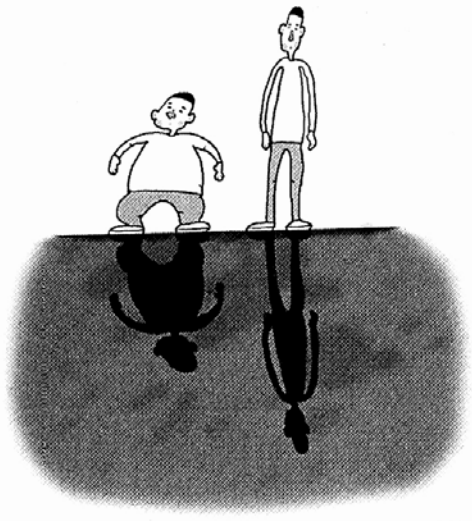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마음공부는
좀 너그럽고 똑똑해서
남한테 해로움을 주지 않고
자신에게도 해를 주지 않으며
진짜 주인공인 정신계
나 믿고 사는 것

## 공용 공심 공체로 살아

그러고 요즘 병원에 갔던 사람들이 다들 오히려 더, 난 이런 소리 안 했는데요. 요즘 아주 엉망으로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겠다고 해서 수술을 하려고 갈라보니까 수술을 안 해도 되겠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꿰매어 놨는데 수술하려고 갈랐을 때 잘못 건드려서는 오히려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것이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픈 사람한테만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약한 대로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일들이 허다많습니다. 그걸 왜 하게 됐느냐 하면 애들은 많이 낳아 놨는데 엄마가 죽게 됐는데 아버지도 죽게 됐더라고요. 그러니 애들은 애들대로 고아원으로 다 가야죠. 문제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 병원에도 맘을 놓고 갈 수가 없고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는데 돈이 있어도 맘을 놓고 갈 수가 없다는 이런 말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부해 보고 그래 가지고 경험을 얻어서 참 의사 박사님들이 유능했는데 지금은 그 병명을 알지 못해서 째어 보고 아는 분이 많이 있으시데요, 글쎄. 진찰을 해도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가 아프다니까 거기를 째 봐야 알겠다고 그런대니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떠한 몹쓸 병이 생겼더라도, 병이 들어서 다리도 못 쓰고, 팔도 못 쓰고, 속도 못 쓰고 그냥 엉망인데, 그런데 아들을 기르고 그러는데 참 그 돌아가셔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냥 질질질 끌고 그냥 뭐 끄는 정도가 아니죠. 여기도, 스님들이 다 알지만 엊그저께 보니깐 참 잘 걸어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생각에 보는 순간에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께서 내가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그 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건 참 살아야겠구나. 넌 고생이 되도 좀 살아야 딴 사람들이 살지 않겠어 하고 돌봐줘야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돌봐지게끔 만들 수 있는 이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다 자불을 가지고 있는 부처입니다. 어떤 때는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이 다 부처님입니다. 남들이 안 듣는데 그래요. 참 당신네들이 다 부처라고요. 왜냐하면 저렇게 앉아 계신 부처님 믿고 오시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걸 믿지 못했거든요. 아 그런데 가만히 앉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 움죽거리지 않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절을 지을 량으로, 저 위에 한 채를 짓고 나서 이 법당을 지으려고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밤 공중에서, 이 소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일입니다. 이 소저 할머니가 자다가 꿈을 꾸니까 그냥 위에서 동자들, 부처님들이 쭉 내려오고 양사방으로는 비천상과 보살님들이 모두, 등 다는 날 입고 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입은 보살들이 큰 종이 꼬리표 하나씩을 들고는 모두 하늘에서 뿌리면서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와서는 여기 쭉 그냥 앉았는데 거기가 공양간인데 그 공양간 옆에서 꼬리가 잘린 큰 구렁이가 나오는데 그 양반들이 그걸 보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더니 저 꼬리가 저렇게 됐으니까 다른 사람을 갖다가 놔야지 되지 안되겠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틀고는 내려오더라는 거죠. 내려와서 거길 턱 자리를 잡고는 앉았는데 그 앉아있는 용이 옆에 있는 이그러진 꼬리를 손으로 붙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회의가 벌어졌더래요. 이거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거 처음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분이 꿈을 깨고 그 날로 "스님, 제가 꿈을 꾸었는데 절이 그냥 빨간 벽돌로다가 했는데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면서 조그만 동자들도 많이 내려오고 그랬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이 법당을 짓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걱정이 살아나가는 데 걱정이기 때문에 난 권선문을 만들어서 보시를 받으라는 말을 안 합니다. 전자부터 그런 일이 없었고요. 보시를 걷으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하기도 하고, 없으면 고만이고요. 또 남한테 빌려 가지고 재사를 지내려 오면 그것처럼 안된 게 없어요. 그럼 어떤 때는 드리면서 도로 갖다 갚고 돈 생기면 하시라고 합니다. 지내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조상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하죠. 오늘은 그냥 시시껄렁하게 이렇게 말을 했지만

## 걸림없는 한생각 묘법

시시껄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체라고 한 뜻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한 생각을 해도 공용으로 생각을 한 거고 우리가 한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해도 공용으로 한다는 거를 꼭 알고 자기의 주인공을 진짜로 자기 보디가드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 심부름꾼으로 알아야 합니다. 참 자기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는 거죠. 그럼 오늘은 그냥 우리가, 극난한 사회의 모두 일들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니까 그걸 해 나가는데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서 해결을 하시도록 하세요. 해결을 하시려고 한다면 모두 해결을 할 수 있죠. 빨라야 좋다 한다면 빠르게 하는 거고 좀 늦어야 우리 국민이 살 수 있다 이러면 좀 늦게 하는 거고 그것도 마음대로 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는 거니까요.

오늘 한마디도 안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한마디도 안하려고 그랬거든요. 부처님께 말없이 그냥 무심으로서 내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 마이크를 주네요.

그러면 제가 함이 없이 그냥 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오늘 여러분한테 선물이라고 할까 살아나가는데 선물을 듬뿍 주시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걸림 없고 걸림 없이 소심스럽게 받지 마시고 오늘 한 생각을 그냥 받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위 법문은 2001년 5월 1일 부처님 오신 날에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 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늘 그리운 사람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버들강아지 잎망울 틔우고
풀잎끝 작은 숨결
해맑은 동자승의 자비심으로
그대가슴에 온기를 더할때
우연히 만난 그사람
내 생애 있어 최상의 도반이었다.
시간의 길
밖에서 사랑하게 된 그를
함께 있어 늘
그리워 하며...



원장 이 영 숙

▷ 승용차 운행 : 전화악속 10분소요
역곡 1호선 하차→남부역쪽 1번 출구 (기업은행 정문)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판검사, 의사, 변호사, 회사원, 공무원, 연구원, 변저 기업인, 사업인! 10년전행의 노하우 · 두은 단님 될때까지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 無生子)

직통전화 : 031) 315-5429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백련 선원 입방공고

만덕산 백련선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무문관에서 동참 정진하실 재가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 기 간 : 5월 8일(음 4월 15일) - 6월 2일(음 윤달 4월 11일)
◆ 수행구분 : 3일정진, 5일정진, 7일정진
◆ 입방자격 : 참선 수행에 관심있는 남, 녀 재가불자
◆ 입방신청기간 : 각 기간별 선착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만덕산 백련사 종무소에 연락바랍니다.

전화 : 061-432-0837
팩스 : 061-433-9929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11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만덕산 백련사

레이키(Reiki 靈氣)를 아십니까?

레이키는 이 우주공간에 가득차 있는 「사랑과 빛의 신령한 기운, 영묘한 기운」이며 즉 고급 氣입니다. 이것을 끌어다 쓰면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유익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단 3일 동안의 교육으로 전수해 드립니다.

1. 레이키 교육 대상자 (교육기간 3일. 교육비 70만원)
 ♣ 의사, 한의사, 간호사, 대체의료 종사자,
 ♣ 성직자, 호스피스 봉사자, 개호복지사, 간병 봉사자
 ♣ 만성병 환자 혹은 그 가족 특히 불면증 환자
 ♣ 가정생활에 레이키(氣)를 유익하게 사용하려는 분
2. 레이키 요법의 효과
 사람은 병이들면 氣에너지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하합니다. 레이키 요법은 저하된 氣에너지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 환자의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 되도록 돕고 특히 우울증, 불면증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여러가지 질병에 대하여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3. 레이키를 교육받으면
 ♣ 모든 질환에 대한 요법이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습니다.
 ♣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여기서 원격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 부작용이 없고 환자의 사기를 받지 않으며,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레이키 마스터 박희준)
전화 : 02) 720-5682 / 팩스겸용전화 02) 720-57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 : // www.Reiki.co.kr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쪽으로 걸어서 5분 피어선빌딩 외환은행 건물)

3박4일 수행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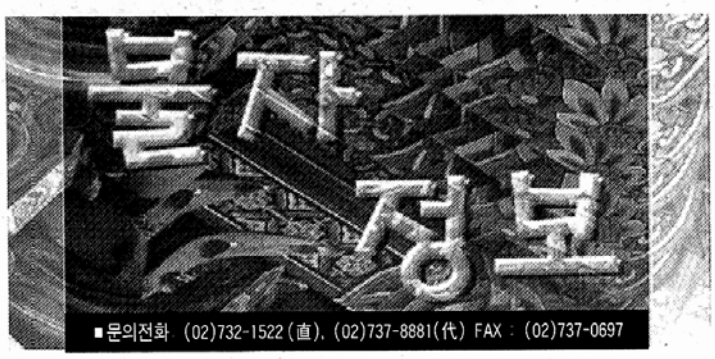
7일, 15일, 30일, 49일, 108일 코스

▣ 한글 금강경 봉독 : 십일만천칠백번 독경하여 체득한 테크닉으로 신명나며 박력있고 리드미컬 하게 독송하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열리어 후련한 체험과 절대 각성 상태로 번뇌에 이끌리지 않게 됨을 알게 됩니다.
▣ 석가모니불 염불 : 단전이 풀리고 가슴이 열리고 허는 풀리어 통제 불능의 자동 염불이 저절로 끝없이 이어지는 가장쉽고 빠른 염불삼매의 지름길로 행주좌와 일여의 경지를 극복하게 됩니다.
▣ 호흡에 맞춰 절하는법 : 숨차고 헐덕대고 지치고 힘이 빠지고 몸살나는 절은 수행이 아닙니다.
2시간만 배우시면 절대 숨차지 않고 헐덕대지 않으며 삼천배를 하여도 지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고 병을 회복하는데 탁월한 대체의학임을 스스로 알게됩니다.
▣ 참선의 기초작법, 자동단전호흡법 : 배꼽아래 세치부분이 단전자리가 아님을 간단한 수련으로 단전이 열리는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스스로 알게 됩니다.
▣ 부처님 공경, 참탄, 감사 수행 : 업장을 소멸하고 복덕을 지어 팔자를 고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수행으로 고마운 일들이 수시로 나타나고 소원이 쉽게 성취됩니다.
▣ 상기병, 화병, 불면증 : 약 . 의술 필요없이 단기간 수행으로 저절로 쉽게 극복한 사례가 많으니 고치지도 못하는 의술에 매달려 시간, 돈 낭비하지말고 수행도 배우고 병도 고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십시요.

※ 3333배 특별기도 정진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 9시 ~ 일요일 아침 7시

백만불자 108배 만일 결사 금강지혜보궁 불사도량 법왕정사

문의전화 031)771-7745 · 6736 (Fax겸용)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불광한방병원**
이사장 김 웅 석
대구시 동구 효목 2동 510-3
053)753-9353~5

**찬불가 피아노 렛슨**
방송피아니스트 도연
◇ 합창반주반 ◇
1. 체르니 수준을 치셨던 분
2. 기본적인 코드는 알아도 세련되게 응용이 안되시는 분
3. 악보는 잘 치실 수 있으나 멋있는 편곡 변화를 모르시는 분
4. 찬불가를 대중대중 치실 수 있는 분
5. 찬불가 합창단의 반주자가 희망이신 분
◇ 가요 · 팝송 · 가곡연주반 ◇
클라식과 째즈를 응용한 예술적 연주를 배우실 분
◇ 취업연주반 ◇
전공자 및 피아니스트 희망자
에드립 및 째즈와 클라식곡 실용음악을 응용
■ 연주를 들어 보신 후에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도연피아노학원** 02-834-2270/011-663-2270

조용한 산사에서 기도하시며 사실 보살님 구합니다
▷ 40~50대 ▷ 강원도 강릉
033)661-5878

화주보살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9571-6479

50대 노스님 비구, 비구니 같이 수행하실 분 모십니다
약간의 용돈 드림
▷ 제천
043)646-4747
019)442-9682

의정부 **운불련**
**개인 콜 택시**
전화 031)876-7070
Fax 031)876-8550

**건강 천단(天丹)법**
◎ 도인 기공 술, 영동 신기술
◎ 포교원 토굴 운영하실분 환영
◎ 책임지도 왼성 숙식제공 가능
※ 공양주하면서 무료 공부 할분 30년비법 전수받은 스님직접지도
054-383-8553
011-813-3679

**벽조목(霹棗木)뿌리**
◎ 수령 약 600년 탁장용으로 수가공 함
◎ 토굴 불사에 약간의 도움을 주시면 앙도코저 함
◎ 진귀한 영험있는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054-383-8553
011-813-3679 지장암

**배우자 구함**
신체건강하고 마음이 넉넉한 여성으로 35세~43세미만인 여성을 원하며 물질공양과 남은생애를 함께 할 동반자 원함
▷ 현 42세 건강한 남성으로 포교원 운영 중
016)710-8535

정법도량의 스님이 안계시거나 스님이 필요한 사찰있으시면 연락주십시요
019)287-0357

암자에서 기도하실 공양주 보살님, 출가 행자님이나 처사님 모십니다
▷ 경북 영주
011)561-6644

부전스님 모십니다
(조계종스님)
055)544-0555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 목포 유달산 달성사
061)244-1489
011)624-213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관음사
02)2234-3310

암자에서 함께 기도하실 노보살님을 모십니다
031)632-8199
011)9764-8199

**연꽃그림에 부처님 말씀담아 드립니다**
• 한지에 수묵담채화
• 크기 : 소, 중, 대, 특대
• 종류 : 미표구, 족자, 표구액자
• 가액 : 아주 저렴한 가격
각종 보시용, 도반 선물용, 포교용
※ 사찰행사 시연전시 접수중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운전기사 구함**
신심이 돈독한 40세이상 거사님
062)261-1529
011)9621-8700

**붓 다 마 켓**
www.BuddhaMarket.com
인터넷 불교 용품점
도매(B2B) × 소매(B2C)
부산 금정구 남산동 225-12
051)583-793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359-7766

공양주를 모십니다
▷ 60세미만
신심있는 불자님
02)877-7514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11)432-3841
011)428-8265

부전스님을 필요로 하는 사찰에서는 연락을 주십시요
011)337-5009

**행자모집**
모집인원 : 선착순 5명
학력 : 고졸이상 학력 소지자
연령 : 40세 미만
대한불교 조계종 무등암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20번지
061)772-4109
061)772-5401

공양주보살 구합니다
▷ 경북 경주에 있는 암자
054)748-3530

공양주보살님,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 60세 미만
02)877-7514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 1,5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18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011) 545-7252
김 창 본 처 사

**사찰 안내**
• 위치 : 금천구 시흥 5동 은행나무 옆 2층 건물
• 평수 : 45평, 방 2개
• 보증금 : 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1,300만원 삼존불, 지장단, 칠성각, 산신각
02)807-9381
011)230-7511

**녹차 판매**
지리산 화개야생녹차(햇차)
※ 공장도가 판매
※ 샘플 무료로 보내드림
※ 한통도 주문 可
055) 883-9321
염목다전(지리산 화개)

**스님,행자 초빙**
큰스님 지도하에 수행 기도하실 출가 희망자, 기도스님 모심, 창건 사찰
경남 밀양 얼음 골
055)356-1394
055)356-59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 대지 : 240평
• 건물 : 50평(신축), 삼존불(석자반),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임법당, 방 3, 화장실 2개, 창고 1, 마당화장실 3, 현대식 주방, 욕실, 기름보일러, A 설 A급 (즉시 법회 가능)
• 특징 : 교통편리, 주차완비, 정남향명당, 전망좋은 뒤는 산, 주위 땅 싸게 매입 가능
• 가액 : 9천5백 (답사 후 절충가능)
011) 501-1640
054) 335-8760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대전에서 30분거리
• 부지 : 363평, 법당 15평
• 요사채 : 30평
• 창고겸 화장실 7평
• 가액 : 9천만원
011)455-6198

기도, 수양, 공부하기 좋은 도량입니다.
경남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67번지
청 강 사
055)932-5706

**포교원 안내**
• 스님 일신상 사정으로 포교원 운영하실 분
• 위치 : 대전 동구 홍도동
• 부지 : 삼존불 신중후불탱화 3층 일체시설 다 있음
• 가액 : 전세 2,000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1)742-592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부천여중 뒤
• 평수 : 3층 23평
• 보증금 :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 천만원
032)654-5859/011)294-0528

**사 찰 안 내**
• 위치 : 용인 • 위치 : 부산 • 위치 : 의정부(포교당)
• 법당 : 34평 • 법 당 : 24평 • 법당
• 요사 : 70평 • 요사 : 50평 • 요사 : 65평
• 부지 : 450평 • 부 지 : 300평 • 가 액 : 5천
• 가액 : 3억 7천 • 가 액 : 3억2천 • 시설비 : 3천 5백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급 안내**
• 위지 : 경남 마산시 회원구 혜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 대지 : 438평(종교대지 등기필)
• 건물 : 법당 31평 (목조3포,5포,금단청필)
• 요사 : 80평(방10칸, 주방2칸, 거실)
• 명부전 : 10평 (단청필)
• 기타 : 주지실 사무실 포함 9평, 창고 약 4평, 주차장 100평 이상, 차량 무제한 주차가능
• 가액 : 8억(건물완공 4년, 총공사비 12억 들었음, 대지 평당 90만원 이상감
※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노스님 신병으로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합니다.
☎055) 294-4889 018) 689-0455

**사찰안내**
• 위치 : 군산시내 10분 거리
• 법당 주산포 21평
• 요사채 신축건물 50평
지방문화재 3층 석탑, 대지 400평 등기필 있음. 도로근접 동내를 끼고 있고 절 뒷면 등산로 심야 보일러 태양 온수기 설치 주차장 있음
• 가액 2억 6천 (절충 가능)
011)671-5161
063)451-2410, 451-5161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
• 평수 : 법당 10평, 방 2개 주방 2개 화장실 2개 창고, 시설 A급, 주차시설 완비, 식기류 일체 무상 제공
• 가액 : 보증금 1200만 월 20만원 시설비 : 1000만원
052)294-3537
011)9315-1200

**사찰 안내**
• 가액 : 2억 3천(가격조정가능)
• 임야,대지 : 5천평
• 대웅전 : 30평
• 요사채 : 1동(20평)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061)434-7724
019)660-6954
서선사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
• 삼존불, 신중탱화, 실상탱화 40평, 산신탱화, 방 2개, 부엌 1개
• 가액 : 전세 2천 5백만원 (시설비 약간 포함)
018)416-5489

**사 찰 안 내**
• 위 치 : 성남시 분당소재 절터
• 부 지 : 930평
• 특 징 :
· 산으로 쌓여 있는 절터임
· 분당 서현역에서 10분거리
· 승용차 진입가능 · 대출가능
• 양도가 : 6억 5천(평당 700,000만원)
• 위 치 : 수원시 소재
• 대 지 : 170평
• 법 당 : 30평(2층)
• 요 사 : 70평(1층)
※ 뒤는 산이며 도심포교 사찰로 건립 대단위 APT단지 옆
• 양도가 : 3억 (대출가능)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 561-7791/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 평수 : 15평
• 보증금 1000만원
• 시설비 500만원
인천 지장암
011)759-5395

**황토방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단지 입구
• 평수 : 100평
• 법당, 방 5칸, 주방, 욕실 3개
• 가액 : 보증금 천만원 월 80만원 설비비 4천만원 (답사 후 결정)
051)626-4730
016)9833-7701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마을 끝집)
• 대지 : 73평
• 건물 : 37평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 6,500만원 (융자있음)
• 시설 : 지하수, 뒤 : 공원, 교통편리
• 대상 : 비구니스님, 무속인, 사주보시는 분 가능
061)762-2630

**사찰 (급)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봉덕 3동 632-19
• 건평 : 30평(목조한옥,요사채)
• 대지 : 67평
• 가액 : 1억 3천만원
053)475-7504
011)819-7504
정법사(기존사찰운영)

**암자(급)안내**
• 위치 : 경북 군위(부처골)
• 대지 : 182평 , 밭 724평 건평 43평, 황토집 2채
• 노천 석불 양도가 5300만원
• 3년분할, 전세가능
스님 직접 053)982-6778
011)813-3679

**포교원(급)안내**
• 법당 : 15평
• 요사채, 방3개(각각 4평씩)
• 삼존불 지장불 관음108불
• 보증금 : 無 연 300백만원
• 가액 : 2천만원
052)221-2292
011)544-2191
울산

**지리산 시조암 션원**
• 위치:실상사 마천→백무동방향→가채마을 위
• 대지:605평 건평 32평 황토방 한옥 2채 자연식 탑 둘레 25m 텃밭 • 가액:1억 9천
• 특징:전체 자연석 조경 및 작설차 식제 경관수려, 주차 시설
• 함양 휴천 계곡 옆 토굴터 2천만원
055)963-4965
011)9542-9060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보성
• 부지 : 4500평 법당, 목조건물 29평, 요사 50평
◆문화재 있음
• 가격 : 4억 5천만원
011)678-7691

**토굴 안내**
• 경남 통영시 미륵도 관광특구 내 한려해상 공립공원 내 소재
• 근접지 : 해양 박물관 건립 중 달아공원 관광지 근접
• 산과 바다가 어울어진 자연 경관 수려
• 방생 및 기도터 적합
• 대지 : 73평 법당,요사채 : 20평, 인접임야사용가능
• 가액 : 5천만원
055)645-7487 / 011)9520-694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
• 대지 : 105평
• 요사 : 20평
• 법당 : 18평
• 가액 : 답사 후 절충
055)643-7444
011)9545-7444

**포교당 안내**
• 위치 : 수원시 서문 더신포교원(12년전통)
• 4층 건물 3층 70평 중
• 법당 35평 큰방 4개 기타 현대식 시설 법당은 최고시설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3,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 452-8374
031) 252-2796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부평 • 평수 : 40평
• 특징 : 법당, 삼존불 일체설 완비 에어컨 있음 주방 주지실
• 보증금 2000만원에 월 15만원 권리금 상담 후 절충
032)512-5088
011)732-8616

**인법당(급) 안내**
• 위치 : 충남 예산
• 대지 : 284평, 전 395평
• 구옥 : 방 3칸
• 가액 : 4천 6백만원 (가격절충가능)
041)335-6334
019)356-5264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앞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 6만평 도량안에 (부지1800평)
• 동강 내리계곡이 앞에 흐르고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며 경관이 아주 좋음 기와건물 40평 방 8개 주방 법당이 되어있고 천탑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돌 수십톤 확보되어 있음
• 건강관계로 급매 • 가액 : 답사후절충
018)533-7780

**사찰안내**
• 위치 : 광주 시내 중심가
• 1층 유치원, 2층 법당 60평
• 요사채 2채, 대지 320평
• 특징 : 등림산 중턱에 있는 사찰
• 가액 : 약 8억 (절충가능)
011)633-8450
062)368-8450

**임 법 당**
• 위치 : 경북 칠곡 팔공산하
• 구조 : 방 3, 욕실, 화장실, 창고 (기름, 연탄 겸용 보일러)
• 세금 : 보증금 無 1년 150만
• 탱화일체, 연, 서적, 생활도구, 불기
• 가액 : 일천만원(승용차무료보시포함)
054)976-2248
(오전 11시이후 전화요)
※ 행자모집 ※

**사찰부지안내**
•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삼합리 임야,대지,전 등 7637평 사찰부지최적 주택 2동 등 건물 315평 있음
시가 12만 매가 7만 5억3천 입금
02)521-3651
011)9678-2507

**사찰 안내**
• 법당 : 20평
• 요사채 40평 (목조건물)
• 대지 1,000평 임야 5,700평
• 요왕당, 현대시설 완비
• 가액 : 5억
꼭 필요 하신분만 전화요망!
043)260-6766
011)9746-6766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근교
• 부지 : 300평(문중땅 년 사용료 50만원)
• 법당 : 25평, 요사 : 30평
• 굴법당 : 15평, 산신각 : 5평
• 가액 : 8천만원
• 특징 : 산밑 기도 영험 도량으로 주변경관이 수려함
사찰전문용역 02)736-3578~9
금강기획 011)789-22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부지 : 300평 (문중 땅)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산신각 7평 • 가액 : 1억 6천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독일 함부르크에서 출발한 행창스님의 유라시아 자전거 횡단은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고 시작됐다.

# '참나' 찾기 자전거 '구도' 여행

## 행창스님 유라시아 대륙횡단 대장정 올라

5월 1일 부처님오신날,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유학중인 행창(行昌) 스님의 유라시아대륙 자전거 횡단 대장정이 시작됐다.

동서 이념대립과 갈등의 상징 베를린 장벽에서 출발해 내년 부처님 오신날 북한을 거쳐 서울에 도착하는 이 대장정은 행창스님이 떠나는 구도의 길이다. "참된 자아인 달마를 찾아 나서는 여정 속에서 자기 성찰, 자기 극복, 자기 완성을 추구하기 위해 이번 대장정을 시작한다"는 행창스님. 자전거 여행길이 곧 수행의 길이라 여기는 스님은 이번 여정을 통해 자신 속에 내재해 있는 참 인간상을 발견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여기고 있다. 또 하나 지구촌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마음 속에 상호 이해의 씨앗을 뿌려 전법의 과제로 삼는 것도 스님의 염원이다.

독일 베를린에서 출발한 것은 이 곳 역시 동서의 이념대립과 갈등을 이기고 통일을 한 곳이기에 남북통일의 염원을 되새기기 위해서이다. 스님은 동구유럽을 돌며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체코, 헝가리의 사회변화를 관찰할 계획이다. 또 수정사회주의체제로 변하고 있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에서는 체제변화에서 오는 갈등과 변화의 양상을 살살이 들여다보고, 민족 · 종교 갈등으로 전쟁 속으로 내던져졌던 유고 연방지역에서는 전쟁의 상흔을 그 지역 젊은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연구해 보겠다는 것이 행창 스님의 각오다.

### 독일-터키-실크로드-중국-북한-서울

### 이달 1일 출발 1년간 2만km 달려

### '화해' 메시지 전파… '붓다뉴스' 중계

특히 동서문화 교류의 역사적 현장 실크로드, 삼장법사 현장스님과 신라 혜초스님이 지났을 이 길이 자전거를 탄 행창스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구도길이 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베를린, 체코의 프라하,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고 베오그라드, 불가리아의 소피아를 거쳐 7월 터키의 이스탄불, 앙카라, 8월 그루지아의 트빌리시,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보트에 몸을 싣고 카스피해를 건너 9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에 도착하게 된다. 10월에는 타지키스탄, 파미르고원을 거쳐 11월 중국 카슈가르, 타클라마칸 사막, 12월 투르판을 지나 2002년 1월 1일 장안에서 베이징까지 한달을 계획하고 있다. 이후 북한 통과가 승인될 경우, 신양에서 백두산으로 들어가 신의주, 평양, 판문점을 거쳐 부처님 오신날 서울에 도착하게 된다. 북한통과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는 텐진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들어와 서울에 도착하게 되는 일정이다.

5월 1일부터 2002년 1년 간 약 2만km의 대장정을 계획하고 있는 행창스님의 구도 여정은 인터넷 일간 붓다뉴스(http//www.buddhanews.com)가 생생하게 중계한다. 2주에 한번 스님이 현지에서 보내주는 생생한 여행기를 사진과 함께 연재할 계획이다.

행창스님은 현재 독일 함부르크대학 인도학 · 티벳학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미 92년에 일본열도 자전거 횡단을 성공했고 97년에는 인도 아대륙 오토바이 왕복횡단도 해낸 경력이 있다. 지난해에는 중동을 자전거로 횡단하는 등 15년여 걸쳐 전 세계 50여개국을 무대로 여행과 수행, 학업을 하나의 화두로 삼고 있는 젊은 구도자의 새로운 도전이 어떻게 회향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 "가야산 관통로 즉각 중단"

## 조계종,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요구 탄원서

### 경남도 · 지역환경연합도 반대 성명

국립공원 가야산을 관통하는 관광도로 건설에 대해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은 9일 '가야산 국립공원 관통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 집행정지 가처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창원지방법원 행정 다부(부장판사 박기동)에 제출하고, 경상남도는 불법적인 가야산 관통 순환도로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종은 탄원서에서 "문제의 도로는 가야산의 허리를 자르고 터널을 뚫어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의 증가로 해인사 팔만대장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민족의 성지인 해인총림의 수행도량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43개 지역 환경운동연합도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가야산 관통 순환도로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 이뤄지는 난개발의 전형"이라면서 "해인골프장 건설보다 더 큰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도로건설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10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고 최근 해인총림 산하 가야산 환경위원회가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 노인 1천명 초청잔치

### 부산불교회관 1돌 기념

부산불교회관(관장 정여스님)은 11일 시청 옥외공연장에서 어르신 1,000여명과 자원봉사자 2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불교회관 개관 1주년기념 제1회 경로효도 큰잔치를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안상영 부산시장, 설동근 부산교육감, 강선태 부산불교신도회장, 이병곤 부산경찰청장, 이하우 부산불교교육대학장 등 지역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문화공연과 점심 공양, 기념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김재경 기자



## 미륵부처님 사바번뇌 씻어주소서

충남 공주 성곡사(주지 관묵)는 13일 법주사 율주 혜정스님의 증명으로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와불 및 미륵불상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성곡사 관묵스님은 "37m 청동 와불과 32m 미륵부처님을 점안,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우리 민족의 자성의 계기로 삼아 지역 · 계층간 화해와 화합을 도모하는 미륵기도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041)853-3355 김재경 기자

## 산사의 멋 체험해 보세요

### 전남도 12개 사찰 연계 관광코스 개발

전남도내 12개 사찰에서 '산사(山寺)체험하기 관광코스'가 개발, 운영된다.

전남도는 7일 "사회단체나 가족단위 관광객이 신록이 우거진 산사에서 참선 · 예불 · 경전강의 등 수행도 하고 1~3일 정도의 일정으로 주변 관광지도 둘러보는 관광여정을 마련,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관광전남 홈페이지(www.provin.chonnam.co.kr)에 숙박 등이 가능한 송광사 등 도내 12개 사찰의 위치와 유래, 문화재 보유 현황, 주변 관광지,시설현황 등의 자료를 올릴 계획이다. 산사체험에 참여하는 사찰은 여수시 흥국사 · 용문사, 순천시 송광사 · 동화사, 나주시 불회사, 구례군 화엄사, 보성군 대원사, 해남군 미황사, 영암군 도갑사, 함평군 용천사, 장성군 백양사, 진도군 악사사(주암사, 천종사) 등 12개 사찰이다.

전남지역은 국내사찰 25대 본산중 백양, 화엄 ,송광, 선암, 대흥사 등 5대 본산과 9산 선문중 보림사, 쌍봉사, 태안사 등 3대 선문이 남아있는 등 불교 성지가 산재해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푸르름이 짙은 산사에서 주말을 이용해 도심의 찌든 때를 벗겨내는 명상 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062)607-4992 김재경 기자

## 무위사 아미타 삼존불등 문화재청 보물지정 예고

전남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에 소장된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3구와 아미타후불벽화, 백의관음도, 벽화 29점이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문화재청은 계명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금강경삼가해, 예념미타도량참법 등 10건 40점을 10일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이들 문화재는 30일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된다. 권형진 기자

## 종단소식

### 조계종

#### 월정사 진신사리 공개

제4교구 본사인 오대산 월정사(주지 현해)는 23일부터 6월20일까지 윤4월 한달간 부처님 진신사리(문수동자 복장사리) 및 국보 제48호 팔각구층석탑 유물(은제도금여래입상과 다라니와 사리함 등) 친견대법회를 개최한다. (033)332-6644

### 천태종

#### 구인사 광명당 기공식

총본산 구인사내 광명당 기공식을 14일 도용 종정 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 종단스님들과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광명당은 대조사전 아래에 있는 광명당과 판도암을 합해 대조사전 앞에 넓은 광장을 마련하기 위해 한 건물로 재건축하는 것이다.

### 진각종

#### 종조 탄생절 봉축헌화



종조 회당대종사 탄신 99주년을 봉축하는 헌화식(사진)이 10일 서울 총인원내 종조전에서 각해 총인과 성초 통리원장, 일정 교육원장을 비롯한 서울교구 스승과 신교도, 위덕대 손제석 총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 울릉도 1호 경승 탄생

울릉군 여래심인당 주교 향덕정사가 4월 28일 울릉경찰서(서장 김욱동) 1호 경승으로 임명됐다. 울릉경찰서 최초로 경승에 임명된 향덕 정사는 "경찰관들의 불심 고취와 포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권 동신전통목공
사찰문전문
대표 백 영 목 합장
경북 김천시 봉산면 태화동 523번지 (직지사 검문소 위)
전 화 : (054) 432-1312
공 장 : (054) 432-8121
휴대폰 : 011-535-7000
주요 공사 사찰
직지사 . 봉암사
각화사 . 대승사
해인사 . 출서사
윤필암 . 김용사
법주사 . 운문사
봉녕사 . 용문사
서광사(캐나다)
한마음선원대구지원
찾아오시는길
↑ 추풍령I.C
동신전통목공
1Km
← 직지사
직지사 검문소
김천시내 ↓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서울 대전 대구 전주 40분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 063)433-2900,0303
432-0652,0072

### 파주 보광사…양산 천불사…안동 월봉사

# 사찰 납골시설 건립 지역이기주의로 난항

## 계획 연기 · 포기 속출

사찰 납골당 건립이 지역 이기주의로 홍역을 앓고 있다.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찰중 상당수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건립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납골당을 혐오시설로 여기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를 허결할 뚜렷한 대응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 파주 보광사는 지난 3월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경내에 6천여기 수용 규모의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다가 최근 일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표면적으로는 전통사찰에 혐오시설이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현재 보광사가 추진하고 있는 일주문밖의 상가지역 재개발에 따른 피해보상액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사찰측은 보고 있다.

경남 양산 웅상읍 천불사는 올해 초부터 북제주군 애월읍 일대에 1만 4천여기 규모의 납골시설 건립을 추진해오다 지역주민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당초 계획했던 화장장은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 아예 포기한 상태다.

천불사는 또 지난해부터 사찰 내에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다가 장학회를 설립해주는 조건으로 최근 지역주민들과 합의를 보았지만, 재정이 여의치 않아 장학회 설립이 늦어지자 지역주민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양산 원동면 동선사는 지역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99년부터 추진해오던 납골당 건립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콤바인과 트랙터 등으로 사찰 진입로를 차단하며 시위를 벌였던 주민들은 "절은 숭배의 대상이지 혐오시설을 짓는 곳이 아니다"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산문을 폐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북 안동 월봉사도 남선면 일대에 납골당 건립을 추진해오다 지역주민들이 산림과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공사를 중단한 상태고, 경기 하남 광덕사는 지역주민의 반대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건립계획을 백지화시켰다. 경기 광주 교헌사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납골당 건립에 차질을 빚다가 지난해말 지역주민들이 낸 건축허가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나서야 비로소 공사를 재개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들 사찰의 관계자들은 "주민들이 납골당을 혐오시설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지가하락 등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 타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각스님(동국대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 교수)은 "납골시설 건립을 추진하기 이전에 지역 주민에게 그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스님들이 지역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故 정주영씨의 49재는 독실한 불자인 정씨의 여동생 정희영 보살의 요청에 따라 도선사에서 봉행됐다.

## 정주영 명예회장 49재 8일 도선사서 봉행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49재가 8일 도선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49재에는 도선사 회주 혜성스님과 주지 광복스님,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혜자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계성스님, 포교원 포교부장 상운스님, 종회의원 혜창스님, 고인의 아들인 몽준, 몽생 세영씨 등 가족 50여명이 참석했다. 500여명의 도선사 신도들도 정씨의 49재에 동참했다.

정씨의 49재는 3시간여 동안 진행됐으며, 화계사 조실 숭산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은 영가법문을 통해 "산은 산 물은 물, 산은 푸르고 물은 흐르도다"라며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정씨의 49재를 도선사에서 봉행한 것은 독실한 불자인 정씨의 여동생 정희영 보살이 혜성스님에게 요청해 이뤄졌다. 정성운 기자

## 의문사 진상규명 '가요 콘서트' 연다

### 4개교단 인권위, 20일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의문 속에 사라져 간 사람들의 죽음을 규명하는 일에 종교계가 나선다.

불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4개 교단 인권위원회는 20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진실, 희망 찾기 콘서트-산 자여 말하라'를 개최한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후원하는 이 콘서트에는 가수 전인권, 정태춘, 노래를 찾는 사람들, 안치환과 자유, 이은미, 강산에, 박혜경, 서문탁, 성시경 등이 출연료를 받지 않고 무대에 오른다.

공연 수익금은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제보를 하거나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에게 보상금으로 사용된다. (02)737-3313. 김재경 기자

### 본지보도이후

**서남단 가거도 용궁사**

**책 · 법문테이프 잇단 후원**

본지 317호 38면 부처님 오신 날 특집 '한반도 최서남단 가거도 목탁소리' 기사가 보도된 후 가거도 용궁사에 불서와 법문테이프 등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대각회 이종하 국장은 10일 빠른시일내 가거도 용궁사 지원회의를 개최하여 다각적인 지원방향을 세우겠다고 밝혀왔다. 특히 대각회 산하 불광사 불광출판부에서 발간한 불서와 법문테이프 등을 1차로 보내고, 법사지원 방안도 세운다는 계획이다.

9일에는 불자인 손현석(43, 경북 울진군)씨가 법문 경전 찬불가 등의 불교테이프 일체를 발송했다. 손씨는 "가거도의 불교가 더욱 융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테이프 등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4일 가거도 용궁사에 한 비구스님이 현대불교신문을 보고 왔다며, 보름간 머물며 신도들에게 수행지도를 해주고 가거도 볼자들이 목말라 하는 법문도 해줬다.

박성금 주지보살은 "육지 불자들의 관심과 격려 전화를 많이 받고, 큰 힘을 얻었다"며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전해왔다. 김원우 기자

### 도와주세요

**년 4회 의안교체수술**

선천적인 장애로 매년 네 차례씩 의안교체수술을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는 어린이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강원도 원주 심향영육아원에서 사는 6살 난 박창민 어린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왼쪽시력을 상실해 성장이 멈추는 19세까지는, 매년 네 차례씩 의안교체수술을 받아야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시력을 상실한 눈의 퇴화로 인해 외모가 일그러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 하지만 형편이 열악한 육아원에서 한 차례 60만원씩 매년 240만원이 소요되는 의안교체수술비를 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움주실 분은 734-8050(생명나눔실천회)번으로 연락하거나, 은행계좌(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를 이용하면 된다. 한명우 기자



◇5일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부지에서 거행된 천태종립 금강대학교 건립 기공식에서 천태종 종단 스님들과 내외귀빈이 시삽을 하고 있다.

## 천태종 금강대 건립 기공식

천태종은 5일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부지에서 종립 금강대학교 건립기공식을 갖고 오는 2003년 3월 개교를 위한 본격적인 교육불사에 들어갔다.

4년제 정규대학인 금강대학교는 불교중흥과 인재양성이라는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스님의 유지에 따라 지난 82년 대학설립을 결의한 지 19년만에 첫 삽을 뜨게됐다.

건립기공식은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을 비롯한 종단스님들과 관촉사 주지 탄우스님, 이인제 민주당 최고위원, 심대평 충남지사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기공테이프 절단, 시삽, 경과보고, 법어,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운덕스님은 법어를 통해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열반 27주기를 앞두고 스님의 유지며 종단의 숙원사업인 금강대학교의 기공식을 갖게 돼 참으로 감회가 벅차다"며 "금강대의 건립을 위해 우리 모두 정성과 힘을 모아 불교중흥과 인재양성의 선구적 역할을 하자"고 말했다.

금강대학교는 10만여 평 부지에 우선 1차로 강의동과 기숙사를 각각 지하 1층, 지상5층으로 지어 내년 8월 준공한 뒤, 2003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들어가 불교학과와 동양철학과 등 2개 학과 1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경숙 기자

## 사찰 · 문화재 1km 내 러브호텔 못짓는다

### 경기도, 7월부터 시행방침

경기도 내 사찰 주변에 러브호텔 신축이 금지된다.

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도내 사찰 · 문화재 · 명승지 · 유원지 주변 등지에 무분별하게 러브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 시 · 군의 관련 조례 제 · 개정을 6월말까지 끝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도내 시 · 군의 관련조례 제 · 개정이 모두 끝날 경우 사찰과 문화재, 명승지로부터 1km 이내에서는 숙박시설 신축이 전면 금지된다. 한명우 기자

## 개성 영통사터 고려유물 다수 발굴

북한 개성 영통사터에서 고려시대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됐다.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발굴조사 중인 개성시 용흥동 영통사터에서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묘실터, 부도를 비롯해 소형돌탑, 불상조각들과 각종 구슬, 고려자기, 도기, 금속기 등 고려시대 유물들이 다량으로 출토됐다고 평양방송이 6일 보도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영통사의 동북 모서리에서 발견된 의천스님의 묘실터는 1101년 10월 의천스님이 입적하자 화장한 후 뼈를 이 곳에 매장했던 것으로, 양지바른 능선에 3단으로 조성돼 있다.

대각국사비는 영통사터 동쪽 중문 축대 남쪽에서 발견됐으며 거북이 모양의 받침돌 위 비석에 의천스님의 경력과 업적, 여러 문양이 새겨져 있다. 서북쪽 구역에서도 8각 탑형 부도의 기단돌과 지붕돌, 그리고 지붕돌 위에 놓이는 상면부의 일부 장식돌이 발견됐다.

서쪽 구역에서는 4동의 건물터와 탑이 발견됐는데, 금당에 해당하는 보광원은 4면을 돌로 쌓은 기단 위에 자리잡고 있다고 평양방송은 전했다. 권형진 기자

### 동국대 한의대생 102명

### '사후시신기증' 단체 서약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최달영) 한의예과 2학년 학생 102명 전원이 최근 '사후 시신기증서'를 학교에 제출해 화제다. 학생들은 3일부터 시작된 해부학 실습을 앞두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과 의학발전을 위해 시신을 기증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기증서에 서명했다.

동국대 한의대는 1996년부터 지금까지 341명의 학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시신 기증서약을 받기는 했으나 한 학과 전체학생이 시신을 기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명우 기자

### '이웃종교 이해강좌'

### KCRP, 내달 27일까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종교대화분과(위원장 길희성 서강대 교수)는 14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매주 두 차례 '이웃종교 이해 강좌'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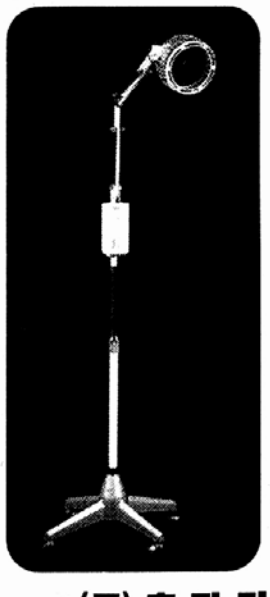
강좌는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강좌(월요일)와 종교 원로와의 대화, 각 종교의 의례 문화를 소개(수요일)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21일과 23일에는 각각 정병조 동국대 교수와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이 강좌와 대화의 마당에 나선다. 장소는 서울 종로성당. 정성운 기자


생명의 빛 神燈(신등)의 秘密(비밀)공개!

(T.D.P치료기)

- 중국이 낳은 또 하나의 기적 -

신등이란? 특정전자기파, 생체 에너지파, 슈퍼원적외선파, 마이크로파, 반도체파, 초단파 등 11개 파장이 동시에 발생되어 그 열파장은 피부깊숙히 80mm까지 흡수되고 공진작용과 에너지 농축으로 무질서한 세포(파괴된 염증세포)를 바르게 정리 재생 회복시켜주며, 그리고 면역체계 상승과 모세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진대사 기능이 증가되어 병변부위를 신속히 정상회복 시켜준다. (그 비밀은 바로T.D.P에 내장된 Black Disk의 신비이 있다.)



다음 증상들은 온가족 건강증진에 큰 도움을 가져다 준다 (증상별 종류)

1. 항상 속이 더부룩한 소화불량증으로 악성변비, 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2. 뼈관절 증상(허리, 무릎, 목, 골반) 각종 통증으로 땡기고 절인 증상 등
3. 혈액순환 장애로 머리무거움, 숨참, 가슴이 뛰고 답답함, 현기증, 손 발 배가 냉한 증상
4. 신장기능 장애로 손 발 얼굴 부종이 잦고 소변에 이상이 있는 이뇨장애자
5. 간 기능이 떨어지면 눈에 심한 피로와 충혈로 침침하고 소화가 잘안되고 깊은 잠을 못자는 분
6. 고질적인 치질 · 치루 · 탈항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
7. 부인과 분야(냉증, 세균성 염증, 월경이상과 통증, 불임, 불감 제증상)
8. 피부증상(악성 세균성 피부질환, 여드름, 화장이 잘 안받는 거친 피부)
9. 전립선 기능장애와 성기능 장애로 마음이 쓰이는 분은 꼭 필요함

※ 전세계 발명품 금상수상

(중국국립의료원 세계정상급 의학자 200명 임상실험자료)
전세계 수출(물리치료기-병원용, 가정용)
한국 수입 품목 허가 번호 (01-506)
한국 각 종합병원, 한방병원, 보건소 등 200여곳 설치 사용중

金賞 세계발명품 박람회 금상수상

※ 각종자료 ( 임상치료 통계 : 각 환자별 숫자 : 4302명 ) - 무료우송함

미국F.D.A에서 특정 자기파(특정자기파) 치료기 인정 (K875052)

(수입원) (주) 휴먼라이프 상담대표전화 : 주,야 02)522-2464 / H.P: 011)9742-2550

청동불상 제작 전문



장인정신에 입각해 본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성원과 조언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천수천안관세음보살

※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청동 불상, 천불, 삼천불, 만불, 개금, 탱화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1층) 성화불교전시관 · 성화불교미술원

전시관 : 02)2209-0080, 0081 주 · 야 상담합니다

공장 : 031)591-1022 핸드폰 : 011)302-1022



**복수초** 눈을 뚫고 꽃을 피운다 하여 설연화(雪蓮花) · 얼음꽃 등으로 불리는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 풀이다. 2~4월에 노란색 꽃을 피운다.



**얼레지** 가재무릇이라고 불리는 백합과의 여러해살이 풀이다. 전국의 산에 널리 분포하며 숲속 그늘이나 고산에 주로 자란다. 4~6월에 자주색 꽃을 피운다.



**노루귀** 파설초(破雪草) · 설함초(雪含草)라고도 불리는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 유독성 풀이다. 이른 봄 눈을 뚫고 흰색과 자주색의 꽃을 피운다. 꽃대가 잎보다 먼저 나오고 꽃받침에 노루의 귀털같은 털이 많아서 노루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 눈부신 초록대간엔 색색의 들꽃 향연

## 백두대간 속으로 〈34〉

### 닭목재→대관령

## 수줍은듯 곱게 핀 복수초 눈인사
## 능경봉~황병산 능선 빼어난 눈맛

신 포도를 떠올리면 입 속에 침이 고이듯, 신록이라는 말을 들으면 귓속까지 파란 물이 드는 것 같다. 말은 그냥 말일 뿐 실제의 초록이 깃들어 있을 리 없지만, '신록'이라는 말의 정서적 환기력은 실제에 맞닿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이런 종류의 말은 단순한 부호가 아니다. 어긋남 없이 사물과 조응한다. 지극한 아름다움은 참됨과 통하는 것과도 같은 이치일 것이다.

흔히 4월과 5월의 푸르름을 신록이라 한다. '싱그러운' 따위의 수식은 오히려 군더더기다. 작렬하는 태양 아래서 압도적 기운을 발산하는 여름의 짙푸름과 달리 뒹굴며, 따라 물들고 싶은 푸르름이다. 꽃 같은 푸르름이다.

지구가 초록별이라는 실감도 더해간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가 발산하는 초록빛의 정체가 '물'이라는 사실은 접어 두자. 이런 때는 굳이 산을 오르지 않아도, 먼 눈길로 산빛을 더듬기만 해도, 산과 나는 하나가 된다.

"내 나이 스무살 하도 예뻐서 구르는 돌에도 입맞춤 했네"라고 노래한 곽재구 시인마냥 산빛과 '눈맞춤'하기 딱 좋은 때다.



강릉시 성산면에서 왕산면 대기리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학생들과 장보러 갔다 돌아오는 대기리 사람들과 함께다. 서 있는 친구를 끌어당겨 조그마한 궁둥이를 한켠으로 밀치고 자리를 나누는 초등학생 아이, 손주 볶으로 보이는 과자랑 달걀 꾸러미를 보듬어안은 할머니. 아침에 봤을 얼굴인데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은지 끊임없이 얘기를 나누는 아주머니들. 결코 도시의 버스 안에서는 볼 수 없는 정경들이다. 오랫만에 느리게 흐르는 시간을 만났다. 닭목재(680m)에서 몸을 부린다. 이곳에서부터는 또 다른 속도의 시간이 흐를 것이다. 사람의 보폭과 산의 높낮이가, 갓발과 바람의 관계로 공명할 수 있기를 꿈꾸어 본다.

뉘엿뉘엿 기우는 햇살을 이마 가득 안고 대간을 오른다. 신행 들머리는 산신각 오른쪽으로 돌아오르는 임도다. 이내 제법 근사한 소나무 숲이 나타난다. 소나무로 흘러내리는 햇살이 푸른 비늘처럼 반짝인다.

이어서 드문드문 두릅을 심어 놓은 고랭지 채소밭이 나타난다. 길 한켠으로는 비료포대나 농약병, 폐비닐이 나뒹굴고 있다. 남루한 오늘의 농촌 현실을 보는 것 같다. 차라리 욕지거리라도 내뱉을 수 있다면 속이라도 후련하련만 그것도 쉽지 않다. 뭐라 궁시렁거려봤자 내 낯에 침 뱉기일 뿐인, 뻔한 우리내 살림살이의 어두운 그림자다.

30분쯤 오르니 한우목장이 나타난다. 대간의 마루까지 점령한 목장 울타리를 끼고 서북쪽으로 솟구치며 휘돌아오르니 동쪽으로 서득봉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다. 멧들어진 가지를 늘어뜨린 아름들이 소나무 아래에 몸을 누인다. 대문도 울타리도 없는 집이니 필시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일 것이다.

엷은 안개와 황사에 가려진 아침이 열린다. 가까운 산도 먼산인 양 희미한 하늘금을 보여준다. 실눈을 뜨고 모자이크 벽화를 보는 기분이다. 색다른 느낌이다. 이렇듯 모든 사물은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새롭게 인식된다. 황사를 탓할만 할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사물의 진체眞體를 보는 눈을 뜰 일이다.

차츰 키를 높이는 능선을 따라 오르니 늘씬한 참나무숲 아래로, 무리지어 피어난 얼레지가 날렵하게 치켜올린 꽃잎을 하늘거리고 있다. 한 동안 그 곁앞에 넋을 다 주고 만다. 다시 걸음을 재촉하니 고루포기산(1238.3m)이 눈앞이다. 정상으로 송전탑이 지나는 게 볼썽사납긴 하지만 조망은 아주 빼어나다. 느긋한 눈으로 바라보면 능경봉에서부터 대관령과 황병산이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내 기억의 곳간에 담긴 그 모습은 지금도 눈앞인 듯 생생하다. 특히 황소의 잔등처럼 순하디 순하게 흐르는 황병산 언저리의 군더더기 없는 능선은, 산에 드는 즐거움을 구릉 위로 둥실 띄워올린다.

고루포기산을 내려서는 길은 저절로 잰걸음을 만드는 내리막길이다. 그렇다고 뛰듯이 걸을 수는 없다. 수줍은 듯 피어오르는 들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봄 산행만큼 해찰을 부리기 좋은 때도 없다. 쉬어가다 졸리면 꼼빡 봄꿈에 잠기기도 하며 한껏 게으름을 피워도 좋은 때가 지금이다.

고루포기산을 한참 허리를 낮춘 곳에서 복수초를 만난다. 쪼그리고 앉아 요모조모를 뜯어본다. 고루포기산에서 능경봉까지는 오르내림이 잦지만 요즘처럼 들꽃이 고운 때는 그리 지루하지 않다. 왼쪽(서북 방향으로 시야가 열리는 곳에서는 횡계와 용평 스키장, 고원을 가로지르는 듯한 영동고속도로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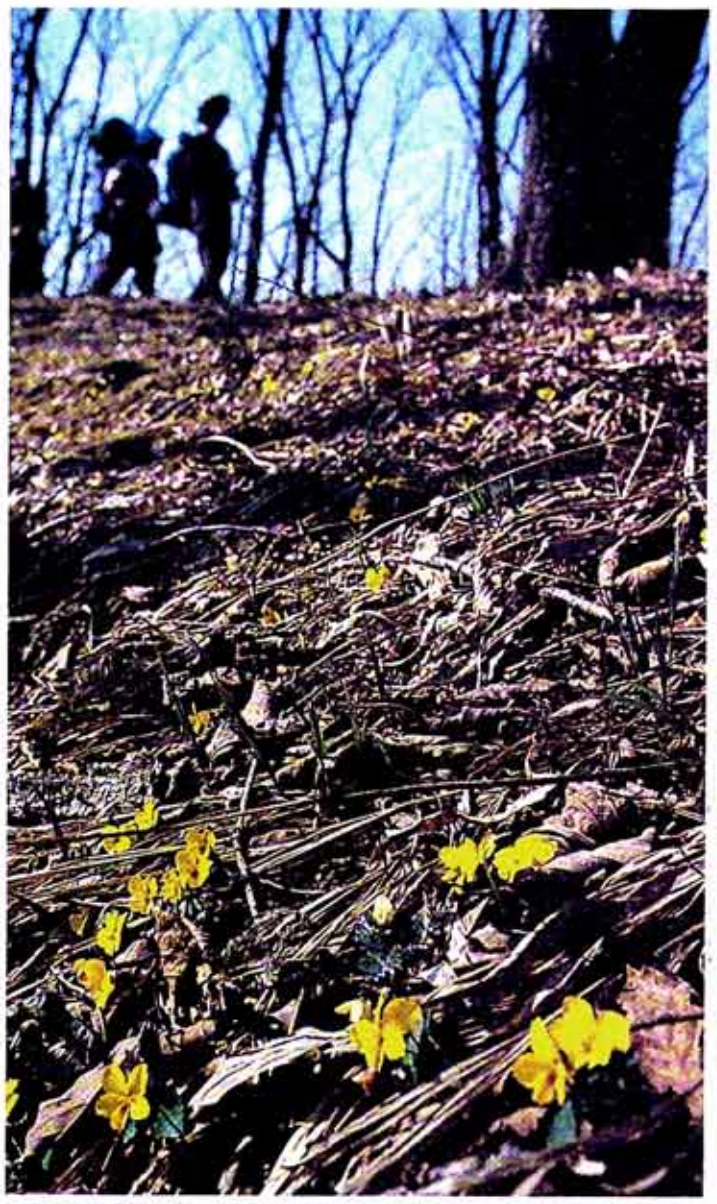
둥두렷한 형국의 능경봉(1123.1m)은 보기와는 달리 상당한 위업과 기품을 지니고 있다. 한참동안 키를 높이므로 다가서기에도 만만치 않다.

능경봉에서는 강릉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국립지리원의 지도에도 한자 표기는 보이지 않지만, 강릉을 바라보기에 좋은 곳이라 하여 능경(陵景)이라는 이름을 얻지 않았을까 싶다. 맑은 날씨라면 경포호와 동해바다도 눈 안에 넣을 수 있는 봉우리다.

능경봉에서 한 시간 남짓이면 아흔아홉구비를 휘돌아오르는 대관령이다. 천천히 내리막길을 걸으며, 고향 그리움이 절절히 배어나는 사임당 신씨의 노래를 읊조려 본다.

산첩첩 내 고향 천리이언만
자나깨나 꿈속에도 돌아가고파
한송정 가에는 한 줄기 바람
갈매기는 모래톱에 헤지락모지락
언제나 내 고향 돌아갈거나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능경봉 오름길. 높은 산이라 겨울의 흔적이 남아 있지만 회사한 들꽃만으로도 봄을 만끽하게 한다.


謹 辛巳年五月五日巳時立柱上梁 謹



삼도(參圖)작품은 상량식에 근거하여 연구한 작품입니다. 우리 조상님들 께서는 세집 3년이 어렵다 생각하고 종교와 종단을 초월하여 누구나 이렇게 상량식을 하여왔습니다.
소승은 여기에 근거 호도를 더 넣어서 장기간에 걸려 연구개발한 작품으로 혼자 소장하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워 서면으로 공개하는 것이며, 이것은 물욕때문이 아닙고 다 같이 복록을 같이 누리자는 것입니다. 종교와 종단을 초월하여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삼도(參圖)는 첫째 용도(龍圖)는 재수를 뜻하고 호도(虎圖)는 모든 재난을 막아주며 구도(龜圖)는 수명을 뜻합니다. 소승이 직접 연구 개발하여 점안기도를 올렸으니 안심하시고 가정이나 공장, 사무실, 특히 이사할때, 개업 그리고 대 소 각종 영업장소에 사용하시면 그 효력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이 사용하여 소원성취 하옵소서.
소승이 직접 수작업하여 일년전부터 1개당 20만원씩 받아 왔으나 이번 홍보기간에는 12만원 특별가로 책정하였습니다. 각 사암 주지 스님이나 불교상회나 단체 주문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활넘사 만봉 합장

참 圖 龍 虎 龜 作 品




액자 크기 가로 40cm × 세로 50cm

활넘서 만봉 작품

은행인 입금 구좌 번호 : 대구은행 190-08-119647-001 손석하

※ 원목금색태 작품은 30만원 입니다 ※

주소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 1리 127-39 전화 : 054-973-5863, 011-810-5863, 054-975-2152, 011-504-2188